공군

6

〈미사일 · 코메트 綜合〉

第 75 號

特輯

共産主義와오늘의世界

緊迫-핵무기-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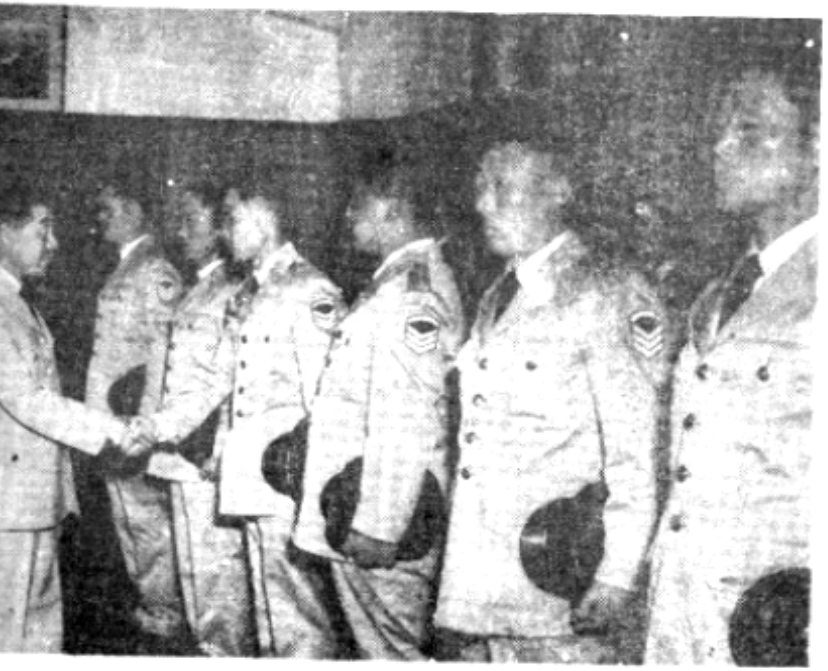
1963

문교장관, 장총장에 감사장

이문교부장관은 5월 22일, 항공과학전시회 개최에 대한 협조를 치하하는 감사장을 장총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장 총장을 대리하여 이장관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는 장 참모차장

무사고비행만시간돌파(11전비)

11전비단에서는 또 하나의 무사고비행 만시간 기록을 수립하여 장총장을 대리한 장 참모차장으로 부터 영예의 표창장과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사진=장 참모차장으로부터 상장과 트로피를 받는 장면과 기념촬영



공군모범용사 10명 선발

5 · 16혁명 2주년을 맞아 국방부에서는 3군 모범 용사를 초대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베풀었다. 우리 공군에서는 10명의 모범 용사가 선발되어 참가하였다.

사진=(상)청와대에서 박의장과 기념촬영
(하)장총장의 접견을 받고 있는 용사들

공사교(空士校)서 어린이 잔치

공사교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내 31개 초등학교에서 124명의 어린이와 31명의 인솔 및 많은 학부형을 초대하여 성대한 어린이 잔치를 베풀었다.

사진=(상)생도들의 축복 아래 소공자 소공녀를 선두로 파티장으로 들어간다.
(하)교장 부교장과 나란히 서서 사열을 받는 소공자 허광군과 소녀 김영혜 양과 이날 초대된 아동들

공군(코메트 미사일 통합) 75호 차례

〈화보〉 · · · · · · · 표지 2 · 3면 및 목차 뒤
6 · 25 13주년에 부치는 시 다시 일어나야 할 조국이여 · · · · · · · · 박두진(2)
과학하는 마음 · 중 · 일철(4)
전력 증강의 길 · 김종열(45)
농촌 진흥의 기본 방향과 군내영농교육의 성과 · · · · · · · · · · · 임종대(26)
특집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전략 · · · · · · · · · · · · · · · · 지성구(13)
미주에 침투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 · · · · · · · · · · · · · · · 이상순(20)
아랍세계의 기상도와 동서 관계 · · · · · · · · · · · · · · · · · 정연권(27)
공산주의와 아프리카 · 양홍모(35)
◇세계의 항공 세력(하) · 홍성표(106)
◇미국방성 인간우주비행 계획 · · · · · · · · · · · · · · · · · · 외지에서(57)
◇항공기와 미사일의 장래 · 박철(51)
〈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 이기철(74)
내무반장의 요건 · 백현석(69)
▽공산정권의 폭정실태 · 조복(84)
▽중공의 악순환 · 외지 에서(43)
▽소련의 공포정치 · 그리고레프(97)
포위망을 뚫고 북한애국동포는 나를 살렸다 ⑤ · · · · · · · · · 이준수(90)
〈요약〉 제3제국의 흥망(제2부) · · · · · · · · · · · · · · · · · · 샤이러-(122)
<지상강좌>
민주주의 원리 (1) · 이극찬(144)
공산주의 비판(1) · 김창순(149)
◇조종사가 되려면 · 이효빈(61)
◇낙하산에 대한 일반상식 · 이훈(78)
◇항공장구 · 이정우(65)
한국적 교양 〈한국의 자랑⑥〉 · · · · · · · · · · · · · · · · · · · 조풍연(132)
현대철학강좌⑥언어와 진리의 문제 · · · · · · · · · · · · · · · · 김형석(138)
▼ 세계경이순례 · 김영주(154)
교목 〈화 · 문〉 · 김영주(162)
충혼 〈시〉 · 박훈산(160)
소설 위문편지 · 안수길(163)
명랑소설 불행중 다행 · 유기영(168)
표지 · · · · · · · 민철홍
목차컷 · · · · · · · · · · · · · · · 우경희

공 군

<코메트, 미사일 통합>

제 75 호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

다시 일어나야 할 조국이어

박두진

그날 쓰러진 젊음들의 외마디 소리는
어느 하늘을 지금 떠돌고 있을까?

그날 쓰러진 젊음들의 마지막 눈동자는
어느 별 위에 그때 머물고 있었을까?

불모와 암담과 수난의 숙명지대
피 로도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피 얼룽 먹에찌든 이방지대여!

국토는 허리를
역사는 피로 끊긴
아직도 눈이 멀은 조국의 이상

태양도 눈을 감고

산천이 몸서리치고

별 들이 피에 젖어 거꾸로 떨어지던

그날 뿌려진 젊음의 피는

어느 강물을 지금 흐르고 있을까?

그날 넘어진 따듯한 육신들은

어느 골짜기에 지금 백골로 잠잘까?

다시 일어나야 조국이여!

눈이 떠져야 할

조국이여!

암담한 어제는 내일의 영광

피로 쓴 역사의

불멸의 이름이여!

과학하는 마음

-미신적인 것들과의 대결-

신일철
<고대 문리대 강사>

◇미신은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한다. 하루빨리 형이상학적인 미신관념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실증성 있는 과학정신을 배양해야 하겠다. 그리고 과학이 진리라는◇
◇신념과 그것을 위한 과감한 투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야 하겠다. ◇

「굿하는 현대인」

인간은 아마도 무엇이든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다. 정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 것이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은 불가해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어떤 미신이나 운명에 돌려 버린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가장 일용면에 활용된 부분은 의학인데 중병으로 입원했다가 죽은 환자를 보고 「의사도 별수 있나? 이 명이 짧은 사람을!」하고 운명에 돌려 버리는 일이 흔하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철마가 산모퉁이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란 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 우리들의 마음은 미신에의 신앙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6·25 동란으로 최신식 제트기가 하늘에 하얀 금을 긋고 대포가 천지를 진동하는 과학기술의 위력을 눈앞에 보고도 일선에 간 아들의 안부를 물으러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형편이며, 교통사고가 나도 「횡액을 때우지 못해서 제 명대로 못 죽었다.」고 하고, 도둑을 맞아도 「액땜을 했다고 서운한 마음」을 위로한다.

비교적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에서도 골목

마다 행년(行年), 택일, 관상, 수상(手相) 보는 곳, 더구나 요사이 부쩍 는 「성명(姓名)철학관」—사람의 성공은 이름 3자에 달렸다고 외치는 전세기적 풍경은 바로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

이런 술수들이 번연히 거짓인 줄 알 만한 사람들도 딸 시집보내는데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직 허다하며 심지어 일요일에는 「나 이외의 불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종교 기독교인도 하필 나쁘다는 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 했다가 잘못 사는 날에는 한이 되게! 남들도 다 보는 것이니 궁합 맞추어서 합시다.」—이렇게 양쪽을 다 보는 한국식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하기야 화학자가 통일교회에 나가서 병 고치고, 어느 자연과학자가 박(朴) 감남나무의 이슬 같은 구원을 희구하는 일 등, 이것 모두 한국적 풍경의 스케치인 것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우리는 아직 과학적인 정신을 체득치 못하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 민속화된 이 미신이라는 이름의 마귀들이 쉬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상, 사주의 판단이 우리들의 생활과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는 미신이 허울 좋은 통계학이라는 거짓 과학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생활의 과학화는 요원할 것이다. 하등의 근거도 이익도 없는 이 관상·사주의 미신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고 백주(白晝)에 큰 간판을 걸고 신문 광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20세기 신화의 하나이거니와 그네들의 사언(詐言)을 믿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돈키호테는 아마 금강산과 더불어 한국의 진경이 아닐 수 없다. 공원 같은 곳에 자리 잡은 술사들은 천연기념물로서 보존하는 데는 찬성하나 그것을 직업으로 공인하는 데는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있지 않으면 수도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굿을 하고 살풀이를 하고, 운수가 나쁘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비극은 더 커져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신은 결국 독단이나 무반성의 산물이오, 원시 미개인의 지식을 계승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한국이 근대화의 세기적 대업을 수행하려면 생활 속에서 독단과 마술을 추방하고 합리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세계관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서구의 찬란한 물질문명에 뒤떨어진 비에는 과학을 못 가진 탓이며 전과학적 생활의 미몽 속에서 사실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정신 없는 「은자의 나라」

1890년 5월부터 약 2년간 구한국 프랑스의 공사, 서기로 있던 모리스·쿠랑이 쓴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ne) 서론에서 「대개 조선 사람은 외계의 자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더욱이 시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동식물과 보통 자연현상은 일상생활에서 숙친하고 있으나 그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마음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거야」하는 대답이면 대개 만사는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조선에는 과학정신이 없다. 조선 사람은 주역을 본받아 형이상학을 연구하고 그 이외의 일에 관하여도 유교의 교의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였다.」—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즉 19세기 한국의 사상을 프랑스인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의 문화적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자주성 확립에 커다란 장애를 받아왔고 사상면에서의 사대주의는 거북선을 만들고 한글을 만든 탁월한 한국의 지혜의 싹을 분질러 놓았다. 그 후 남의 생각과 남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내 일은 내 생각으로」라는 정신적 독자성은 영 상실되고 만 것이다. 우리 민족도 이 땅 이 하늘 아래서 우리대로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 있고 이 노력을 밑받침하는 우리 생각 즉 한국사상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에 많은 애착과 애석함을 느꼈던 「쿠랑」은 「과거에 대한 애착은 오직 정체를 일으키고 말았다.」고 기록한 것은 그대로 진리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살고」 「외국에 살았지」 진정 「미래에 산 적」이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그의 말처럼 소위 「빈약한 나라, 교통이 곤란한 나라」라는 누명을 면치 못했고 해외와의 교섭이 두절되어 선진문물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은자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조선은 특히 수 세기 이래 약탈과 정복에 위의 이외에는 조금도 외국인과의 접촉이 없었다. …… 유폐된 고도의 사상은 알력의 화근이 되어 국가는 당파로 분열하고 당쟁은 사회의 진전을 막고 이 모든 것이 드디어는 오늘과 같은 비참한 정경을 낳고 만 것이다.

이 뼈저린 충고는 70년 후에도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하다.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일도 그르치기가 일쑤요 비방과 손해만 일삼는 소인배들이 피나는 개심을 못한다면 영 이 땅 위에서 사라져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가르쳐 외국인들은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맑디 맑은 아침도 그것이 공허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공허한 머리, 공허한 사상을 가지고 방황하는 「은자의 나라」는 항상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비참한 운명의 희롱에 울어야 한단 말인가?

자기의 전통도 고전도 사상도 다 잃은 가난한 백성을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통탄이다. 통탄 그것이다.
이제 서구의 과학사를 더듬어 미신의 악마성을 검토 비판해 보자.

과학에의 향수

「인류의 역사는 관념의 모험(Adventures of Ideas)이다.」—이 말은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화잇헤드의 말이다.
오늘날 서구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주시대의 문전에서 노크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미시의 세계 깊숙이 통찰의 메스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과학이 가져다 준 인류사상의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새에 우리 동양은 과학을 못 가진 후진 지역으로 낙후되어 서구문명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최근 서양에서 동양연구의 열이 높아간다고는 하나 그런 것이 결코 낙후된 동양의 낙인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없으며 과학기술의 부진을 변명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서구는 그레시아 이래 어느덧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안을 체득케 되었고 사연을 법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이 지배력을 가진 반면에 동양은 초기에 과학의 싹이 트기는 하였으나 모험에 실패하고 비과학적 관념이 지배함으로써 진보와 발전을 상실한 침체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과학은 유럽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동양에서도 성장할 터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써 보편성을 가진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1945)이라는 대저를 쓴 현대 영국의 생화학자 니이담(Joseph Needham)이라는 사람은 초기 중국 문화에는 상당한 과학적 창조가 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으로 보편적인 요인은 근대과학 및 근대기술이며 따라서 또한 이것을 가능케 한 철학사상이다. 그리고 유럽이 가져온 것은 유럽적인 혹은 서구적인 과학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확증될 수 있는 세계적인 과학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따라서 동양은 과학을 버린 것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원통하게 생각하여 인류 지성의 최대의 산물인 과학을 체득한 현대인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학에서 해방된 근대과학

서구에 있어서 과학은 대체로 17세기에 대성을 보았으나 그 도정은 미신 내지는 사이비 종교와의 피 어린 투쟁으로

상처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세기 이래 과학은 당시의 종교와 적대관계 가운데서 자랐으며 신학과 성직자의 학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중세기 이래 독단적인 신학이 과학의 위에 서려는 참월(僭越)과 모든 학문을 신학의 노비로 만들려는 탐욕을 고집하여 새로 대두한 르네상스 과학과 대항하여 이 투쟁은 19세기까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는 점차 사필귀정으로 신학이 하나씩 자기 영토와 주장을 포기하고 20세기 과학의 개가에 놀래어 신학과 종교의 위치는 박물관 진열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라고 한 헤라크레이토의 말처럼 과학자의 눈물겨운 항투가 오늘의 과학을 가져온 것이다. 권위나 미몽에 의거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유로운 사색으로 통해서 실험을 행하여 사실 그대로의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 방법을 준 베이콘이나 지동설을 옹호하여 순(殉)한 코페로니크스의 위대성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성경 구절과 다른 주장을 내포한 과학설에 박해를 가하는 종교재판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꿋꿋이 살았고 인체 해부 금지, 진화론 반대 기세를 꺾고 생물과학은 오늘날도 그 성과를 높이 쌓고 있다.
과학이 얼마나 핍박받았고 그 속에서 싸웠는가는 럿셀이 최근에 발표한 「과학이 사회에 끼친 충격」(1951)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한 구절을 보면 「흑사병과 대화(大火)가 있은 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영(英))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했다.……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것을 신의 불쾌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했다. 위원회는 천주(天主)를 가장 불쾌하게 한 것은 토마스·홉스의 저서라고 단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홉스의 출판을 금했다. 이 법령은 실증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런던에 흑사병이나 대화가 없었으니까……」하고 야유하고 있다. 또한 17세기에도 혜성의 출현을 「혁명·흑사병·전쟁·폭풍우·지진의 전조로」 생각했고 무녀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최종적으로 금지된 것은 1722년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종두법을 최초로 도입한 민족과학의 선구자 지석영 선생이 무당들의 돌팔매와 모략으로 유형(流刑) 당하지 않았던가?

과학한국의 장래를 위해

과학은 미신과 독단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그러나 과학을 옹호하는 과학인이 있어야 하고 과학정신이 보급되어야 한다. 과학이 진리라는 신념과 그것을 위한 과감한 투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서구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언급했거니와 과학은 서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옳은 사고방식」이라는 넓은 뜻으로 생각해도 좋다. 과학의 생명은 실증성과 정밀성이다. 자연의 비밀을 아는 데는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문제이며 그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이비 전도관의 성화(聖火)나 정감록의 정씨 조선 천년설 따위의 근거 없는 것을 제 눈으로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만용이 비 과학인의 심성인 것이다.

의심은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한국인은 관상·사주가 생애를 예언한다고 믿는 경향이 많으니 왜 그토록 의심해보는 용기를 못 가졌을까?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것이 거짓이오 사기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 아닌가? 결국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안이한 태도와 요행수를 바라는 운명관이 아직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확실한 지식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는 정신과 일단 진리라고 확인되면 생명을 바쳐 옹호하는 것이 20세기 과학인의 정당한 자세인 것이다.

우리 한국이 근대화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저 서구가 17세기에 감행한 사고방식의 혁명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네들의 발전도 징조·마술·접신에 관한 신념을 버린 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럿쎌이 든 세 가지 요소가 17·18세기 과학관의 기초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① 사실은 관찰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고 권위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② 무기물의 세계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동적 자존적 유기체이다.

③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또한(목적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지구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개념은 과학개념으로서는 무의미하다.

이 세 가지 과학 정신은 20세기 한국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태도요 생활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과학적 방법을 몰랐던 우리의 전통은 사실을 관찰하는 끈기가 없고 그 진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번에 우주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주역 같은 사기 속에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것은 권위나 전통을 전제한 사고로써 진리에는 도달되지 못하고 실용면에서도 아무런 힘을 못 가지는 것이다.

콤트는 일찍이 인류지식의 세 가지 발전단계를 정하여

① 신화의 단계

② 형이상학의 단계

③ 실증과학의 단계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첫 신화의 단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비약이 요청 된다. 이제 셋째 단계인 실증성을 가진 과학의 단계로 이 단계는 산업사회의 단계이다. 우리나라가 오늘 전근대적 산업 속에서 후진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형편인데 이 침체와 낙후성을 극복하여 근대화를 감행하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길도 과학의 도입 외에는 없는 것이다.

영국 산업혁명의 뒷받침이 된 것은 증기기관이라는 과학발전의 기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 앞에는 전통과 미신과 싸워야 하는 혈로가 놓여 있다. 이는 마음에 대한 마음의 싸움이오

마음속에서 준열한 우상 파괴를 감행해야 한다. 온갖 선입견 편견을 배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먼저 파악하려는 객관적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근세 과학의 방법론을 제창한 F.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라틴어로 『Scientia est Potentia』라고 했다. "『Scientia』"는 아는 것 혹은 지식을 뜻하며 상식과 같은 무반성적 체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반성적 체계적 지식인 것이다. 일상적 지식인 상식은 비교적 과학보다 종교적인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점에서 몰이해하고 비실제적인 과학적 지식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하는 마음은 첫째로 <냉철한 마음>이다. 과학은 편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유용성마저도 떠나서 진리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탐구한다.

둘째로 과학은 이론적이다. 비실제성에서 출발한 과학은 그 결과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학정신 자체는 몰이해적인(Disinterested) 지식을 위한 지식이다. 과학적 탐구 그 자체가 자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셋째로 과학은 보편타당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법칙을 세운다. 그 법칙은 관념상의 체계가 아니라 수시로 현상을 관찰·검토하여 사실에 복종하여 수정 내지는 파기 당하는 법칙이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넷째로 과학은 뻔히 아는 것이라고 상식이 인정한 지적을 다시 의심하여 왜 그런가? (Why)로 묻는다. 원인을 규명하려는 탐구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섯째로 과학은 자연적 무의식적인 경험에 만족치 않고 방법적이요 조직적이다. 과학은 계획적이며 실험과 관찰을 통해 사실을 탐구하는 것이다. 과학 하는 마음은 주먹구구가 아니라 자연이나 대상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묻는다. 그래서 과학은 가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설은 하나의 작업가정(Working hypothesis)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학이 탐구해 놓은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실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확률성만을 가진 개연적

지식 체계에 그치는 겸손을 가진다.
결국 과학 하는 마음은 무슨 대상이나 의심해 보려는 마음이요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원인을 탐구하고 이론화하려는 정신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리를 위해서는 겸손한 데모크라시의 정신인 것이다.
과학에는 독선이나 독단이 가장 금물이며 냉철한 지성을 지팡이 삼아 항상 사실을 물어보아 제 주장을 수정하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과학 하는 마음은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비판하는 냉철한 이론화에의 열정이다.
과학 하는 마음 그것은 Passionate Sceptics 즉 열정적 회의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자포자기 하거나 섣불리 자족하기 쉬운 동양인의 정신 풍토에 과학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팎의 수많은 적과 피투성이의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과학은 싸움이다.

카이젤과 쇼-
"셰익스피어는 독일인이야. 그 증거로는 연극 속에는 독일인을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않았거든." 하고 어느 날 카이젤은 영국 외교관에게 말했다.
"폐하, 그럼 호-마-도 같은 이유에서 영국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영국 외교관이 말했다.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카이젤은 대소(大笑)하고 나서
"쇼라는 사내는 어떤 자지?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다고들 하며 읽는 사람들이 있어."
"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일랜드인인데, 영국인을 조롱하여 오히려 애독되고 있습죠."
라고 영국 외교관이 말했다.
"거 참, 알 수 없는 국민이군. 독일인은 그러한 사람의 저서에는 돈을 쓰지 않지. 헌데 쇼라는 자는 사실 훌륭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람을 웃기는가? 응, 나처럼 현명한가?"
"폐하처럼?"
하고 영국 외교관이 반문했다.
"응, 그 자에게도 독일을 지배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말이네."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고 영국 외교관은 좀 주저주저하였다. 카이젤은
"지배할 수 있는가! 어때? 지배할 수 있나 말이야!"
카이젤은 답을 재촉했다. 영국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글쎄요. 그건 안될 것입니다. 쇼 선생은 글로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집>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1848년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소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지 15년—.
그간 기만과 공갈로 쌓아 올린 현대판 바벨탑 공산주의는 세계의 인류를 반분하여 그의 철판 속에 감금하는 데 성공하였다.
뿐이랴 공산주의의 성문 위에 나누기는 화려한 깃발들. 성안의 아비규환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원색적 매력을 잃지 않고 있다.
동남아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를 돌아 미주 대륙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와 기만활동은 아직도 집요한 바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는 <보다 자유롭기 위하여> 그 실태와 목표를 똑똑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전략
◇미주에 침투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아랍 세계의 기상도와 동서관계
◇공산주의와 아프리카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①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전략

지성구
외무부 동남아과장>

1. 전략적 견지에서 본 동남아의 중요성

동남아라고 일반적으로 불리 울 때는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 버마, 월남, 비율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마래,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씰론 등 독립국과 영국의 자치령 또는 보호령(싱가폴, 볼네오 지방 등)을 포함하는 부채꼴 지역을 말한다. 동남아는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하여 세계 제1차 대전 때부터 그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하였다.

즉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군이 인도지나를 점령함으로써 인도지나를 발판으로 하여 중국 본토 공격과 동남아 점령을 용이하게 하였고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점령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케 하였으며, 버마 점령은 중국 본토에 대한 완전봉쇄를 성공시키고

공산군과 싸우는 베트남군

인도 진주를 쉽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동남아는 구라파와 극동, 미주와 극동 간의 주요한 해상 및 공중교통의 통과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대단히 큰 것이다. 즉 동남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세아의 곡창으로서 심한 식량난에 당면하고 있는 소련과 중공에게 더할 수 없는 좋은 목표 국이며 동남아는 미곡 외에도 생고무, 주석, 대마, 코브라, 사탕, 석유, 홍차, 키니네, 중석, 망강, 목재, 호초 등에 있어서 세계 전 생산량의 대부분을 산출하고 있다. 특히 주석에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 전 세계 산출고의 약 6할에 상당하는 이 마래, 태국, 전화 난령, 동인도 제도에서 산출되었고 생고무에 있어서는 1950년 전 세계 산출고의 9할을 산출하던 마래, 인도네시아가 있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석유를 생산하는 등 전략물자의 풍부성은 일일이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와 같은 동남아지역은 자유 공산 양 진영의 전략적 가치에서 비교하여 보면 자유 진영은 (1) 대 중공·소 포위망을 형성하며, (2) 자유 진영의 경제적 군사적 이권을 보호하고 (3) 중공·소의 남하 정책을 봉쇄하는 것이며, 공산 진영은 (1) 태평양 진출로의 확보 (2) 대 중공 전역에 대한 위협제거, (3) 자유 진영의 극동과 구라파 간의 중계 기지를 차단하며, (4)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남아의 불안정

동남아는 대체로 서구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국가로서 예속되었던 후진 지역이라는 면으로 인해서 항상 불 안정된 지역에서 세력을 부식하고 내란을 조성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 혼란된 틈을 타서 자기네들이 정복을 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자에게 좋은 침투지역이 되었다. 동남아의 불안정의 요소를 잠시 살펴보면 첫째로 동남아는 인종박물관과 같아서 인종적 분규가 끊임없이 있다는 점, 둘째로 각종 종교가 뒤범벅이 되어 전파되어 있는 점, 셋째로는 풍부한 천연 자원에 비하여 기아선상에 서 헤 매이는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 넷째로는 정치적 미숙으로 인해서 민주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의 불만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점 등인데 이러한 불안정에 가승(加乘)하여 이 지역에 발생한 힘의 공백은 세계적화를 꿈꾸는 소련, 중공의 공산주의자에게 절호의 침투기회를 주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역에 침투하여 지방민들을 교묘한 술법으로 자극하고 감언이설로 그 세력을 부식하기 시작하여 동남아 지역에 그 뿌리를 박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공산세력의 활동은 반공 국가에서는 철저히 봉쇄되었으나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혹은 공공연히 혹은 비밀리에 민심 교란 정부 전복 등을 목표로 아직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공산 전략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과 중공의 최고국가목표는 각각 자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공산 세계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한 마디로 하면 세계적화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소련과 중 공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소련은 국내정세의 안정과 이미 국제무대에서 획득하여 놓은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공존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나 중공은 국내정세가 불안정 한데다가 국제정치상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고자세를 취하고 국제긴장을 가승시키는 데 부채질하는 한편 무력충돌을 도발하여 실력으로 대결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 면에서도 소련은 서방 진영과의 평화 공존 가능성을 공언하는 데 반해 중공은 전쟁불가피론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 세계정복에 있어서 소련은 소련대로 중공은 중공대로 패권을 쟁탈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동남아전략에 있어 서는 상호 간의 알력을 감추지 못하고 공공연히 대립하고 있다. 소련과 중공의 대동남아 팽창정책은 오랜 역사를 두고 꾸준히 있어 왔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설할 여유가 없으므로 제1차 대전 이후의 공산 진영의 대 동남아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하되 편의상 동남아에 있어서의 열전을 종식 시킨 1954년 제네바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1954년 제네바회의 이전

동남아제국이 내포하는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산 진영에서는 중공의 주도권 하에 동남아에 대하여 무력공세를 전개하였고 소련은 오히려 구라파 중점주의라는 전통적 노선에 따라 중공의 도발적 태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임한 것 같다. 즉 월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맹의 호지명이 정권을 수립한 초기에 소련은 구라파에서의 대불 협상을 중요시한 나머지 호 정권을 승인하는 것까지 주저한 데 반하여 중공은 처음부터 공식적으로는 소련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내막적 으로는 호지명 정권에게 무기나 보급 등을 공급하고 최초로 호지명 정권을 승인하였으며 기타 중공과의 인접국가 내에서 무장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중공과 소련의 이러한 현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서 호지명은 1949년에는 벌써 완전히 서방과는 등을 지고, 소련과는 소극적이면서 중공과는 가장 긴밀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중공의 사주에 의한 동남아 각국에서의 무력투쟁도 원자무기의 독점을 구가하는 자유진영의 힘의 우위성과 지방 관헌의 확고한 태도로 호지명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진압되었으니 즉 인도의 케라라 주, 마래, 인도네시아, 버마에서의 반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공이 이와 같이 호지명을 비롯한 동남아제국 공산당을 지원한 것은 요약하면 첫째로는 전통적인 영토팽창의 야욕이요. 둘째로는 이념전쟁에 있어서 국제 긴장을 조성하여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선전을 강화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1949년 침략적 정권을 수립한 이래

먼저 힘의 과시를 하기 위하여서도 무기원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나 이념적으로도 무장하기 위하여 1949년 유소기는 성명을 통하여 소위 식민지나 반식민지에서의 해방운동과 민주 운동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 어떤 곳에서나 또는 언제든지 인민해방군을 편성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해야 하며 중공은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중공의 이러한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정책은 극동에서는 한국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효하였다. 소련은 이러한 중공의 정책을 견제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호지명의 승리가 목첩에 보였을 때 소련의 이니시아티브로 휴전을 성립시켜 호지명의 분노와 실망을 샀다는 것은 중공과 소련의 대동남아 전략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동남아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그해(1954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씨가 집단보복정책을 발표하고 미국이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데 겁을 먹은 것이며, 1950년에 체결된 소·중공 방위협정에 의하면 중공이 공격을 받았을 때 소련은 공동으로 전쟁을 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핵 전략에 의하면 전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핵무기를 우선 대소 전전에 집중시킬 것이고 만일 승리를 한다고 해도 소련의 대동남아 희생은 중공에 의한 전리품이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호지명 이외의 버마, 비율빈, 인도네시아, 미래에서는 왜 실패하였는가? 버마, 비율빈, 인도네시아는 각각 중공 정권이 성립하기 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집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평분자를 포섭하여 지방 공산당 조직을 강화하여 무력저항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마래는 영국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별로 문제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1954년 제네바 회의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로 동남아에 있어서의 동서 간의 열전은 종식되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국제감시

위원단에 의하여 휴전이 감시되고 중립을 유지하기로 되었고 월남은 17도선으로 양단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대동남아 정책은 열전은 종식시켰으나 침투 활동은 오히려 적극화되었다. 먼저 소련은 1956년의 소련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그리고 1959년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소련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고 1970년대까지는 세계제일의 생산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각국 공산당조직을 독려하여 게릴라 봉기를 조장하는 한편 서방 진영과 대결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군사, 경제원조 공세를 시작하였다. 1955년에는 후르시초프와 불가닌은 SEATO(동남아 집단방위조약기구)에 참가하기를 거절한 아프가니스탄, 인도, 버마 등을 친선방문하고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수 억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공여하는 등 적극 정책을 썼고, 동남아에 있어서의 소련은 가장 주요한 목표 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잡았다. 그 광대한 지역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탐내어 소련은 서부 이리안 해방운동을 지지하면서 스카루노 대통령을 방소 초청하고 미국이 서부 이리안 문제에 소극적인 때에 인도네시아 부속도서의 반란을 계기로 약 1억불 내지 2억불로 추산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1960년 2월에는 약 2억 5천만 불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1961년에는 인도네시아 육군참모총장을 모스코바에 초청하여 약 억불에 달하는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56년 이후 약수억 불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면 소련이 인도네시아에 집중적인 공세를 취할 때 어떠한 전략을 썼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공도 동남아에 있어서는 소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대적인 화전 양면 공세를 시작하였다. 1954년에는 주은래는 네루와의 공동성명을 내서 (1) 양국의 영토 보전을 위한 상호협조 (2) 상호불가침 (3) 국내문제 불간섭 (4) 평등과 호혜주의 (5) 평화공존 등 5개 원칙을 강조하고 수일 후에는 유사한 성명을 주은래와 우수 수상간에서 발표하고 1955년 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아 중립국가회의를 통해서 전기와 유사한 평화 10 원칙을 내세워 동남아 중립 제국의 광범한 지원을 받았고 한편 인도네시아, 버마 등 10여 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물론 중공의 이러한 평화 공세는 침략의 탈에 불과하였음은 곧 뒤이어 중공의 인도지나의 수천만 평방마일의 영토의 무력강점, 중인 국경 침략 등에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중공은 때마침 한국동란 후 국제시장에서의 버마의 미가 폭락을 서방 진영의 조작이라고

비난하면서 3년간이나 버마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버마의 쌀을 사는 반면 중공 상품을 팔았다. 버마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수출품의 75%가 미곡이며 따라서 이렇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을 공산국가에 판다는 것은 공산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절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공의 버마, 경제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은 곧 그 추악한 마각을 드러냈으니 버마는 중공으로부터 입초를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중공의 독촉을 받았고 중공은 버마로부터 구입한 쌀을 버마쌀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 쌀론 등에서 다시 팔므로써 버마의 경제 혼란으로 버마의 목을 놓으려 하였다. 우수 수상은 부득이 공산주의자와의 제휴를 강요당하였고 (공산당의 불법화를 철회) 참다 못하여 1958년에 가서야 무역협정을 중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라오스에서는 어떠하였는가? 라오스에서는 무력반란을 계 속 했으나 1954년 이후부터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평화 공세를 가장하였으나 실상 침략적 야욕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소련은 전략적으로 동남아에 있어서의 부르주아 민족진영을 지지하려는 데 반하여 중공은 전략적으로 부르주아 민족진영에 반대하여 공산당 정권만을 지원하는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여 전면 전쟁의 모험을 무릅쓰고 라오스에서 소련은 푸마공의 연정을 지지하였으나 중공은 파테트 라오 즉 공산정권만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무기원조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중공은 라오스에서 표면상으로는 소련에 부득이 동조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 파테트 라오를 사주하여 라오스에 이르는 도로 건설과 항공로 개설 등 팽창정책을 추구하였고 중공의 이러한 침략정책을 위해서 는 중공이 월맹과 라오스에 막대한 병력 무기 기타 보급지원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공은 인도네시아에서 소련이 독무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있는 중공대사관을 통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지방 유격군을 지원하여 자기 세력의 부식에 힘썼고 중공은 또한 호지명 월맹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기타 동남아에서 소련과 주도권을 경쟁하는 데 혈안이 되었으며 1957년 말에 가서 중공의 제1차 5개년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1958년의 소위 대약진운동이 실패하자 원조나 무역 면에서 소련에 이기지 못할 것을 안 다음에는 더욱 흥분되어 유격전의 강화를 강조하여 소규모 전쟁을 도발하여왔다. 이러한 소규모 국지전에 미국이 휩쓸려 들어가면 이것을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선전하여 회색분자를 포섭하여 공산당의 조직을 강화시키자는 중공의 전략은 소련에 의해서 수차 견제되었다. 이것은 소련의 세계전략과 소련의 구라파제일주의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라오스 사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작금의 신문 보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과의 분규는 이념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문제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중공·소련 간의 분규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동남아에서의 소 , 중공의 전략에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공 · 소 대립과 동남아제국 공산당

이와 같이 중공·소 분규의 발전이 공산 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수반할 것인 이상 중공·소 대립 문제에 있어서 침투 대상인 동남아제국 공산당이 취하는 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중공·소 대립의 발단은 알바니아 문제이며 이것을 계기로 후르시초프는 중공의 고립화를 시도하였으나 적어도 동남아에 있어서는 소련이 이에 실패하였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동남아에 있어서는 씰론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중공·소 분쟁에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구태여 말한다면 친 중공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의 중공의 인도 침공 사건 이후 인도의 공산당이 반 중공적 태도로 급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동남아에 있어서는 종래의 대소 지배체제는 붕쇄되어 가고 있다. 중공은 티토 정권과 화해하려는 후르시초프 정책을 수정주의적이고 반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중공이 인도 국경을 침범하였을 때 처한 소련의 어물어물하는 태도는 형제적인 사회주의 동맹국에 전면적인 지지를 꺼려하는 후르시초프의 상례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아울러 쿠바에서 미사일 철거를 결정한 후르시초프의 태도는 서방 진영에 대한 유화정책이고 공포심의 표현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련 측은 전 면 전쟁의 위험을 내포하는 모험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단자라고 중공을 비난하고 있다. 공산 세계 내부의 불통일이 오늘날과 같이 외부세계에 공공연히 드러난 일은 없다. 그것은 이미 중공·소 분규가 내부적 화해의 가능성을 넘어선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중공·소 분규의 위기의 중요한 의의를 동남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공산 진영의 대 동남아 정책은 이제 일원적인 상태로부터 완전히 이원적인 것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원적 지배체제는 필연적으로 동남아 각국의 지방 공산당의 세력 쟁탈전으로 발전할 것이며 주도권을 잃은 공산당원들과 유동적 분자들을 포함하는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포섭 등 탄력성 있는 새로운 전술을 착안해야 할 것이다. 자유 진영의 대동남아전략은 계속해서 (1) 경제 원조를 통한 유대강화 (2) 민주주의의 육성 (3) 평화경쟁을 위한 강력한 힘의 유지를 기조로 하되 호지명, 스카루노에 대한 전철을 거울삼아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성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②

미주에 침투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이상순
〈경향신문사 · 외신부장〉

애초 구라파의 침략적 식민주의로부터 미주 대륙의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졌던 이른바 몬로-선언은 이후 범 미주 연맹을 거쳐 미주 기구로 발전해오는 동안 당초에는 예측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국주의 공산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여 또다시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쿠바에 상륙한 공산주의-.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잠동하는 국제 공산주의의 붉은 마수.
공산주의는 이제 구대륙의 암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의 고민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몬로주의와 중 · 남미>

미주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는 북 대륙과 남미대륙의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으나 현대의 정치적 도표로 보면 북미주 남미주와 함께 두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지역까지 합하여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북미주를 형성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확고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완성되어 있을 뿐더러 미국은 동·서양 대진영의 냉전 속에서 자유 진영의 영도국이 되어있기 때문에 북미주의 국제적 정치기상도는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것이 있다.
그러나 수 세기 전부터 구라파 각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해왔고 경제적인 토대가 미약한 중·남미 각국은 그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략적인 새로운 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을 뿐더러 현재 우후죽순 격으로 솟아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게 뻗혀져 있는 침략세력의 침투가 잠재적이며, 음성적인 데 비해 이 지역에의 침투방법은 극히 활동적이고 폭력적인 양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남·미주 저 개발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정치 방향은 이미 1823년에 미국의 몬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 몬로 선언에서 지적되어 있는바 미주 대륙은 기타 대륙의 각국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구라파의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오늘날까지 나려오고 있다.

이 몬로주의는 미주 각국이 자유 독립 국가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구라파 각국의 식민지화 또는 세력확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 선언이 있은 후 중·남미 각국에서도 이 원칙을 받아들여 1942년 리마 선언에서는 미주의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략도 이를 전체 미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다짐하고 1947년에는 이것을 그리오 조약에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경위로 보면 몬로 선언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구라파 선진국들에 대한 중·남미주에 대한 식민지화를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 왔던 것이었으나 1차 세계 대전 이후 이 기본방침은 새로운 침략적 제국주의로 변모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1954년 당시의 미 국무장관이었던 고 덜레슨 장관에 의해 만약 공산주의 국가나 또는 그 동조국이 미주 대륙에 출현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으로 몬로주의는 그 대상을 구라파의 전 식민주의 국가들로부터 공산주의국가의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에게 옮겨졌음을 확고히 밝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1890년 이래 58년 동안 계승되어온 범미주연맹이란 미주대륙기구가 없어지고 1948년 새로이 더욱 강력하고 단결된 미주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불붙은 쿠바의 공산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공산주의의 가능한 침략을 저지하려는 미주 대륙에서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침투를 시작한 것은 1959년 미국의 최남단 마이애미 주에서 불과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쿠바의 권력자는 바티스타 대통령으로 독재, 부패로 물든 권력의 화신 같은 통치자였기 때문에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할 때는 미국도 적지 않은 힘으로 디밀어 카스트로로 하여금 쿠바를 지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은 카스트로는 급격한 급진 정책으로 공산주의를 불러들여 쿠바는 잠시 동안에 공산주의 위성국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미주 대륙은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의 직접 적 침투의 위험 앞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공산주의는 「「카스트로 주의」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중·남미 일대를 침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미국을 비롯한 인접 각국들은 1961년 4월 카스트로에 반대한 망명객들로 조직된 망명군으로 하여금 픽스만을 거쳐 쿠바 본토 상륙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1차적인 무력에 의한 공산주의 추방 전략은 막을 닫았다.

반면에 카스트로 정권은 이를 구실삼아 공개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중거리 핵유도탄을 비롯한 무기와 군대를 불러들이고 중·남미 대륙 각국에 대한 소위 혁명 수출이라고 부르는 선동과 침투로서 이들 각국을 카스트로식 무력 혁명으로 전복시킬 것을 공언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주 대륙 각국은 역사상 일찍이 가져본 일이 없는 중대한 직접침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비단 중·남미주에 있는 약소국가들 뿐 아니라 쿠바 내에 소련의 병력과 핵무기의 기지가 건설됨으로써 미국 자신도 목덜미에 칼이 겨누어진 것 같은 위급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중대하게 되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2년 10월 22일 드디어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를 단행하고 쿠바로 향하는 어떠한 선박도 미 해군으로 하여금 검색케 하여 만약 무기를 수송하고 있는 선박이 발견되면 이를 돌려보내거나 또는 검색을 거부하면 격침 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물론 소련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하면 소련과의 전쟁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막상 세계대전이라도 각오한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소련은 체면을 크게 손상시켜 가면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후르시초프는 10월 29일 쿠바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을 철수시킬 것과 미사일 기지의 해체 중폭격기의 철수와 쿠바 주둔 소련군의 철수 등을 수락함으로써 쿠바를 둘러싼 두 번째의 위기는 잠정적으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사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은 물론 아니다.
소련은 아직도 쿠바에 1만 7천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공격용 장비도 남겨놓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이 이상의 전쟁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어 일단 위기를 모면한 케네디 정부는 쿠바에 대한 무력 침공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직접적인 자극을 회피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쿠바의 고립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 · 남미 각국의 불안한 현황>

이렇게 해서 미주 대륙에 첫발을 내디뎌 교두보를 마련하기에 성공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가뜩이나 정치적 불안에 갈팡질팡하는 중·남미 각국에 심각하게 파급되었다.
◇ 우선 쿠바의 인접국인 도미니카에서는 1962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반미·반정부 폭동이 접종하여 정국을 불안케 하였으며,
◇ 과테말라는 1954년 추방된 좌익적인 후앙·아르벤쓰·구스만 대통령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파급된 영향도 있지만 정국은 좌우익의 격렬한 대립으로 불안하다. 1962년 3월 좌익계 학생들에 의한 부정선거규탄 폭동이 촉발되어 전국에 파급되었다가 군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 공군이 주동이 되어 또다시 반란이 폭발 실패하였다가 금년 들어 지난 3월 31일 국방장관 아주르디아 대령이 일으킨 무혈혁명은 반 카스트로 주의자인 이디고라슨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보다 더 강력한 반공 반카스트로 정권을 수립하였다.
◇남미주에서 가장 좌익계와 군부가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르젠틴에서는 혁명 정권수립 또 혁명의 반복이 되풀이 되었다. 좌익계의 두목격인 페론전 대통령이 추방된 이후 프론티지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그 후 의회 및 지방 선거의 결과는 쫓겨난 페론파가 대거 당선되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또다시 군부가 혁명을 일으켜 1962년 3월 프론티지가 실각하고 기도 상원의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월에 접어들어 육군 및 해군 일부가 페론파가 대거 당선된 선거결과를 백지로 돌리라고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기도 대통령은 군부의 압력과 페론 지지파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하였으나 결국 의회를 폐쇄 하고 선거결과를 무효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권력 쟁탈로 변모한 군부의 반란은 계속되어 1962년은 일년 내 반란과 폭동 파업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금년에 들어서기도 대통령이 오는 월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하자 페론파 진출을 두려워한 군부에서는 지난 1일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간 채 현재도 아직 뒤숭숭한 불안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한편 브라질에서도 식량부족으로 인한 민간 폭동이 접종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는 정부 자체가 정치적으로 모호하여 카스트로지지 국제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도록 허가하는가 하면 반면에 미국에게는 더욱 많은 원조를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진로를 걷고 있다. 조양·구라르 대통령은 좌경적인 중립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어 그의 진로는 남미주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베네수엘라도 폭동과 반란은 끝일 사이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군부 속에까지 침투하여 1962년 5월 해병대를 주동으로 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1962년도에만 세 번째의 내란이었다.
바다 하나 건너면 쿠바이므로 그 영향력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폭동과 반란은 하나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각국은 폭동, 반란, 혁명의 연속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① 오랫동안의 식민지로서 경제적 기반이 외국 자본에 의존되어 있어 전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② 따라서 빈부의 차가 심하여 일반 대중은 공산주의 침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③ 국력에 비해 군대의 세력이 너무 커서 정권은 반드시 군부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점 좌경화된 서민층과 권력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군부 간에는 항상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 정국 불안정의 요인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향상에 달려 있는 실정에 있다.

<미국의 대응과 발전 동맹계획>

그러면 이러한 중·남미주 각국의 정치적 불안을 틈타 끊임없이 침투하는 공산주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에서는 어떠한 저지 책을 강구하고 있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중미주의 일각에 발을 내딛던 공산주의의 위협은 시급하고도 위태로운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경제적 후진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여도 이것을 방지할 완전한 방편이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부만은 강력한 반공 보루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좌익 세력은 일부 나라들의 군부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더욱이 노조를 통한 공산주의 운동은 방패하고

있으며 아르젠틴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거만 하면 반드시 좌익 세력의 상징인 페론파가 득실거리게 됨으로써 선거무효를 선언하거나 또는 선거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군부세력의 반란과 혁명 기도가 연거푸 일어나고 또는 브라질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부 자체는 반공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체통 있게 잘 짜여진 노조를 통한 좌익 세력이 두려워 국내에서 공산주의 대회나 중·남미에서는 가장 혐오하고 경계되는 카스트로 찬양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적 집회를 허가해야만 하는 고민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몸부림치는 중·남미 각국의 유일한 지원자인 미국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미국은 미주 대륙 각국 간의 보다 긴밀하고 협조적인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OAS(미주기구)를 통한 각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1962년 1월 쿠바를 OAS에서 축출함으로써 쿠바를 미주 대륙에서 고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탕을 비롯한 약간의 농산물이 쿠바의 산물이고 보면 이러한 미주 기구 각국과의 절연상태는 쿠바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며 사탕 등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기타 필수품을 도입 해와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의 길이 막힌 쿠바는 하는 수 없이 대서양을 건너 먼 거리에 있는 구라파나 또는 공산권과의 거래에 의존할 방법밖에는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구라파의 자유국과 협조하여 쿠바에 향하는 어떤 나라이든 군수품은 물론 상품조차도 수송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 방법과 함께 미국은 발전을 위한 동맹계획이란 방대한 중·남미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의 경제적 후진성 타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섰다.

이 계획은 1961년 7월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바 10개년 계획으로 1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서 서반구 전역에 걸쳐 자원개발 민주세력의 강화, 직업 및 교육상의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여 미주 대륙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외부 세계로부터의 어떠한 침략 세력의 침입도 이를 방지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의 기금 1백억 달러는 절반 이상을 미국이 담당하고 80억 달러는 중남미 각국이 스스로 부담하며 나머지 약간의 기금은 구라파 선진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대륙에는 새로운 신세대가 건설될 것이 예상되며 20개 독립국가

와 10여 개의 구라파 각국 속령들은 쿠바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의 불꽃을 따기에 충분한 기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때는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단호한 태도로 나왔던 미국이 아직도 쿠바 내에 상당수의 소련군과 장비가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원대한 계획으로 쿠바를 자연도태 시키거나 또는 국내에서 봉기함으로써 자유 민주 정부를 되찾도록 자극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남미대륙은 과거 동·서양 진영의 냉전 선상에서 먼 거리에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그 와중에 끼게 되었다.

과거의 냉전은 아세아 구라파 그리고 중동지역이 최전선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바로 턱밑 아래로 닥쳐오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오랜 서구라파 각국의 식민지로서 반 서방적이고 그 뒤를 이은 미국 자본의 대거 투입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방패하고 있는 이 지역의 방비는 미국으로서는 생명선과 같은 중대한 위치에 있는 곳이며, 소련으로 보면 자유 진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세아나 중근동, 또는 아프리카보다도 미국의 바로 옆집인 이 지역에 공산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뿐더러 가장 가까운 방법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쿠바의 공산화는 세계의 냉전 양상을 그만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노력도 또한 세계대전도 사양치 않겠다는 강력한 것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승패는 오로지 경제적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

처칠과 씨가

처칠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머물고 있을 때 농부들이 담배를 씹어서는 뱉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보 농부, 왜 담배를 그렇게 하오?』하고 물었다.

『처칠 어른,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칠 아저씨도 그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 좋은 생각이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배를 씹지 않으면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독서와 인생

애드워드 7세(1841~1910)는 독서를 즐기지 않는 편이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은즉

『그것은 아마 내가 한 번도 술맛을 보지 않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것은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즐기는 것과 같다. 나는 술을 한번에 마신다. 책은 한숨에 다 읽을 수는 없다. 그것이 나는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③

아랍 세계의 기상도와 동서 관계

정연권
<동아일보 기자>

◇하나의 아랍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아라비아 사막에 마호메트가 나타나 이슬람교(회교)를 제창하자 사막의 유목 민족들이 일약 공전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마호메트의 후 제자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마호메트 교조가 죽은 지 채 1세기도 안 되는 8세기의 전반까지에는 아세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다. 이 이슬람 제국은 11세기 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고 사막 속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중동, 북아프리카에 걸쳐 그 일대를 영구적으로 아랍화 되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아랍의 세계이다.

그리고 아랍 세계의 재통일은 오늘날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꿈이요 서로간이 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펠샤만으로 부터 대서양에 이르는 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랍인이라 함은 7세기 이래의 회교의 보급 지배에 의해 아라비아 된 민족으로 자신들은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아라비아 눈의 요건은 인종, 종교의 구별 없이 ① 이슬람교(회교) 문화를 갖고 아라비아어를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랍인의 대부분은 회교도이지만 그렇다고 회교도가 반드시 아랍이라고는 할 수 없다. 코란을 아라비아어로 말할 뿐더러 일상회화도 아라비아어를 사용 안 하면 아랍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 아랍인들은 다 형제들이다 하는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1차 대전 후 아랍제국의 민족주의 운동이 아랍 연맹의 결성으로 나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교는 아랍 세계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 동시에 그 반면 하나의 약점도 들어내고 있다. 아랍제국은 일반적으로 회교국이라고 하지만 레바논은 회교도와 기독교와 거의 반반이고 이 두의 정쟁은 내란에까지 이르게 된 일도 있다. 또 애급에는 2백만, 시리아에는 50만 이상의 기독교도들이 있다. 아랍 제국 전체의 인구비율에서 기독교도는 불과 밖에 안 되지만 아랍 세계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인테리계 급인 것이다. 형제간이라고 하는 아랍 제국간에 존재하는 대립, 분쟁에는 이와 같은 비 아랍적인 아랍인의 존재가 있다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아랍 통일이라는 스로간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아랍 세계는 늘 항쟁의 도가니 속에 있다. 각국 지도자 들은 누구나 아랍 통일을 외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보조가 잘 맞지 않는다. 아랍 세계가 여지껏 보조를 맞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반유태주의)와 알제리아 독립투쟁의 지지(반식민지주의)정도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도 이스라엘에서 내쫓긴 파레스티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요르단과 아랍 연합과 레바논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또 알제리아 독립 운동에 대한 낫셀 대통령의 지지는 한때 불기바, 튜니시아 대통령을 노하게 만들었다. 튜니시아와 모로코도 불란서에 대한 반식민지 전쟁에는 공통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알제리아에 대한 발언권, 리더쉽의 쟁탈전을 둘러싸고 늘 사이가 나빴다. 애급이 시리아와 합방했을 때 다른 아랍제국의 지도자 중에서 이를 진심으로 환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렬히 이를 저지시키려고 뒤에서 공작했고 당시 왕국이었던 이락은 요르단과 연방을 맺어 낫셀의 아랍 연합에 대항했었다.

아랍 세계는 일찍이 몽고, 터키, 영국, 불란서 등 외국 세력의 침입이나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아랍의 민족성을 만들어 놓았다. 또 오랜 외국의 식민지 지배는 아랍의 내부대립을 일으켜 디바이드·앤드·룰(분할통치)이란 유산을 남겨놓게 되어 아랍제국은 사사건건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오게끔 되었다. 더욱이 석유 이권을 둘러싼 서구국의 관여 1차 대전 후의 동서 대립의 냉전, 중동에의 미소의 진출 등이 불러일으킨 파문이 한편에선 아랍 통일에의 외침을 높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론 아랍 세계 내부의 대립, 항쟁

를 복잡화했다.

중동의 분쟁에는 석유는 꼭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아랍 세계를 석유를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왕도 석유가 발견될 때까지는 가난한 나라의 왕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의 원유 매장량의 약 3분의 1을 중동이 점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예산의 90퍼센트를 석유 이권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락도 영국서 지불하는 약 2억 칠십만 달러의 석유 이권료가 국가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왕제 때의 이락이 아랍 세계에 등을 지면서까지 바그다드 조약(중원방위조약)에 가맹한 것도 석유로 인한 서구와의 유대 때문이었고 당시 이에 가장 반대했던 것은 석유를 안 가진 나라 즉 아랍 연합이었다. 또 애급과 시리아의 한방에 이락이 반대했던 것도 실은 합방의 결과 이락의 석유의 송관이 낫셀의 아랍 연합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최대의 원인이었다. 석유를 안 가진 나라들이 아랍은 하나다 라는 스로간을 내거는 것도 석유의 혜택을 아랍 세계 전체의 것으로 해서 그 통에 이익을 보자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아랍 세계가 과연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거쳐 아랍 민족주의의 알·운마·알·아라비아(하나의 아랍)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인지 자못 주목거리이다.

◇아랍 통합에의 전망

지난 4월 6일부터 카이로에서 열리고 있는 아랍 연합, 이락, 시리아 3국의 아랍 통합에 관한 회의는 앞으로 구성될 연방의 헌법 형태에 관하여 이미 합의에 도달하고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생 아랍 연방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1) 수도를 카이로로하고 (2) 국명은 아랍 연합으로 하며 장차 세 나라에는 각각 애급 지구, 이락 지구, 시리아 지구로 하고 (3) 국기는 적, 백, 흑의 삼색기의 중앙에 두 개의 별을 집어넣었던 종래의 아랍 연합에 세 개의 별을 넣기로 하고 (4) 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경제계획, 통화, 무역, 관세, 세금 등을 취급하며 (5) 신연방은 유엔에서 단일의 의석을 갖기로 되었다.

이와 같은 새 연방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터키, 이란 국경에서 수단, 리비아 국경까지 페르샤 만에서 지중해, 그리고 홍해안에 걸친 면적 62만여 평방 마일에 달하는 대 판도가 이룩될 것이며 그 인구는 3천 8백만 년간 국민생산(GNP)은 57억 불에 달하여 그 경제력과 군사력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의 세력분포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 아랍의 통합기운은 지난 2월의 이락의 쿠테타에 이어 3월의 시리아의 쿠테타가 성공하여 명주도 세력인 바스당(아랍 부흥 사회당)이 집권함으로써 갑자기 높아졌다. 시리아와 이락의 이번 혁명이 가지는 최대의 의의는 아랍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랍 통일과 사회주의를 모토로 하는 바스당이 집권했다는 점이다.

바스당은 1940년에 창립된 속 아랍 주의의 혁신 정당으로 아랍 통일 사회주의, 자유를 그의 강령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바스당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낫셀주의와 어떻게 대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낫셀도 바스당과 같이 아랍 통일과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낫셀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통일을 생각했고 따라서 바스당을 포함한 모든 좌익당을 탄압해 왔다. 한편 바스당은 인민 대중의 위에선 아랍통일과 사회주의를 요구해 왔었다.

따라서 낫셀주의와 바스당이 지금까지 대립 관계에 있었던 원인도 바로 이 점에 있었다.

그러나 아랍 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제휴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양보의 한 예로 낫셀의 정책전환을 들 수 있다. 낫셀 대통령은 작년 5월에 국민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1) 대통령을 종신제로 하지 않고 (2) 집단 지도제를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낫셀이 그동안 아랍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던 것은 그의 독재제 때문이었다. 애급과의 합방을 열망했던 시리아의 바스당이 도중에 낫셀과 헤어진 원인도 실은 이 독재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바스당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도 낫셀은 스스로 대통령의 종신제를 부정하고 집단 지도제를 내걸었던 것이다.

이번 카이로의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원수를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할 것이냐 대통령 회의제로 할 것이냐, 또 중앙정부에 보내는 각 지구의 대표의 비례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중앙의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즉 이는 낫셀 대통령의 독제와 권력의 비대를 극력 경계하는 바스당이 끝내 집단 지도제를 가지고 낫셀의 일인 독재를 방지해야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 회담의 초점은 형식인 연방의 결정보다도 바스당과 낫셀 정부 간의 불신과 경계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겉으로 연방이 구성되어도 그것이 제구실을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파란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스당의 지도자인 시리아의 앞프락 씨는 낫셀의 독재에는 반대이지만 애급을 빼놓은 아랍 통일은 있을 수 없고 또 낫셀 개인 때문에 아랍 연합과 대립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아랍 통일이란 대전제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낫셀과의 과거의 불화에서 온 쓴 경험에서 한때 낫셀을 지도자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그 협력자로서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낫셀로서는 아랍 통일의 목적은 물론 찬성이지만 혁명 10년 후 아직도 7할에 가까운 문맹, 과잉인구, 빈약한 국내자원으로 아스완·땜 건설, 공업화 계획 등의 지나친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낫셀은 아랍 세계의 지도자로서 어디까지나 아랍 통일 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동안 군대를 배경으로 삼고 수년간 강력한 정치기반을 확립해온 그로서 이제 다수 정당제나 의회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어 바스당의 활동에 역시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스에즈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다가 이락과 시리아가 그에게 등을 대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아 튜니시아

까지 끌어넣어 강력한 반 낫셀 진영이 형성되어 고립 상태에 빠졌던 낫셀이 작년에 예멘의 혁명을 계기로 해서 알제리아의 독립, 그리고 지난 1월의 이락 혁명과 3월의 시리아 혁명 등이 네 개의 신정권이 다 같이 아랍 통일과 사회주의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낫셀주의와 호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낫셀은 다시 한번 그의 위신과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랍과 동서관계

수년 전만 해도 동서의 냉전은 군사기지의 획득 경쟁이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핵무기의 발달로 이와 같은 경쟁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냉전은 경제 원조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띄우게 되었다. 결국 그 목적은 우리 편으로는 못 만들망정 최소한 적으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수년 전 붉은 백만장자라고 불리우던 아젬이 시리아의 실권을 쥐고 있었을 때 시리아는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짙었다. 그러자 그가 작년에 시리아 수상이 됐을 때 일반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경제 원조는 동에서 그리고 장기 차관은 서에서 하는 식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낫셀의 아랍 연합도 마찬가지다. 무기와 댐은 동으로부터, 돈과 식량은 서로부터 하는 식이다. 낫셀은 면과 소련의 무기를 교환하고 또 아스완·땜의 건설도 소련에게 시키고 있다. 그런데 애급의 면(綿)은 그 전엔 외화획득의 7할을 차지했었는데 이것이 소련의 무기로 바뀌니 외화가 말라버린다. 그러니 소맥을 사올 돈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잉여 농산물과 달러를 낫셀에게 주고 있다.

식례는 무기보다 앞선다는 현실감에서 미국을 소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고 있는 셈인데 아랍 연합에는 낫셀 이외에 국민을 이끌고 갈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를 지원해서 되도록 자기 쪽으로 끌어올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련은 소련 사람의 손으로 20세기의 피라밑(아스완·땜)을 건설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다. 그 밖에 서방측에서는 미, 영, 캐나다, 이탈리아 , 일의 다섯 나라를 하나의 원조단체로 하여 세계은행에서 5억 달러의 차관을 주고 미국은 따로 2천만 달러의 차관협정을 낫셀과 맺었다. 한편 소련은 헬완의 철강공장, 약품, 항생물질 생산 공장, 콜탈 화학 공장 등의 건설에 관한 경제 기술 협력의 협정에 조인하고 두 척의 순양함을 낫셀에 주기로 하였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아랍 연합의 해군은 동부지 중해 중동에서 최강의 것이 된다.

소련은 시리아에 철도건설의 원조를 제의하였는데 미국은 시리아의 정정의 불안으로 적극적인 원조는 피해 왔으며 그 대신 낫셀의 아랍 연합과의 통합을 은근히 밀어왔기 때문에 이번 세 나라의 통합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점이 된다. 미국으로서는 시리아를 낫셀의 손에 집어넣는 것이 시리아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락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1959년 이래 1억 루불을 넘고 그 중엔 이라 최초의 제철공장, 질소 비료 공장, 유리 공장 등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락은 캇셈 정권 때 중립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바그다드 조약기구탈퇴 이래 점차 서방측에서 떨어져 나가 공산권에 접근해 갔었다. 이번에 이락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캇셈 정권의 지나친 공산권 접근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조약기구(CENTO)의 가맹국으로 소련과 인접한 터키와 이란은 늘 소련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란은 아미니 수상의 정권이 미국의 경제 원조가 적다고 총사직하자 한때 소련의 선전 공세가 치열했는데 국민들은 이에 반감을 표시했다. 터키는 원래 소련과는 오랜 숙적 간이기 때문에 소련이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소용이 없다. 터키는 그의 전통적인 반소 감정으로 인해 자연 중동에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반공 국가인 것이다.

소련의 남하 정책은 모스코바 공국 이래의 전통적 정책으로 지난 1세기 동안에 걸친 집요한 남하 공작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소련의 중동진출도 그들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1차 대전 직후의 대 이슬람교도 정책의 참패를 재연 안하기 위해 2차 대전 후는 비록 우회작전을 쓰는 한이 있어도 각국의 민족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중동의 적화를 마치 익은 감 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식으로 꾸준한 장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제국의 왕족, 자본가 정부 요인들과 친교, 매수 등을 피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식인 근로 대중 그 밖의 불평분자들을 선동, 포섭해서 민족주의라는 울안에 집결시키고 명목상으론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의 이름을 빌려 반서방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결국, 중동에 민족주의가 굳어지고 반제, 반식민지주의가 강해지면 결과적으로 자유 진영이 약화되고 공산측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심산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산국가들의 선전공작이 적극화되어 방송 영화, 출판물 그리고 사절단의 왕래가 격증하여 그들의 문화 선전은 경제 원조와 함께 중동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중동에 대해 과거엔 영국과 같은 큰 비중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분극화하는 마당에서 미국의 세계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의 위치는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는 반서구적식민지주의와 결부되기 때문에 미국은 늘 곤란한 입장에 빠지기가 쉽다.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에 있어 미국은 영국이나 불란서보다 경험이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도 그 결함과 모순을 들어낼 때가 많다. 결국 도와주고 욕을 먹는 격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근년에 와서는 미국도 저개발후진국 원조정책의 재검토를 하게 되어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경제 원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

늘 불안정한 중동의 앞으로의 향배에 대해 일반은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는 중동제국은 오늘날 소련과 동구 공산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아들이고 무역 관계를 촉진시키고 있고 이는 또 서구 제국에 대한 하나의 대항적인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일관해서 어떤 진영에는 속하지 않는 적극적인 중립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로는 1956년 10월의 헝가리

◇장수의 비결

버나드·쇼는 어느 날 신문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하필이면 왜 아이오트·센트·로렌스에 거주를 정했습니까? 연만하셔서.』

쇼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몇 해 전에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자니까 한 묘지에 가게 되었는데 묘석에서 다음과 같은 명을 봤습니다. 「메리써우스. 1815년생. 1895년 몰. 그 여자의 일생은 너무나 짧았다.」라고. 나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0년을 살고도 짧았다고 한다면 이 마을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었지요.』

동란이 영, 불, 미 삼국의 요구로 유엔에서 심의되어 소군의 철수와 내정간섭의 중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을 때에는 애급, 이락, 요르단,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이 기권했다는 사실과 또 가까운 예로는 작년에 알제리아가 독립한 후 공산당을 불법화 시켰는데 그것은 알제아리가 독립전쟁을 할 때 중공을 비롯해 공산 진영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공산주의자를 허용할 수 없다는 아랍 민족주의와 그들의 중립주의에서 나온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 ④

공산주의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전략과 이에 대비하는 자유 진영의 노력-

양홍모
〈조선일보사·논설위원〉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

아프리카 대륙을 암흑의 대륙이라고도 하고 검은 대륙이라고도 한다.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이 원시 상태의 그대로여서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는 데서 나왔을 것이며 검은 대륙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곳 대부분의 주민이 흑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별명도 한때의 옛말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는 변모하고 있다. 아프리카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분할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때 포르투갈인의 아프리카 항로발견 때부터이다. 그 이래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를 분할 영유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립국이 두 나라밖에 없었다. 즉 에티오피아와 리베리아 뿐이었다. 그때까지의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점령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불란서= 33%
영 국= 18%
독일= 8%
벨지음= 8%
포르투갈= 7%

터키= 4%
스페인= 1%
독립 및 자치=20% 미만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독립하였다. 거의 모든 나라가 새로운 문명을 도입하면서 개명하고 있다. 암흑의 아프리카 대륙은 희망의 대륙으로 발전하고 있다.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멸시조로 보게끔 되지는 않게 되었다. 유엔에서는 아프리카 세력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총회라는 말까지 있다. 그들의 발언이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끔 되었다. 검은 대륙은 무시못할 대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아세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다. 그의 면적은 11,684,000 평방 마일, 그의 인구는 총 1억을 헤아린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지는 자세치 않다. 일설에는 120종이라고 하며 일설에는 150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종족이 있지만 5대 종족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1930년 C·G·셀리그맨(C.G. Seligman) 박사가 아프리카 민족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① 밴투(Bantu) 족 (흑인과 햄족의 혼혈) ② 흑인 ③ 햄(Hamitic) ④ 부슈맨(Bushmen) 족 ⑤ 홋튼톳(Hottentot)족이라고 한다. 그때 추산에 의하면 밴트족은 약 6천만, 흑인은 약 4천 5백 만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아프리카 민족의 95%가 밴트족에 속한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많은 자원이 묻혀 있다. 주석·금·철·아연·동·다이아몬드·우라늄·보키사트· 석유 등이 많이 나온다. 대륙의 80%가 열대여서 사람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자원의 보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전기한 바와 같이 두 나라 밖에 독립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독립국이 4개국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려 28개국이 독립하였다. 특히 1960년은 독립된 나라가 가장 많다.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된 날짜를 연대에 따라서 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제국의 독립일자

국명	독립일자
① 에티오피아	기원전 200년대
② 리베리아	1847년 7월 26일
③ 이집트	1922년 2월 28일
④ 남아연방	1910년 5월 31일
⑤ 리비아	1951년 12월 24일
⑥ 스단	1956년 1월 1일

⑦튜니시아 1956년 3월 20일
⑧모로코 1956년 3월 2일
⑨가나 1957년 3월 6일
⑩기니아 1958년 10월 2일
⑪카메룬 1960년 1월 1일
⑫마리 1960년 6월 20일
⑬마라가시 1960년 6월 26일
⑭소마리아 1960년 6월 26일
⑮토고 1960년 4월 27일
⑯콩고(레오폴드빌) 1960년 6월 30일
⑰다호메 1960년 8월 1일
⑱챠드 1960년 8월 11일
⑲마우레타니아 1960년 11월 28일
⑳나이제리아 1960년 10월 1일
㉑어퍼볼타 1960년 8월 5일
㉒니제르 1960년 8월 2일
㉓아이보리·코스트 1960년 8월 6일
㉔중앙 아프리카 1960년 8월 13일
㉕콩고 부라자빌 1960년 8월 15일
㉖가본 1960년 8월 27일
㉗탕가니카 1961년 12월 9일
㉘세메라·레오네 1961년 4월 27일
㉙루안다 1962년 7월 1일
㉚부론디 1962년 7월 1일
㉛우간다 1962년 10월 9일
㉜알제리아 1962년 7월 3일

이들 나라는 다 같이 유엔에 가입되었다. 유엔 1백 10개국 중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는 32개국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와 유엔에서의 비중은 큰 것이다. 또한 참고삼아 아프리카의 나라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국명	해외공관 설치합의 일자
아이보리코스트	1961. 7. 19
통일아랍공화국	1961. 12. 10
마라가시	1962. 6. 25
시에라레오네	1962. 6. 25
콩고(부라자빌)	1962. 6. 25
어퍼볼타	1962. 6. 25
모로코	1962. 9. 6
가본	1962. 10.1
세네갈	1962. 12. 13
콩고(레오폴드빌)	1963. 4. 10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전략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직까지 적화된 나라가 없다. 모두 32개국의 독립국이 있지만 그들은 다 같이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적화 전략은 스탈린 시대와 후르시초프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스탈린 시대에는 주로 동구라파에 있는 소련 인접국을 적화하였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련은 그때 동구라파 팔개국 (유고·체코·알바니아·동독·루마니아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를 적화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적화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수많은 나라가 독립하였지만 스탈린 시대에는 동구라파의 적화에 치중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신생독립국에 대한 공세를 미처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자 침략의 방향을 신생 독립국에로 돌렸다. 그리고 중공이 본토를 적화한 것은 1950년이었는데 중공이 대외적인 침략 공세를 취한 것은 1950년의 한국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밖에 지역에는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1954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이나 중공은 군사 또는 경제원조 그리고 선전을 통해서 신생 독립국에 접근하는 한편 그들과 서방측과의 분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서방측을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하여 신생 독립국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이러한 공세와 함께 평화공존정책을 내 세웠고 중공은 평화 5원칙 (① 주권 평등 ② 상호 불침략 ③ 내정불간섭 ④ 평등호혜 ⑤ 평화공존)을 내세웠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는 1956년 스에즈 동란 때부터 활발해졌다. 스에즈 동란은 지금의 통일아랍 공화국 대 영국·불란서·이스라엘의 싸움이었는데 그때 중공과 소련은 이집트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소련과 중공은 이른바 아·아 인민단결회의 또는 반둥 회의 등 대체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으로 되어있는 이들 기구를 통하여 그들의 선전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민족 해방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아프리카 침투는 소련과 중 공의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소련의 전략전술부터 보기로 한다.

소련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침공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그 주요한 전략은 공산당의 조직, 군사 및 경제원조의 제공 유학생의 교육을 하고 있다. 공작원을 파견하여 새로 독립된 나라의 공산화를 꾀하는가 하면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서방측에 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도록 한다.

1960년 당시 콩고(레오폴드빌)에는 공산국가의 기술 요원이 125명 에티오피아에는 55명 가나에는 5명 기니아에 1백 65명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산당이 허용되고 있는 나라는 마라가시·튜니시아·모록코·스단·남아프리카이다.

그 밖에 소련 또는 공산위성국에 아프리카 학생들을 유학시켜 그들이 돌아간 후에는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세뇌 교육을 실시한다.

1956년에서 1960년까지 공산권에의 유학생은 에티오피아가 15명 가나가 65명, 기니아가 1백 80명, 스단이 1백 90명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모로코 수도 (라바트) 부근에는 중공 공작원 2백여 명이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 있었으며 그들은 각기 침투 공작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바이지만 소련 이외의 공산위성국인 불가리아에 아프리카 출신 약 5백여 명이 유학하고 있었으나 불가리아의 탄압에 반대하여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아에는 주로 케냐·에티오피아·소마리아·가나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었다.

또한 소련에는 아프리카 학생들을 이른바 루뭄바 대학까지 창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별대우에 불만이 크다고 한다.

소련의 군사 또는 경제원조를 받는 나라는 통일아랍 공화국·모로코·기니야·마리·스단·콩고·에티오피아·가나·소마리아 등이다.

통일아랍 공화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보면 1955년 이래 약 2억 불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1963년 3월 29일 자 타임 보도). 소련은 주로 아스완 댐 공사비와 무기를 원조하였다. 육·해·공군의 장비는 소련 또는 체코제이다.

이 밖에 소련은 1954년에서 1960년 10월까지 에티오피아에 1억 1천 4백만 불·가나에 5천만 불·기니아에는 6천 7백만 불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한편 소련은 1960년 7월 콩고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그 혼란을 틈을 타서 콩고의 루뭄바 정부를 지지하여 적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다음 중공의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소련의 아프리카 공세가 치열해짐과 때를 같이 해서 중공도 그 침투 공세를 취하였다.

중공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들과 공식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때는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 회의 때이다. 그때 중공의 주은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만났다.

그 이래 중공은 1958년 스단의 하루톰에 처음으로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기니아의 코나크리, 1960년에는 가나의 앙카라, 1961년에는 마리의 바마코와 소마리아의 모가디시오 그리고 1961년에는 탕가니카의 다르·에스·살람에 공관을 설치하였다. 중공은 물질적인 원조보다는 외교사절의 초청 또는 교환, 기술자의 파견 또는 학생의 초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둥 회의에 뒤이어 1958년 카이로에서 처음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를 지배하였다. 특히 1960년 코나크리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를 계기로 북평에다 항구적인 위원회를 두는 동시에 중공 아프리카 우호 협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을 지도하였다. 또한 중공의 아프리카에 대한 선전은 신화사 통신과 북평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61년 당시 중공은 주당 35시간 내지 63시간의 대 아프리카 방송을 하였다. 이때 소련은 주당 41시간 내지 73시간의 방송을 하였고 동구 공산 위성국의 대 아프리카 방송은 35 내지 63시간의 방송을 하였다.

중공의 아프리카에 대한 선전은 5개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인민의 피탄압상황·반식민투쟁·북평의 아프리카 인민지지·중공 자신의 선전·우호 관계 등의 선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공·소간에 이론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공세에까지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자유 진영의 노력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은 한때 다 같이 서방 열강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기 때문에 자유 진영과 그 인연이 깊다.

한때 관계하던 서방 열강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대체로 독립과 함께 연고국의 원조가 있었다. 이를테면, 알제리아가 불란서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불란서로부터 계속 원조를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미국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 진영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해당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원조를 자유 진영이 게을리 할 때 그들이 공산 진영의 공세에 손쉽게 넘어갈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자유 진영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미국원조

(1945년 7월 1일부터 1962년 6월 30일까지)

국명	원조액(경제 및 군사)
알제리아	1천 5백만 불
통일 아랍 공화국	6억 2천 8백 60만 불
카메룬	1천 5백 60만 불
중앙아프리카	20만 불
챠드	40만 불
콩고(부라자빌)	1백 30만 불
콩고(레오폴드빌)	9천 4백 60만 불
다호메이	5백 60만 불
에티오피아	1억 8천 5백 30만 불
가본	50만 불
가나	1억 5천 6백 50만 불
기니아	1천 4백 30만 불
아이보리 · 코스트	4백 60만 불
케냐	1천 8백 50만
리베리아	1억 3천 1백 50만 불
리비아	1억 9천 1백 70만 불
마라가시	1백 30만 불
마리	6백 수0만 불
마우레타니아	1백 60만 불
모로코	3억 5천 2백만 불
그니제르	3백 20만 불
나이지리아	4천 3백 60만 불
로데시아 · 니아사랜드	3천 6백 10만 불
루안다 · 우론디	6백 10만 불
세네갈	4백 60만 불
시에라 · 레오네	3백 50만 불
소마리	2천 7백 40만 불
스단	6천 5백만 불
탕가니카	1천 7백 60만 불
토고	5백 80만 불
튜니시아	2억 9천 3백 30만 불
우간다	5백 20만 불
어퍼볼타	3백 20만 불
잔지바르	10만 불
불란서영	6백만 불
포르투갈영	1천 1백만 불
영국영	90만 불
기타지역	4천 5백 40만 불

미국 이외에 구라파 6개국 공동시장도 적극적으로 원조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약 7억3천만 불을 원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 진영의 아프리카에 대한 공산주의 침투를 막으려는 노력은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콩고 사태에서 역력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조치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즉 콩고의 동란이 발생하자 소련은 루뭄바 정부를 지원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은 유엔이 그의 평화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콩고 동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군을 파견하여 콩고의 통일에 성공하였다.

콩고 문제에서는 서방측에서도 그 수습의 견해가 달랐지만 공산주의 침투를 저지시킴에 있어서는 단결하여 성공시켰다.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산 책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 진영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각의자

강철왕 카네기에게 누가 물었다.

『노동과 자본과 그리고 지력의 3개 요소 중 당신은 어느 것이 공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카네기는 도리어 반문했다.

『그렇다면 삼각의자의 어느 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알고자 하는 답이 되겠지요.』

◇한번과 천번

희곡가 제임스·바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스미스 대학에서 천여 명의 여학생들에게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뒤 그의 친구가 소감을 물었다.

『응. 정직하게 말해서 천 명에게 한번 말하기보담 한 사람의 여학생에게 천 번 말하고 싶네.』

라고.

중공의 악순환

한 나라의 정부가 그 통치 아래 있는 국민에 대하여 어느 한도까지 안심하고 내핍생활을 강요할 수 있을 런지? 또 그 한도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형제 평론가로서 유명한 미국의 오소프 형제의 형쪽인 죠셉 오소프 씨는 작년 여름 중국 본토로 부터 홍콩으로 대량 탈출해 나온 피난민으로부터 얻은 귀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즉 여하히 중앙집권화 된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또 여하히 참을성이 많은 국민일지라도 어떤 일정의 한도를 넘는 곤란과 내핍을 강요한다면 안심 못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차이나 쿼터리에 게재된 그의 소론을 이에 소개한다.

△ 한계점에 다다른 내핍

중공의 현재의 극단한 내핍 생활은 거의 극한점에 가까워 가고 있다. 대실패로 돌아간 대약진과 인민공사가 시작된 이래 경제 상태가 점차 하강하는 악순환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환은 3년에 걸친 농업의 부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중공의 악순환 상태는 삼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2기는 인민공사가 설치시기이다.

공업 건설 계획이 과도로 체중된 것을 깨닫지 못한 것도 이 시기이며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의 설치로부터 3개월째에 벌써 공동 식당의 식탁이 빈궁해지고 있다.

1959년 여름이 되어서는 사태는 급속 악화해서 견디다 못한 팽덕회 원수가 여산 회의에서 인민공사와 대약진을 방기할 것을 제의했을 정도였던 것이다.

난민은 이미 그 무렵부터 홍콩과 마카오로 탈출하려 했다.

제2기에 들어서서는 농촌을 비참한 상태로 돌입하는 큰 힘이 여타의 전 건설 개발업까지도 끄집어 넣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었다.

중공의 지도자는 끝까지 3면 홍기 즉 총노선, 인민공사, 대약진의 무극을 높이 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역전하지 않으면 안 될 파국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제2기의 말기가 되면서 자본 건설은 중지되고 공업 분야에서의 전진은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1년에서 1962년의 겨울까지 중공의 공업은 전 능력의 30%밖에 가동하지 못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더욱 놀랄만한 역전이 연출되었다.

인민 공사는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악평이 자자한 공동 식당은 계속 폐쇄되었으며 농민에게는 개인 농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농업의 부진은 1959년에 시작해서

60년 61년으로 계속되었다. 1962년의 중공민중의 영양 수준은 최저선을 더욱 하회하는 점까지 저하되고 있었다.

△혼란해진 행정기구

악순환은 현재 제3기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작년 5월경 홍콩으로 난민이 몰려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럴싸한 해석이 있었다.

예를 들면 홍콩 정청을 괴롭히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러한 것이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유치해서 의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해석의 열쇠는 그것보다는 난민들이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고 돌연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온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기구의 혼란과 국민 대중의 사기 저상(沮喪)의 초기의 조후를 역연히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별로 세계의 관심을 끌지 않는 중대시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주은래 수상이 전 국민 대표 대회에서 행한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3할을 농촌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선언이다.

사실 이로 말미암아 광주에 있어서만도 2백 만의 인구 중 실로 8십만이나 되는 도시 주민이 쫓겨나 1년 이상이나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는 광동성의 농촌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욱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은래의 선언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3천만에 가까운 민중이 농촌에의 이주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홍콩의 국경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들 불행한 사람들은 농촌으로 간다하더라도 이미 들은 심한 기계 속에서 덜컥덜컥하고 이가 맞지 않는 부분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악순환의 제3기는 극적인 성격을 띄고 폭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의 인식 부족

모택동은 농촌을 이해하는 지도자라고 지칭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에 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1929년에 스탈린이 취한 정책과 1958년에 모택동이 결정한 정책은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1) 중공의 대중은 봉건적 강제 노동에는 몸이 배어 있지만 소련의 민중은 이러한 노동에 몸이 관숙되어 있지 않았다. 스탈린에 비하여 모택동 쪽이 유리한 것은 꼭 이 한점이다.

(2) 인구 일인당 미개발 자원의 비율은 중공 쪽이 훨씬 못하고 인구밀도에서 오는 압박도 중공편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3) 소련의 농업이 조방적인 것에 비하여 중공의 농업은 미작을 주로 하는 점에서 집약적이다. 집약 농업은 집단 경영을 거의 불가능케 한다는 것을 모택동은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강압 정책은 그대로 처음부터 파국적인 결말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모택동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파국적이었던 것이다.

중공의 고난은 거의 한도에 가까웠다. 이러한 중공의 악순환이 상승 순환으로 전환하는 가의 여하(如何)는 금년의 농작물의 길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설 찬 역)

전력 증강의 길

=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자=

김종렬
〈공군대령 · 공군본부정보국장〉

전력 증강의 길을 고찰하는 데에는 전력의 2대 구성 요소인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다 같이 입체적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고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한된 지면 관계로 부제에서 내놓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공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요소인 지휘 참모로부터 2등병 훈련병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마음가짐 여하가 공군력 증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최후의 승리와 패망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평소에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하여 하늘색 제복을 입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 밑에서 일상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인가를 여러 공군 장병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하는 것을 듣고 또한 실제로 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개성이 각각 다르듯이 그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천성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를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사병을 막론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교이건 하사관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등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엄정한 시험을 거쳐 임무 수행을 위한 철저한 기본 군사 교육과 각자의 기능에 따라 특수 교육을 받은 이른바 선택된 우수한 군인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무능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는 틀림없이 그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또는 다른 부정적 이유가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일을 해서 못하는 것(Can not)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또는 성의 부족으로 안 하는 것 (Do Not)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다 같이 각자 자기가 행한 일에 반성해 봅시다. 오늘 내가 정말 맡은바 직무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자문자답해 봅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까? 또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타인으로부터 무능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양심에 꺼리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정상인 양 태연자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가기 싫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학교에 와서 점심시간이나 기다리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억지로 근무처에 나와서 우물쭈물 제대할 날 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우수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개인 중에는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남의 눈을 하면서까지 결사적으로 행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마지못해서 하거나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어찌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3년이나 4년 동안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달력의 날짜만을 지우면서 세월아 흘러라! 나는 3-4년 동안만 적당히 큰 사고 없이 지내면 된다라는 심산으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 공군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공군과 자기와의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일보다 공군의 일을 더 적게 생각하고 더 적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초 과학적 관리법(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의 창시자인 『테일러(F. W. Tayler)는 작업에 있어서 노동자가 보통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발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측에 본격적인 정신 혁명(Mental Revolution)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공군에 있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을까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 받도록 바라고 있는데 어째서 능력 평가의 제일 요소인 능력 발휘를 게을리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능력 발휘에 다분히 감정적 요소가 좌우하게 되며 군을 지휘 통솔하는 윗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지휘를 받는 아랫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는 우수한데 지휘관의 통솔 방법이 나쁜 경우, 자기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므로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나빠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휘관이나 다른 사람의 위에서 일을 시키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인력은 타 자원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른 자원과 달라서 저장해 둘 수도 없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 중에서 가장 고가하고 유지 곤란한 것인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정된 인원을 여하히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작업 효율을 최대한으로 검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임무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의 책임자는 부하로 하여금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휘자로서의 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휘 관리자는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각자의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기본자세이겠습니다. 둘째로 부하의 능력을 평가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정하여 줌으로써 각자로 하여금 희망에 찬 앞날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상관은 항상 부하를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여 부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근본정신을 되살려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관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부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하된 지위에 있는 대부분의 하급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공군에는 하급 직위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우수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토방위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강제로 입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유야 여하튼 각자의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하여 지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보고한 예인데 삼년동안 공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한 모 예비역 중위 한 분이 있는데 그는 신임 소위로 실무 부대에 부임 받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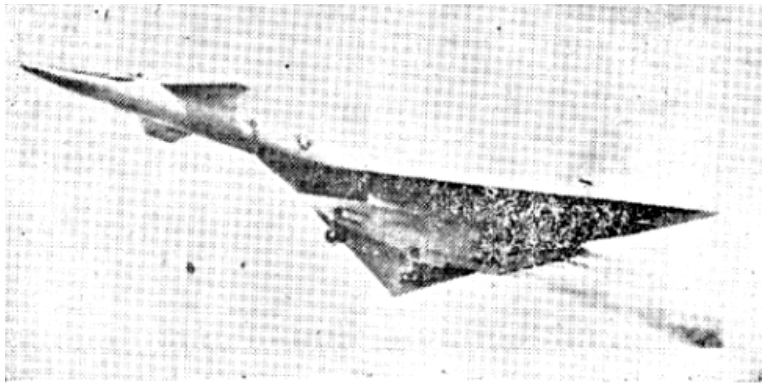
외국어는 전혀 못한다고 자기 능력을 숨기고 제대 하였읍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거의 모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영어 불어에 능통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영어를 잘 한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으나 만일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자기의 특기 때문에 자기 임무 이외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자기가 군에 복무한 것의 2~3 갑절 더 바랐었을 것이며 그만큼 없는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것이 아니냐? 고 마치 자기만이 가장 처세를 잘하고 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군대의 일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를 보다 더 많이 향유하였을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3~4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군에 복무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으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3~4년이란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온 이상 공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없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을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군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어찌 자기의 능력 발휘에 인색함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군이 잘 되어야만 국군이 잘 될 수 있고 국군이 잘 되어야만 이 나라 창공에 태극기가 계속해서 휘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잘 못 되었을 때 우리 하늘에 태극기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며 태극기를 볼 수 없었던 6·25 당시의 3개월간의 공산치하를 다시 회고해 보십시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제대한 후 내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있고, 내가 있을 수 있으며 태극기가 휘날리는 동안이 아니면 자유로운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하여 내 자신이 공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느껴야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베풀고 있는 물질적 대우에 비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해서 공군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미급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애정은 물질로만 교출할 수 없으면 마음과 마음이 협동하지 않고서는 아니 될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현재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의무 때문인 단순한 군복무를 위해서이지 충성심에서 군에 복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 후 사회에서 자기가 갈 목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열성을 내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기껏 일해야 나의 목표하는 바와 관련이 없고 3~4년이 지나면 나는 군복을 벗고 나의 영원한 직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현하 긴박한 국내외 정세와 북괴 재침에 대비하여 일일 공군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이 시기에 어찌 3~4년이라는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적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공군에 그 무엇을 남겨 놓고 나가겠다는 굳은 결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까지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이분의 일 내지 삼분의 일 정도밖에 발휘하지 않았었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100% 발휘하여 병력의 증가 없이 현재 공군 전력의 2배 내지 3배를 발휘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우수하다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면 그 장비는 폐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 전력 증강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난 사나이

명우 에드먼드·킨(1787~1833)이 언젠가 다브린에 갔을 때 어느 레스트란의 점심 맛이 매우 좋았다.
『영국의 그 누구도 오늘 나만큼 만족한 식사를 했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 다부린 시장을 제외하고는~』
하고 레스트란의 주인이 옆에 섰다가 말했다.
『그건 안될 소리다. 이제 내가 말한 것엔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하고 킨이 주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님, 시장님만은 언제나 예외로 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슨 일에도 제일입니다.』
두 사람은 입씨름을 벌였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싸움이 벌어지고 끝내는 법정 문제화하고 말았다. 그런데 언제나 시장만은 예외로 한다는 다브린 시민의 습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은킨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킨은 벌금을 지불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 주인처럼 못난 사내는 세계에서 없다고 본다. 그야 시장을 예외로 하고 말입니다.』



RS-70

항공기와 미사일의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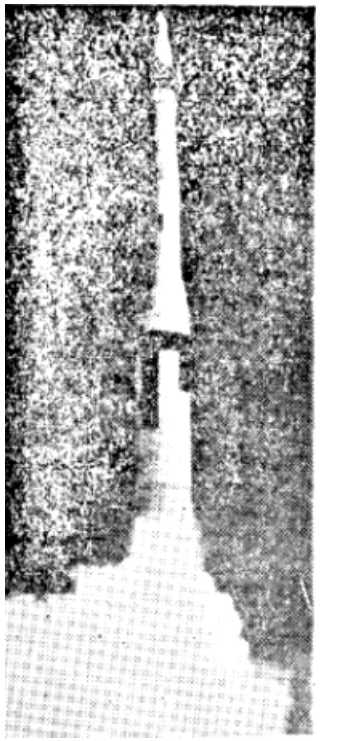
박철
<공군소위>

화약의 발명은 본격적으로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으며, 라이트 형제의 공헌으로 항공 시대가 왔고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선회함으로써 우주 시대의 제일보를 내디뎠다. 따라서 공군이 담당하여야 하였던 하늘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 체제도 변화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의 현황을 살펴봄으로 장래를 관측하여 보기로 한다. 범위를 좁히어 미 공군의 경우를 주로 생각하여 본다.

먼저 F의 두 문자를 가진 초음속기를 살펴보면 F-100A, F-102, F-104, F-105, F-106이 주로 활약하고 있는데 여기에 F-4C를 첨가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해군용 함재기로 설계되어 F-4B(구명칭 F4H-1)란 명칭을 갖고 취역중인데, 성능과 용도성이 우수함으로 F-110A란 명칭으로 공군제식기로 채택한 것이다. 미군용기 명칭 변경에 따라서 F-4C로 개칭되어 현재 실험 비행중이며 280기가 금년 중으로 완성되리라 한다. 속력은 마하 2·5 지상에서 3만 미터까지

상승하는 데 불과 6분 11초밖에 안 걸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행동반경이 천마일 이상이다. 현용 전폭기로서 가장 우수하다 하겠다. 앞으로 2년 반 후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는 전폭기로서 F-111 A(TEX)가 있다. 1962년 11월 24일 미 공군은 콘베어에 대하여 그의 설계를 채용키로 공표하였다. 32톤의 무게를 갖고 3명을 태우고 마하 2·5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이착륙 시는 아주 낮은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뒤제침□을 변경시킬 수 있어 직선형 날개로서 실속에 들지 않고 저속으로 비행하여 이착륙 거리를 감소시키고 75도로 뒤제침을 하여 앞 날개를 조리 날개에 붙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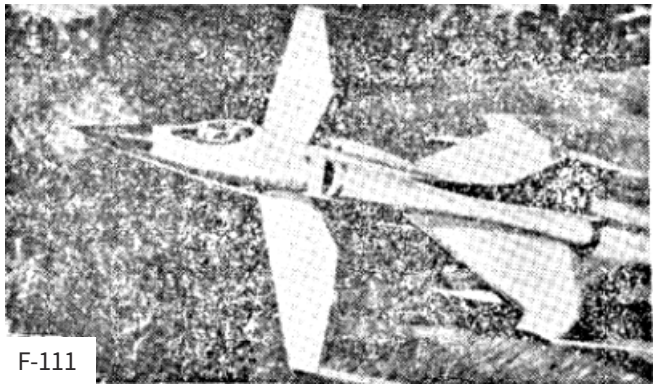
그리하여 삼각형 날개로써 적은 항력을 갖고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다. 동력 장치로는 JTF-IOA20 터보·팬(Turbo-Fan)을 두 개 장착하며, 동체 가운데 핵무기를 적재하여 준다. 항속 거리가 대단히 긴 것이 특징이다.



SM-80

폭격기로는 우선 B-52와 B-58을 손꼽을 수 있는데 전자는 아음속인 시속 600마일 정도로 G형이 7천 5백 마일, H형이 9천 마일을 비행하며, G형은 ASM하운드·독(Honud Dog)을 발사할 수 있고 H형은 개발 중지된 바 있는 스카이·볼트(Sky bolt)를 시험했다. 후자는 삼각형 날개의 콘베어 제작기로서 B-52와 더불어 SAC의 주력기이다. 명년 10월로서 생산 중지되었다. 이 B-58은 속력이 음속의 2배로 실용 상승 한계가 6만 피트 정도이다. 항공 거리는 B—52보다 적다. 연료의 재공급을 받으면서 대륙간을 비행한다. 영국은 V형의 폭격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련도 장거리 초음속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음에 모스코 에어·쇼에서 밝혀졌다. 소련이 ICBM에 주력을 기울이는 반면 항공기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SAC의 수뇌부는 B-52가 속력이 느리고, B58은 소형으로 장거리 비행이 곤란하여 이들의 후계기로서 11톤의 짐을 싣고 9천마일 가량 재급유를 받지 않고 순항 속력 마하 3으로 비행 가능한 폭격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계획된 것이 B-70이다. 1957년 미공군당국은



F-111

노오스 아메리칸의 설계를 채택하였으나 1959년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시작기 한 대만을 제외하고 생산 계획이 취소되었고, 생산을 위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었으나, 1961년 3월 케네디 정부에서 미사일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폭격기의 불필요성과 경제적 문제로 생산 계획을 각하시켰다. 이에 적영공을 침입하기 위한 B-70을 RS-70으로 변경시켜 기동성을 갖고 위치가 일정치 않은 목표물을 찾아내어 격파시키는 임무를 갖게 하였다.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계획에 대하여 방생에서 1억 7천 1백만 불을 신청하였는데도 국회에서 4억 9천 1백만 방을 승인하여 3대를 시작 중에 있었다. 금년 3월에 최초의 시작기가 탄생하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한다. ICBM은 고정한 목표물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대 미사일 미사일을 만나서 요격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RS-70은 적의 레이다를 계속적으로 교란시키면서 요격을 당하기 전에 적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복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이라 하겠다. 이 RS-70 Valkyrie는 B—52보다 7만 파운드나 무거운 55만 파운드의 무게를 갖고 6개의 J-93 터보 제트엔진(General Electric 제 작 추력이 1기당 3만 3천 파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순항 속력이 마하 3, 실용 상승한계가 7만 피트 이상, 무장은 자유 낙하 핵무기와 더불어 공대지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 승무원은 정조종사, 부조종사, 항법 폭격수, 전자 장치 조작수 등 4명으로 초음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캡슐식 사출 공석에 앉게 된다. 고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고 압축양력(Compressive Lift) 이론을 적용한 고속에서 아래로 구부려 내리는 날개 끝을 가짐으로 항속 거리가 증가되었다. 세로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F-104의 것과 같은 앞날개가 붙어있으며 거대한 삼각형의 날개 안에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다. 공기의 마찰에 인한 열에 견디기 위하여 불수강이나 티탄(Titan) 합금을 샌드위치·허니컴 (Sandwitch Honey Comb)의 구조를 사용하고, 특수 공작법으로 그리벨(Rivet)이나 조임 쇠를 쓰지 않고 용접이나 로러

부착을 한다. 이 RS-70은 우선 연구용으로 쓰일 것이며 ICBM과 F-111의 개발 전전됨에 따라서 SST(Super Sonic Transport)의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용으로 그 운명을 마칠는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1950년 한국전에서 실용화된 헬리콥터를 보면 날개 있는 항공기를 능가하여 인기가 있다. 특히 육군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만대 가량 생산되었다하며 앞으로 더욱 생산될 것이다. 이것은 활주로가 필요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공중 정지도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전진 속력이 느린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다. 미 공군에서는 H—19B, H-21, H-43을 주로 쓰고 있다. 특히 H-43은 구조와 화재 진화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성능이 우수하다. A형은 왕복 기관을 쓰고 있으나 B형은 Lycoming T-53L-IA 가스 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가스 터빈은 터보 푸롭(Turbo prop)의 구조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가스의 속력이 거의 없어 추력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가스·터빈을 쓰면 소음이 적어지고 진동이 감소되며 엔진의 무게가 같은 출력을 내는 피스톤 엔진에 비하여 적다 이 H-43B는 두 개의 로터가 엇갈려 돌아가며 2천 파운드의 짐을 싣고 250마일을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나를 수 있다. 서울 상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육군용 경 헬리콥터 UH-1(구명칭HU-1)도 가스·터빈을 쓴 것이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헬리콥터가 가스·터빈을 쓸 것 같다.

각국에서는 V/S TOL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헬리콥터와 유익기의 장점만을 한 것으로 VTOL은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의 약자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며 보통의 유익기와 같은 수평 비행 속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말하며, STOL은 짧은 거리의 활주를 행하는 항공기이다. 방법에는 제트 분사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법, FAN이나 ROTOR가 붙은 날개를 기울여 주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X-19는 1962년 7월 17일 공군에서 커티스·라이트에 대하여 주문한 것으로

회담비 일분 간에 천 후랑

B. 무-강(금융 자본가 1837~1913)은 인터뷰를 몹시 싫어했다. 파리에 체류 중 2분간만 얘기해 달라는 대 신문사의 사장의 끈덕진 성화에 자기의 1분간은 250프랑의 가치가 있으니 500프랑을 지불하겠느냐고 물었다. 사관이 곧 신문 사장은 승낙했다고 전해왔다.

『용건은 몇입니까?』하고 무-강은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먼저 내가 당신에게 지불해야 할 500프랑을 받아주시오. 나는 당신과 만난다는 것을 2천 프랑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의 1분간은 천 프랑입니다. 당신 것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만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신문 사장은 물러 나갔다. 그러자 무-강은 이 저어나리스트를 붙잡고 두 시간 동안이나 시사 문제를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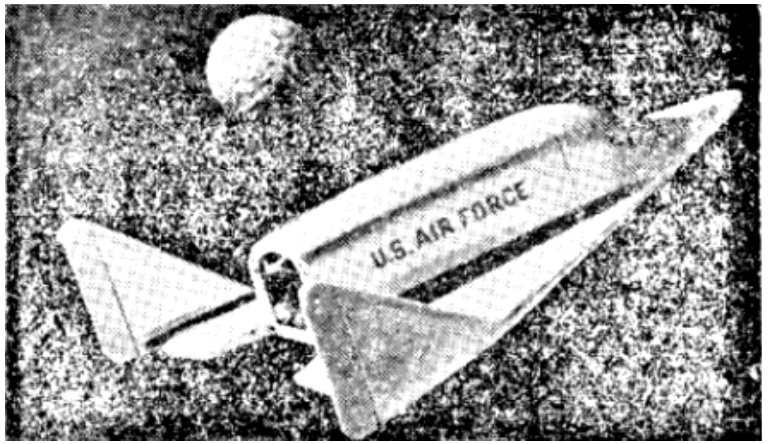
금년 중으로 시작기 2대가 생산되리라 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가스 터빈엔진을 동체 내에 장치하고 같은 크기의 날개 끝에 붙어있는 로터를 돌려준다. 이 로터 축은 날개와 함께 기울여져서 VTOL의 역할을 한다. 속력 범위는 0에서 시속 460마일까지 2명의 승무원에 의하여 2천 파운드의 짐을 싣고 1천마일 이상 비행할 것이다. V/S TOL 수송기로 C-142가 시작 중에 있다.

초대형 수송기로 C-141Starlifter가 록히드 회사에서 몇 개 부분이 완성되어 정적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금년 경 말에 최초 비행하리라는 이 C-141의 이륙 온 무게가 31만 5천 파운드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는 8만 5천 파운드가 되며 항속 거리 7,540마일 순항 속력은 시속 552마일 4개의 터보 팬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의 추력이 2만 2천 파운드나 된다. 1965년부터 MATS에서 주로 쓰일 것이다. 미공군은 보다 큰 중량과 용적을 세계 어느 곳이나 수송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병참용 항공기를 요구하여 XC-4로 임시 지정하고 계획 중에 있다. 민간여객기로서 SST의 제작 문제로 영불간 협의가 있어왔는데 과연 제작이 되어 실용화될지 두고 볼 문제이다. 기술적 문제는 가능하다고 보나 여객기로서 경제적 수지 계산이 맞을 런지는 모르겠다. SST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과학자는 초음속 여행에서의 안정성과 안락한 여행 문제 비용 관계를 이야기하고, 첨부해서 초음속 항공기가 지나가면 충격파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폭음(Sonic Boom)을 듣게 되는데 그 피해 영역은 전 비행경로에 거치게 되므로 이 폭음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도가 높은 비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방사능의 강도가 큰데 그렇다면 아이를 밴 임신부가 방사능의 위험을 무릅쓰고 SST를 탈 것인가하고 반문하였다. 미국도 마하3의 SST를 제작 계획인데 RS-7O의 실험 결과가 그 기초가 되리라고 믿어진다. 유인 항공기를 떠나 이것의 개발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연적 미사일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자.

미사일(Missile)이 라고 하면 로케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사일이란 관성 유도법, 레다 빔 유도법, 적외선 홈잉 무선지령 유도법 등등 여러 방법에 의하여 유도되어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병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력 장치로서 지금까지는 램·제트 터보·제트 액체추진 제로케트, 고체 추진 제로케트가 쓰였다. 주로 로케트 엔진이 많다. 최근 외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은 아트라스 129 타이탄 54 미니트맨 20발 도합 203발의 ICBM과 9척의 잠수함에 144발의 포라리스 FBM을 배치하고 있다 한다. 또한 영국에 IRBM 쏘아 60발 이태리와 터키에 쥬피터 30발과 15발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IRBM은 금년 중으로 회수되리라 하며, 최근에 미국은 영국과 포라리스 FBM의 양도에 관하여 조인하였다. 미국은 금년 말까지는 약 천 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리라 하는데 주력은 미니트맨과 포라리스에 둘 것이다. 이 둘은 모두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미리 연료의 적재를 할 수 있고, 유설 시 단시간에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액체연료를 쓰는 것으로 아트라스 중에서 F형은 39만 파운드 추력을 가지며, 3메가톤의 핵탄두를 9천 마일까지 싣고 갈수 있다. 1945년에 일본 광도에 떨어진 원자탄은 20킬로 톤 TNT 였으니까 이 아트라스-F의 탄두 하나로 15배의 파괴가 가능하다. 203발의 ICBM이 모두 터진다면 6억 톤의 TNT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 F형은 지하의 싸이로로부터 그대로 발사된다고 한다. 타이탄 II도 지하 발사되며 저장 가능한 연료로서 N2O4와 에어로진(Aero zine)을 추진제로 사용하고 있다. 저장 가능이란 상온에서 보통 용기에 담겨 유실됨이 없이 그대로의 성질을 갖고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료를 쓰면 발사 시간이 단축된다는 재활이 있어 운용에 많이 쓰이나 고가와 유독성과 취급의 곤란으로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의 부스터(Booster)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타이탄II의 속력은 시속 1만 5천마일, 사정거리 만 마일 제1단계 추력은 36만 파운드, 제2단계는 7만 2천 파운드 또한 타이탄은 타이탄의 양측에 커다란 부스터를 붙인 것으로 9~14톤의 짐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인데 다이나·소아(Dyna Soar)의 부스터로 쓰일 것이다. 미니트맨과 포라리스 A-3의 사정 거리는 6,500마일과 2,500마일로 타이탄·아트라스보다는 적다.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로서 나이크·제우스를 육군에서 개발중에 있으며, 보마크가 SAGE의 전자 계통과 연관되어 미국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적 항공기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로켓의 부스터를 가진 램.제트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다. 대 미사일 미사일은 아직 만족할만한 것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BMEWS의 네 가지 기능 중 탐지와 식별만이 가능하고 요격과 격파는 어쩔 수 없다고 보겠다. 현 상태에서 미국은 FBM 포라리스와 ICBM에 힘을 들여 전면 전쟁 발생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SAC의 사령관토마스·S·파우어 대장은 현재의 폭격기와 미사일로 구성된 혼합 병력 체제는 인간 탑승 우주기와 더불어 항공 우주 업무의 전역을 담당하여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우주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군 당국은 타이탄III 회사의 타이탄을 부스터로 하여 궤도에 올라가서 인공위성과 같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유인기 다이나·싶어 X-20을 보잉 회사로 하여금 제작케 하였다. 그리하여 목·엎이 1962년 9월 전시되었다. Dyna soar란 Aerodynamics와 Soaring이 합친 말이다. 비행기와 인공위성의 결합체을 뜻한 것이다. 삼각형의 TRUSS 구조물의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막이 창은 세라믹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어 대기권에 완전히 들어와서 시계를 필요로 할 때 떨어져 나가게 되어있다.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섭씨 600도 내지700도 가량 가열되므로 고무제 타이어는 타서 없어지므로 착륙장치로서 스키식이 쓰인다. 조종은 대기권 내에서 공기 밀도가 큰 데서는 2목의 방향키와 에레본(Elevon)으로 하며, 외기권에서는 공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X-15와 같이 반작용식 조종 계통이 쓰인다. 즉 기수와 날개 끝에서 가스를 분출하여 그 반 작용력으로 기체의 조종과 안정을 유지한다. 임의로 점화시킬 수 있

(P68에 계속)



<X-20, Dyna-Soar>

미국방성 인간우주 비행계획
(X-20)

1. 배경

X-20의 개념은 이전에는 다이나·소아라고 불리었던 것인데 인간 우주 비행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못된다.
1942년 초기 로케트로 쏘아 올린 우주 글라이더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독일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개발한다는 제안이 미군에 대하여 제기되었다.
그래서 미공군의 지원에 의해서 장래 대기의 언저리 그리고 대기를 넘어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항공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많은 조사 연구가 행하여졌다.
같은 시기에 NASA의 전신 NACA(미국항공자문위원회)도 X-15 연구기의 영역에서 궤도 속도에 달할 수 있는 항공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실험기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고 있었다.
1958년 X-20 실험기를 통합 개발하는 양해가 NACA와 미공군 사이에 성립했다. 이것보다 늦게 설립된 NASA에 의하여 이 협정이 인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X-20의 개발은 1960년 5월에 시작되었다.
미공군은 이 계획에 자금을 대고 관리한다.
X-20은 연구개발계획이지만 그 요소의 어떤 부분은 기밀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획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토는 불가능하다.

2. 목적

공군의 우주 임무에 대한 제일 본질적인 요구는 작업의 완전한 자유성에 있으며 발진이나 수용의 상태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만이 군사 작업의 일상적인 신뢰성과 융통성이 있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재돌입은 광범위한 궤도 경각에서야 가능하며 대기 중에서 충분한 운동성을 갖고 있으며 정확한 조종사의 조종하에 마음먹은 어떤 기지에도 종래 방식의 착륙이 가능케 되어 미국에 귀환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X-20 방식은 이러한 조건들에 호응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X-20은 유인의 우주 글라이더로서 파일럿은 궤도에서 재돌입의 시기를 자유롭게 택하고 종래의 비행기와 같이 착륙 지점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X-20은 공력적인 설계 문제 공력적인 열 문제 방사 냉각 구조 재료 및 기타의 기술 문제의 만족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3. 방법

이 우주선은 원심력과 공력적 양력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심력은 글라이더가 궤도 속도에 달하였을 때에 글라이더를 공간 중에 뒤받든다.
이 글라이더는 지구에 되돌아오는 것을 파일럿이 결심할 때까지 위성과 같이 궤도에 멈춰 있게 된다.
글라이더에 장치되어 있는 반동 제트를 사용함으로써 파일럿은 공간 중에서 자세를 조정할 수 있다.
역추진 로켓은 우주선을 궤도의 바깥으로 하여 대기 속으로 들게 한다.
글라이더는 지구 대기 속으로 들어와서 장거리 활공을 한다.
기의 익은 대기 속으로 들어오면 공력적인 양력과 운동 능력을 기에게 부여한다. 이 고속과 아주 높은 고공 및 운동 능력과의 조합으로 파일럿은 착륙 지점에 달하기 위하여 수백 마일의

장거리를 비행하든지 또는 단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또한 비행경로의 바른쪽 왼쪽으로 운동할 수 있다.
X-20 글라이더의 착륙은 실험기 또는 최신의 제트전투기보다도 복잡한 것은 아니다.

4. 적요

인간은 X-15 로케트 기로 우주의 언저리까지 날았다.
X-15나 다른 고급 실험기의 파일럿은 지구상에 종래형의 착륙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들이 달성한 고도나 속도는 인간 위성의 캡슐만치 인상적이 못 되고 있다.
우주에의 고속 여행과 비행기와 같은 조종에 의한 귀환 방법의 조합-이것이 X-20 계획의 목표인 것이다.
이 계획은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인간 탑승의 기를 우주에 보내고 대기 속으로 조종하면서 재돌입해서 지구상에 종래식 착륙을 하는 것이다.
개발될 이 기는 델타 익 글라이더이다.
이 기는 워싱턴 주 시애틀의 보잉 항공기 회사의 항공우주에서 제작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어떤 우주선보다도 항공기와 흡사하다.
이 글라이더기는 시속 1만 7천 마일(2만 7천 킬로미터 초속 7·5 킬로미터)의 속도로 궤도에 오른다.

5. X-20 방식

(1) 우주선
X-20 자주선은 1인승 글라이더로서 중량 약 1만 파운드 4·5톤이다.
그것은 델타 익기로서 유도 관제 장치 파일럿용 계기 통신 장치 및 조종석의 환경 조절 장치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력적 연구 자료를 X-15 실험기와 같이 수집하는 여러 가지 특별 시험 계기를 탑재한다.
(2) 발진용 로켓
타이탄Ⅲ형 우주발사방식은 현재 개발 중이고 X-20 글라이더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게끔 계획되고 있다.
이 발사 로켓은 2백만 파운드(약 900톤) 이상의 제일단 추진력을 갖고 광범위한 유인 또는 무인 우주 임무를 실행할 수 있다.
타이탄Ⅲ형은 5천 내지 2만 5천 파운드 (약 2톤 내지 10톤)의 중량을 비교적 얕은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며 발사 로켓 계획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발사용 로켓은 공군과 국방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연구의 결과 필연적으로 이룩된 것이다. 표준 우주 발사 방식 624A라 지칭되고 있는 이 타이탄Ⅲ형 방식은 액체와 고체 ICBM으로 개발된 기술과 기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국방성에 의하여 처음부터 우주용으로 개발된 최초의 발사체 로케트이다.
최근의 군용 우주 발사용 로켓은 대부분 ICBM이나 IRBM을 좀 개조하여 상단부를 별도 개발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 타이탄Ⅲ형 방식은 증가하는 유효 적재 능력 융통성 발사회수의 증가, 로켓의 단순화한 성능과 총합된 발사 시설 등에 의하여 달성될 장기 불절약(弗節約) 등에 의해서 주목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개조 타이탄Ⅱ형에 첨가하여 이 계획은 제1 단계의 강력한 새로운 고체 추진 로켓의 개발, 총합 항공 우주 지상 시설 및 총합 이동 발사 복합 시설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 총합 이동 발사 복합 시설(ITL)의 착상은 발사에서 다음번 발사의 사이에 발사 대상에 로켓을 놓는 시간을 짧게 하고 따라서 필요한 발사대의 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마틴·마리엘트·코퍼레이숀은 방식 총합 계약자로 선임되었다.
부록 건조 방식에 의해서 타이탄Ⅲ형 로켓은 5개의 기본 부분으로 성립되고 있다.
두 개의 타이탄Ⅱ형 ICBM의 저장 가능 액체 로켓 단계, 새로운 저장 가능 액체 상부 단계 로켓, 관제부 및 한 쌍의 구경 120인치(약3미터)의 여러 개 부분으로 짤린 것을 합친 고체 로켓·모터 등이다.
타이탄Ⅲ형은 타이탄Ⅱ형의 개조된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제네랄 모터스의 점화 전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초기의 능력은 보증될 것이다.
융통성 있는 발사 로켓으로써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탄Ⅲ형은 여러 가지 우주 임무에 대한 적임자가 될 것이다.
실행되는 임무에 따라 두 가지 표준 형식이 있다. (1) 개조형 타이탄Ⅱ형과 새로운 상부 단계 및 정부에 있는 관리부로 성립되고 있으며, 43만 파운드 (약 2백 톤)의 추진력을 낸다.
(2) 타이탄Ⅱ형의 중심부에 부가적으로 두 개의 5분된 것이 함께 뭉쳐친 고체 로켓이 제1 단계에 부착되고 2백만 파운드(약 900톤) 이상의 이승 추력을 낸다. (각 고체 로켓·모터는 100만 파운드 이상을 낸다)
(3) 비행 시험 계획
X-20 우주선은 최초 X-15의 경우와 같이 B-52 폭격기로부터 에드워드 공군 기지 상공에서 발진될 것이다.
이들의 시험에서 글라이더와 여러 장치는 비교적 저속도에서 시험되고 착륙기의 파일럿에 의한 조종 성능이 검토된다.
궤도 비행은 무인으로서 시작되고 발진 특성을 결정하고 글라이더가 안전히 궤도에서 돌아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것에 이어서 이 방식의 능력과 재돌입법이 충분히 평가 검토된 후에 궤도에의 유인 발사가 행하여 진다.
비행 후의 착륙은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기지에서 행하여질 것이다.

(설찬 역)

조종사가 되려면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공군중위 이효빈
<의무감실>

우렁찬 폭음과 거센 바람을 내뿜으며 오늘도 하늘의 용사들은 그들의 무대인 푸른 하늘로 날아간다. 하늘의 용사! 누구나가 한 번은 동경하고 포망을 품어보는 씩씩하고 장한 대명사이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한없는 창공에서 속세를 한눈 아래 내려다보면서 날으는 조종사의 생활은 남아의 소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인의 생활은 하늘을 날으는 통쾌감이나 멋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상을 떠나 고공에서 활동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조건과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생활의 특수성에 비추어 누구나가 하늘을 날으는 꿈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여기에는 꼭 구비하여야 할 정신적 신체적 조건들이 있다.

첫째 정신적 조건으로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즉 동기가 강해야 할 것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 서야겠다. 특수 직업으로서의 조종사 생활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발달된 기계 문명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는 이상 자그마한 부주의이나 순간적인 착오 등에 의한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정확한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숙달된

기술로 커버되는 것이다. 보라매의 보금자리인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사가 되는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키 고 확고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엄격한 학교생활과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만이 소기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비행에는 언제나 정신적인 부담 즉 Stress와 긴박감이 따르게 된다.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행 훈련에서도 언제나 정확한 판단력과 용단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높은 가을 하늘에서 갖가지 묘기를 보이는 공중전시(Air Show)를 보고 흥분과 감탄의 마음 금치 못한다. 보기에는 그렇게 장쾌한 편대 비행이나 묘기도 실제 조종하는 조종사는 정신적인 긴박과 신체적인 부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 영화를 통하여 보는 숨막히는 공중전, 빗발같이 솟아오르는 적의 대공 포화를 뚫고 용감무쌍하게 적진을 공격하는 스릴들은 실로 기로에서 불을 뿜는 싸움이기도 하다. 이런 속에서 활동하는 조종사들의 판단력과 정신 집중은 완전을 기해야 한다. 정서적인 문제나 사소한 고민이 비행 조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심적인 동요를 갖지 않아야 한다. 복잡한 계기를 한눈에 보면서 조작하는 조종사들의 정신적 건강은 거의 완벽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심리학적 적성 기준에 의한 적성 검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의한 정확한 Data를 얻어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동기가 약하든가 정신심리학적 부적성 또는 사고나 개인적인 충격 때문에 오는 비행에 대한 불안감 내지 공포는 조종 생활의 치명상이 되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 성격, 정신적 지속력 등 자신을 분석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에 쉽게 움직이거나 Stress에 민감한 사람은 적합치 않으며 개인의 소질도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또 한없는 창공이지만 거기에는 지상의 교통 규칙보다 더 엄격한 비행 규칙과 통신 기상 등의 유기적인 Rule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특수 직업으로서의 조종사 생활에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서적인 안정성과 정신적 휴양이 절실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 환경의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는 것은 어렵지만 정신심리학적 면에서 조종사들이 일찍 결혼해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로 신체적인 조건의 구비이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진리가 다시 강조되어야겠다. 비행을 한다는 자체는 어느 운동보다도 신체적 건강을 요구한다.

몸이 튼튼하다는 자체만으로 완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고공비행에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생리적 의학적인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서 어느 한도 위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한 산소 공급이 없으면 저산소증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갖게 된다. 이 증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심하며 3만 피트 이상 고공에서는 여압 호흡을 하여 이를 방지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은 물론 빈혈증 등의 질환도 있어서는 안 되며 개인에 따라 내성의 차이가 있다. 또 대기 압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저압증이 있다.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내의 공기가 팽창하게 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 위나 창자 속에 있는 공기 팽창에 의한 복통, 관절통 가슴이 답답해지는 중압감 등의 증상들이 있다. 이런 고공 증상들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일어나는 시기나 정도가 다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지방질이 많고 비대한 체질에서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며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부적이다. 5만 피트 이상의 고공 여행에선 여압복을 사용하게 된다.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인해 일어나는 가속도 문제가 있다. 속도도 문제가 되지만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여러 가지 공중 조작에서 조종사들은 심한 가속도를 경험하게 된다. 즉 항공기가 급상승할 때는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여 몸속의 피가 아래로 몰려 심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며 쌀가마 몇 개의 무게로 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은 엄격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극복되게 되며 공중 전시에서 보는 아슬아슬한 묘기들을 무난히 수행하게 된다. 또 인체는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데 특히 회전이나 방향 전환 때 평형 장애로 인한 착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 특히 중요한 것이 시력, 시야 문제이며 야간 비행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Vit. A 부족에서 오는 야맹증은 절대적인 부적이 된다. 기압 변화에 따르는 항공성 중이염, 감압증이 심해서 초래되는 허탈 등이 있다. 이상 비행에 따라 초래되는 증상이나 질환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조종사 선발의 신체적 기준은 극히 엄격해야 하며 그야말로 건강 중의 건강이어야 한다. 시력은 물론 색맹, 시야 등의 정밀적인 요소들도 안된다. 이비과에 있어서의 질환은 물론, 감기만으로도 비행은 못하게 되어 있다. 내과적 영역에 있어서의 고혈압, 빈혈증, 비대한 체질, 심폐 기관 등 모든 질환은 절대적인 부적이 되는 것이다. 엄격한 신체검사기준에 입각해서 합격된 조종 학생들도 몇 년간에 불가피한 질환의 발생이나 정신적 신체적 조건으로 조종사가 못 되는 일이 많다.

일단 조종사가 된 후에도 최대한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정기 신체검사(생일 60전)가 실시되며 또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정신검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신체검사나 비행군의관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건강관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체질, 인내성 그리고 자그마한 신체장애 등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내야 한다.

이상 정신적 조건 및 신체적 조건들을 대략 개술하면서 **셋째로 조종사의 생활면 및 인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지상을 떠나 하늘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종 생활은 어디까지나 특수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압박감, 숨막히는 스릴, 때로는 한 없는 고공에서의 고독 등이 있으며 또 신체적인 피로도 있다. 그러나 교육 훈련을 통한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지식과 조종 기술로 이런 모든 부수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넓은 하이웨이 위를 신형 자동차로 달리듯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의 하늘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데는 보통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피눈물 어린 결정의 대가가 스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조종사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즉 숙소나 가정이 필요하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규칙적인 생활과 레크레이숀 그리고 휴식처가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에 Radio를 통하여 6·25의 치열한 전투를 배경으로 한 연속 방송극 빨간 마후라가 방송되었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Drama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장된 생활의 터치이기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조종사 생활을 거칠고 불규칙한 생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고공 여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조종 잠바에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Bar의 문을 밤마다 출입하는 것이 조종사들의 생활일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하겠다. 거칠다든가 몸을 돌보지 않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늘의 용사들의 본능인 양 이해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조종사들에겐 더욱 견고한 인격이 서야 하고 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해야 한다.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수양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멸을 초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인간적으로서의 조종사가 되겠다는 동경을 갖고 조종사가 되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야 하겠다. 상기 정신적 신체적 조건의 구비와 인격적인 수양 곧 푸른 하늘을 날으는 조인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 되리라고 믿는다.

<항공상식>

항공장구

공군 대위 이정우

자기 보호란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능으로 되어있어 이는 삶을 연장하려는 수단이며 외계의 적 또는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위험 등을 벗어나서 안전히 살려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면서부터 받게 된 자연의 위협 앞에서 자기 보호란 단순한 것이 아닌 광범위하면서도 죽음과 직면되어 있는 문제들이었고, 인간은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만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새들과는 달리 엔진의 완전무결을 보장할 수 없고 연료의 무제한을 용서치 않는 난점을 가진 항공기로 고공을 비행하는 조종사는 수 초 동안만 적재된 산소를 흡입치 못하여도 산소 결핍증으로 인해 사망하는가 하면 대기압이 낮아 성공리에 Bailout 를 시도했다 손치더라도 조종사의 신체가 분산되어 버린다든지 동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비행 중 돌발적인 항공기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한편 어떠한 자연의 악조건 하에서도 비행을 유지하고 조난 뒤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항공장구를 고안,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와 같은 항공 장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싸이드·카 선수들처럼 쓰고 있는 헬멧(Helmet)과 산소 마스크(Oxygen Mask)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헬멧은 항공기가 추락 또는 불시착을 감행했을 때에 조종사의 머리로 오는 충격을 감소시켜 주며 우주인을 연상시키는 이마 위에 부착된 검은 유리는 태양의 직사광선 및 Builout 시에 받게 되는 풍압으로부터 안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헬멧 속에는 조종사의 수신에 필요로 하는 레시버가 들어 있고 산소마스크는 항공기 속의 산소 탱크에 압축 저장된 산소를 조종사가 흡입케 함으로써 대기압이 낮고 공기의 밀도가 적은 고공에서도 산소 결핍증에 정신을 잃음이 없이 안전하고 경쾌한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구이다. 한편 산소마스크에는 조종사의 송신을 위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둘째로 노란 색깔로 양 가슴에 드리워진 것이 구명조끼(Life Vest)로서 해상 비행을 목적으로 할 때나 출격과 동일한 훈련 시에 꼭 착용해야 하는 장구이다. 구명조끼 주머니 속에는 신호(Signal)용의 거울 (Mirror). Whistle, 물감 등이 들어 있어 해상에 추락한 조종사로 하여금 거울로서는 수색기와의 신호를, Whistle로서는 구조선과의 연락을 그리고 물감은 해수에 풀어 둠으로써 구조 작업대에 보다 신속하게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타 상어 및 해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의의 조난으로 인해 해상에 낙하하게 되었을 때 구명조끼의 양 끝에 달린 끄나풀(Code)을 당기면 공기가 튜브(Tube) 내를 부풀게 하여 착용자를 물 위로 뜨게 해준다. 구명조끼 속의 튜브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원천은 길이 5cm, 구경 1.5cm 정도의 탄피형 Co2, 튜브 두개인대 Code를 당기는 순간에 개방되어 충분한 공기가 구명조끼를 부풀게 하는 것이다. 가끔 비행 중 Code가 어디엔가 걸려 뜻하지 않게 개방됨으로써 조종사의 조종을 곤란케 하는 경우를 가져오는 수가 있다. 이런 때엔 소지한 칼(Knife)로 짖거나 구명조끼 양쪽에 있는 인공주입구를 열어서 처치한다. 따라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는 멜방을 여유 있게 메여 공기가 차 있을 때에도 호흡이 곤란치 않게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색깔이며 사용도가 같은 것으로써 여름철의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노란 색깔의 보트(Boat)가 있다. 이것만 가지면 호기심 많은 아가씨들을 얼마든지 사귀기에 문제없다는 농담도 있듯이 값진 물건이다. 수많은 조종사의 생명을 바다로부터 구해준 영웅이기도 한 이 Liferaft(뜨개자루)는 꼭꼭 개여져 비행하는 조종사의 파라슈우트에 달려있어 조난당한 조종사가 둥근 손잡이를 당기면 늠름한 자태를 나타내어 주인을 태워 주는 충복이기도 하다.

셋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낙하산 (Parachute)이다. 낙하산은 대별해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즉 등에 지고 다니는 형(Back Type), 가슴에 메고 사용하는 형(Chect Type)「 그리고 엉덩이에 달고 다니는 형(Seat Type)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조종사나 승무원의 인명을 안전하게 지상까지 낙하시켜 주는 것인데 그 용도는 작전협조, 비밀작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의 구별은 낙하산이 펴졌을 때 반구형(Canopy) 주산의 색깔로 알 수 있다. 빨간색, 흰색, 초록색을 매폭 배합했거나 또는 빨강 흰색이나 흰색을 사용한 것은 구명용이라 생각하면 좋다. 주산(Canopy)이 청색이면 식량 투하를 의미하고 적색이면 탄약 보급, 황색이면 의약품, 녹색이면 군수품이 투하 중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낙하산의 낙하속도는 1분 약960 휘트이다. 최저 개산 가능 고도는 실험을 통해 300휘트로 되어 있다. 낙하산이 펴질 때 인체에 미치는 충격은 대단한 것이므로 이를 착용하는 승무원은 자기 몸에 꼭 맞게 졸라메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지상에서 낙하산을 취급할 때에는 완전히 등에 메고 다녀야 하며 결코 직사광 아래나 습기가 있는 땅, 기름 등이 있어 추한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낙하산을 착용하기에 앞서 해당 낙하산의 점검표(Form 46)를 뽑아 점검일시가 초과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한 다음 외부상태

및 Pack Button을 열어 Lock Pin의 상태를 보고 착용함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낙하산은 R:Pcord Handle을 45. 방향으로 당김으로써 개산되나 고성능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Bailout는 가끔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지상에서부터 자동산개기를 장착하여 14,000 휘트 이하 고도가 되면 1초 내로 자동적으로 낙하산이 펼쳐지게끔 조정되어 있다. 그 외도 좌석에서 분리됨과 동시 자동적으로 1초 후에 산개되는 Timer 조절기도 있다.

넷째로 조종사가 착용하는 의류 및 기타 장구인데 이것은 때와 장소 또는 기종에 따라 조종사나 승무원이 알맞게 입도록 되어 있다. 단순한 동하절 비행복, 고성능 항공기에서 착용하는 G방지복이 있는데 G방지복을 입고 비행하는 조종사는 2G 정도의 감소한 G Force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주 비행을 위한 우주 비행복이 있고 알래스카 등지에서 입어야 할 각가지 보온복이 있다. 여기에서 또 매어 놓을 수 없는 것은 동절에 바다에 추락한 조종사의 동사를 방지케 하는 Anti Exposure Suit이다. 기타 장갑 장화 선글라스, 나이프, 후레시 등등 비행에 필요한 소장구가 많다.

다섯째로 조종사나 승무원이 조난당했을 경우 완전히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생환키트(Survival Kit)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종사가 비행할 때 파라슈 우트·씨트에 깔아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 배낭(Kit) 속에는 17세기의 문명을 그대로 말해 주는 듯 종류에 따라 신기한 생활필수품들이 담겨져 있다. 즉 수렵가가 탐낼 사냥총을 비롯해 낚시꾼이 좋아할 낚시도구 일체며 그 어떠한 병에도 대항할 의료품과 가공된 식량 기호품 등이다. 더욱이 비상용 무전기(AN/URC-4)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색기에 무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송·수신을 겸한 간편한 통신장비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온 여러 가지 장구를 조난당한 조종사 자신이 적당히 개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용한 장구를 만들 수가 있다. 즉 낙하산을 이용하여 생환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28폭의 캐노피(Canopy)를 반으로 잘라 바침대로 고이면 훌륭한 야전용 천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보조산은 폭열이 내려 퍼붓는 개활지를 보행할 때 태양열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모양은 없으나 그대로 용도가 높은 모자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 부 상자가 있을 때에는 두 개의 긴 막대기를 구하여 캐노피와 매달림 줄로 잡아매어 들것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짐을 운반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낙하산을 싼 Pack을 잘 이용하면 힘 안 들이고 무거운 짐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코드(Code)에 달려 있는 핀(Pin)을 잘 갈아서 끝을 뾰족하게 하여 꼬부리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멜방고리는 적군을 조우했을 때 소리 없이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호세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고기를 모아 놓고 때려서 잡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

캐노피 폭을 두 겹으로 하여 신의 등을 만들고 손(Cushion)을 이용하여 바닥을 만들고 멜방으로서 받침을 만들면 훌륭한 슬리퍼가 되는 것이다.

그의 숲속을 보행할 때 독사 방지용 각 반을 만들어 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응급조치 시에 캐노피 천은 붕대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낙하산 하나로서도 많은 임시 생환 도구를 개조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볼 때 항공장구는 그 용도가 하나에 귀결된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 그 용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으니만치 조금만 머리를 쓰면 보다 손쉽게 조난으로부터 신속히 생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수많은 생명체는 지상에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을 극복해야 하는 숙명을 지녀야 했고, 그로 인한 수단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사자나 범은 비수와 같은 이빨과 발톱으로 그리고 장미는 줄기의 가시로서 충분했을 것이나 인간만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어서 인류의 조상은 많은 천재나 천적으로부터 위협과 위험을 모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오히려 야수의 이빨을 보고 비수를 만들었으며 곤충의 보호색을 관찰해 자기 보호를 배웠는가 하면 날으는 새를 보고 끝내 더 높이 치솟아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 조종사와 승무원이 불가결하게 필요로 하는 항공장구를 대충 살펴보았다. 고도로 향상되어 가는 항공계의 발달이 해가 거듭할수록 인명의 보호를 위해 복잡 미묘한 항공 장비를 증가해 가고 있음을 목격할 때 극히 기초적인 사실을 기술해 본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항공기를 전제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우리 공군은 더욱 이에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중에서의 사항은 늘 비상의 가능성을 내포해 있어 전시나 평화 시를 막론하고 정신적인 긴장을 요구함으로 이 분야에 직접, 간접으로 종사하는 우리자 선은 항상 이 항공 장구의 용도에 관해 잘 알고 생활해가 되리라 믿는다. 더구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그 취급에 조심을 해야 함은 물론 그 수명을 연장시킴에 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밀한 점검으로서 유사시에 자기 자신을 잃음이 없도록 각자 성의와 노력을 다 해야겠다.

(P56에서)

는 추력의 AJ10-137 에어로젤제 액체추진제 로켓 엔진을 두 개 가지고 있어 궤도에 진입과 지구로 다시 들어올 때 쓰인다. 금년 11월에 완성 예정으로 있는 X-20은 1명을 태우고 12시간 동안 궤도에 있다가 2~3G만을 받으면서 지상에 내려와 앉을 계획이다. 용도는 우선 연구용이나 궁극적 군사상 목적은 정찰과 군용의 적 위성의 요격, 적지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TFX의 청부를 빼앗긴 보잉에서는 다이나·쏘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작년 6월부터 6명의 파일럿이 이 X-20을 타기 위해 에드와드 기지에서 훈련 중에 있다. 다이나·쏘아 예산은 1961년도에 5,800만 불, 1962년도에 1억 불 1963년도에 1억 1천 5백만 불이다.

결론적으로 다이나 쏘아와 같은 항공 우주기와 더불어 특수적으로의 항공기와 거하고 정확성 있는 미사일의 연구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끝없는 우주로의 진출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연구가 또한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군대의 내무반은 종종 가정의 내실에 비유되며 내무반장은 한 가정의 가장에 비교된다. 영외 장병을 제외한 전장병은 누구나 영내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실로 내무반은 군인의 요람이오 군기의 본산지라 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무반을 잘못 이해하여 사병의 집단수용소 운운 하는 자가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무반장을 하나의 감시자로 이해하는 몰상식에 이르러서는 아연할 뿐이다.

이런 오해는 결국 군대의 생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것이다. 실제에 있어 군대의 찬연한 전통과 단결, 그리고 준엄한 기율을 존속 유지케 하는 무거운 책임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 바로 내무반장이라 하여 틀림이 없는 것이다.

내무반장의 요건

백현석
〈공군소령 · 항병교신병대장〉

이렇듯 내무반장의 책임이 큰 만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범적 내무반장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왕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채 반원 통솔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마치 자기 개인을 위한 특권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내무반원을 사병화하고 명령의 도구화하는 폐단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음의 잔재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모범적 내무반장이 되기 위해서 모름지기 각 내무반장은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남보다 몇 배의 힘든 일이라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헌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된 일의 공은 자기에게 돌리고 잘못된 일의 책임은 모두 반원에게 미루는 따위의 이기적 사고방식이나 하급자를 자기의 처세를 위하여 악 이용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이 만에 일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내무반장을 마치 구시대의 무슨 감투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내무반장은 반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반원이 내무반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두 군의 목적 곧 전승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무반장이 됨으로 해서 반원이었을 때보다 소위 편한 내무반장이 있다면 그는 그만큼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그만큼 내무반원들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라 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반원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대신 져 줄 아량이 없다면 그는 내무반장의 참된 유자격자라 할 수 없다.

내무반장의 둘째 요건은 책임 관념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관에 대한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동료 또는 반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책임의식의 빈곤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타성이라는 비판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반원들에게 책임의식을 촉구해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책임 관념이 부족하다면 통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여러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급자이므로 해서 말 한마디라도 더욱 책임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무반장은 자기부터 솔선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반원들이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이행은 반드시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 는 것이어야 한다. 상사의 눈치에 따라 그 실천의 강도가 달라지거나 시간상의 지속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말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식의 책임 관념은 차라리 아니 함 만 못한 것이다. 내무반장이 눈치에 따라 일하면, 반원들 도 내무반장의 안색에 따라 주어진 일의 양과 질을 조절 할 것이다.

능동적인 책임의식만이 일의 능률을 올리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명령복종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무반장은 상사(上司)의 의도하는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할 최후의 감독자이므로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형식적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이다. 명령지시에 대한 완전한 소화가 있어야 그 실천독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반원들의 맹목적 복종을 방지하는 길도 자신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 부당한 명령에 의한 공포 분위기의 조성이나 편파적 관심의 표명에 의한 아부 조성의 묵인 내지 조장은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이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당한 명령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어야 마음으로부터의 복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무반장은 군사회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그것이 구두상의 명령이건 문서상의 명령이건)이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민주주의 내지 개인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군대에 있어서의 명령의 절대성에 회의와 이의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바 내무반장은 이러한 위험한 사고방식에 철저한 교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기가 군의 명맥이라거나 명령복종이 군기의 핵심이라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군은 그 조직원리에 있어 명령의 절대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0억 인류 가운데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몇사람 안되는 내무반원이지만 절대로 같은 사람은 없다.

가정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지식정도, 취미 기호 무엇이건 다 다르다. 개중에는 내무반장 눈에 늘 곱게(?)보이는 A도 있고 언제나 말썽만 부리는 B도 있다. 항상 조용한 C로 있고 언제나 떠들썩한 D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을 보살핀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열등감에 젖어 엉뚱하게 생각하여 골치를 아프게 하는 친구도 있는 것이다.

내무반장도 사람인 이상 이런 분위기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무반장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그가 키가 크건 작건 다 같은 전우인 것 같이 ABCD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작은 우주를 그의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 눈에 아무리 분명치 못한 사람도 다 제 마련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무반장이 부주의하여 어느 한 반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곧 부작용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 반원은 내무반장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감정을 다른 데서 보상(補償)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면에 반항적이 될 것이고, 만일 반원들마저 내무반장의 태도를 따른다면 내무반에서 완전히

고립하여 일과 후 내무반 문을 여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어질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 편파적인 사랑이 종종 부랑아동을 만드는 원인이 되듯이 내무반장의 공사를 떠난 행동은 모든 파탄의 원인이 된다.

봉건적 사상이 아직 불식되지 못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공사를 혼동하는 분위기가 얼마든지 있다.

외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아쉬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실제로 대령, 중령으로 복무하다 정년에 달한 고급장교들이 연금을 타기에 필요한 햇수를 채우려고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한 미국군 대를 예로 들더라도 어제까지 자기의 부하였던 하급 장교 들에게 적어도 공무인 한 먼저 경례를 붙이고 말끝 마다 깎듯이 Sir를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과 사에 선을 긋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순경 열사람이 한 놈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격으로 간사한 아첨이나 허위보고를 일삼는 분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내무반장의 판단도 흐려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내무반장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떳떳해야 한다.

반원에게 필요이상의 신세를 지고 갚지 않는다거나 필요이상의 호의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금전관계나, 여자문제는 종종 인간을 맹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떳떳한 내무반장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공과 사를 구별하여 행동해야 한다.

다섯째는 부지런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으름은 모든 추진력을 마비케 하는 것이고 낭비는 저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고참병이 될수록 초년병시절의 부지런을 게으름으로 바꾸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아침 점호 때 늦게 일어나는 것은 보통이요 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급자에게 기대하는 버릇이 생긴다.

또한 관물애호사상도 줄어지기 일수다. 부대창고에 있는 것이 모두 제것 처럼만 생각되는 것이다. 게으르고 깨끗한 사람이 없고 낭비하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게으른 내무반장 밑에 지저분한 내무반이 있고 낭비적인 내무반장 아래 빈곤한 내무반이 있다.

내무반장이 해야 할 많은 일중에 가장 생활화해야 할, 일이 이 부지런과 절약이다.

여섯번째는 군인정신에 관한 것이다.

군인정신이라면 마치 과거 일본 군인의 야마도 다마시를 연상하는 사람이 아직 적지 않으나 군인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적 자세-이것이 바로 군인정신이다. 적어도 내무반장은 누구나 민주군인의 표본적인 존재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투철해야 함은 물론 공산주의에 대한 완전한 비판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두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군대예절에 정통하여 상하 간에 또는 대민관계에 막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상 여섯가지의 요건을 나열 설명하였거니와 이중 한 가지인들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건실한 자기수양과 정진에 의해 자기충실을 기해갈 때만이 모범내무반장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고 내무반원을 한낱 자기의 사병시하는 태만한 내무반장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반원들은 생활정돈의 불완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의 회보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휴가나 외출 시 틀림없이 소속 장을 괴롭힐 사고보고를 지니고 귀영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야간 불침번 근무시 자기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료의 포켓을 뒤지는 자도 생길 것이고 일과 중 지휘관 책상위에 놓아둔 담배쯤 집어다 피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도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 설상가상 격으로 내무반장 또는 고참병의 이유 없는 압력이 가중된다면 내 무반은 중상과 모략, 공포와 불안만이 감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 타개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 상급자에게 총부리를 돌려대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긴말 할 것 없이 내무반장 한사람의 군인 됨 여하에 따라 그 밑에 있는 내무반원이 영향 받는 바가 큰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내무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는 내무반장은 그 반원에게 항상 기회교육으로서 군대생활에 필요한 제 요건을 이해 습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원의 신상을 세밀히 파악하여 그날 그날 반원의 신체적 성격적 가정적 특수성에서 오는 이상을 무언중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영내사병이 군 생활을 명랑하게 영위해 나가며 맡은 바 임무를 100%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내무반장의 아량과 수완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직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가 걷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할아버지 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더 클 것이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계속케 하고 아버지는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다.

(P8로 계속)

보 고

강연광경→

마음의 문을 열고

-자매지역 교사강습회 수행기-

이기철
〈공군중위 · 공군대학 정훈관〉

침울하고 어두워만 가던 우리의 사회를 밝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들 마음속 깊히 스며든 맑고 병든 우리의 혼을 일깨워 보다 잘 살고 좋은 나라를 건설하려는 마음은 오랫동안 우리가 바라는 목표요 또 숙원이었다. 이리하여 재건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사업이 도시와 농촌 학교와 학교 또 직장과 농촌사이에 번져갔다. 겨레끼리의 서로 돕기운동은 그동안 천을 헤아리는 실적을 자랑하며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매결연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공군대학은 그 결연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나 문화적으로나 생활수준이 낮은 벽지 국민학교 1개교를 선택한다는 근본방침을 정하고 당 대학으로부터 근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 오명 국민학교와 작년 월 자매의 인연을 맺었다. 이래 우리 공군대학에서는 물질적인 원조보다도 정신적인 지도와 학업 발전 에 치중 한다는 원칙아래 지도학교 교원과 학생들에게 긍지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왔다.

그리하여 농촌문고 설치, 교양사업 지원 교환, 학습보조자료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다음에 이야기할 보고내용도 이중의 하나인 교양 사업지원 활동의 하나로 실시 된 것이다.

무거운 남행열차

작년 말 다대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L 소위의 지도강연 파견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관계는 날로 긴밀하여 갔다.
1963년에 들어가 지도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상호협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구상의 하나로 지도 학교 교원에 대한 학습지도 강습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초에는 지도학교 교원에만 한정 코저 하였으나 향토 교육 이왕이면 칠곡군내에 있는 50여개의 국민학교의 여러 교사에게도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지방군수의 열의 있는 간청으로 규모를 확대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군대학에서는 최초로, 국민학교 교편을 대상으로 한 교관파견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참가한 교관을 선발하고 스케줄을 작성하는 등 강습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청 각 교구 일체를 동원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2월 20일 출발의 날이 왔다. 총장님은 그 훈시를 통해 당 대학으로서는 민간인에 대한 파견교육이 처음이니 만큼 교관 각자는 전심전력으로 실력 발휘에만 유감없기를 바라며 특히 교육대상자는 교관들 보다 교단의 선배라는 것을 명심하여 내가 가르친다는 우월감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겸손 자중하라고 간곡히 당부해 주셨다.
H 소령을 인솔자로 한 교관단 일행 6명은 이날로 총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로 칠곡으로 향했다.
차중에서의 대화는 대체로 강의성과에 대한 토론이었다.
아무리 유능한 교관들이라 하더라도 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는 별 경험이 없는 군인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일선 교사들, 그것도 세련되고 독자적인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에게 과연 실패 없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결론 없는 토론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후 5시, 군수와 교육과장 그리고 장학사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왜관역에 도착하였다.

강습회 첫날,

날이 밝으니 2월 21일.
어제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긴장된 교관들은 강의 준비를 마치고 이 강습회장인 왜관국민학교 교정으로 갔다. 상오 9시 30분 군내 각 학교 대표 40명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교원 강습회 개강식이 거행되었다. 군수님은 식사에서 교육의 방법면과 실천면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을 걷고 있는 공군대학 교관과정 교관 여러분을 모신 이 강습회는 향토교육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면서 대학당국과 교관들에 감사한다고 몇번 이고 말해 주었다.
교관대표 HS의 간단한 인사와 학교 소개에 이어 1교시 의사전달, 2교시 청취법의 순으로 곧 강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계획, 학습법 등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교관들의 열띤 강의가 계속

되어도 이들 교원들은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의 무거운 표정에 우리들은 점점 무거운 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표정한 태도며 지치고 어려운 그들의 모습 앞에 생각보다 깊은 사연들을 절감한 것이다.
문명의 혜택이나 문화적인 이기를 받고 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들이기에 감당하기 힘든 벅찬 임무앞에 교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이마에 얽힌 주름살에서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교육에의 정열을 읽었고 빛나는 눈동자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탐구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강의 제2일. S중위의 시청각 교구론은 그림속의 떡처럼 말로만 들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문제를 던져 주었다.
청강교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 갔다. 젊은 장교들의 열성과 새로운 교육방법에 감동해서인가 진정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33년을 교직에서 몸을 담아 왔다는 약목 국민학교 교장선생을 위시한 인 근 학교의 각급 교장들 그리고 장학사 교육과장 등의 열성적인 참여아래 이심전심의 교육 분위기는 지도관계의 따스한 정을 만발케 하여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어 갔다.
마음의 구름은 거치고 풍요로운 환희는 나타났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니고 있는 좋은 자료를 교환했다.
갈채와 박수 속에 J소위의 교육방법론 전반에 걸친 진지한 강의가 끝나자 그들과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소위의 독창적 사고의 있는 강의 또 소령님의 연설법 강의는 생활주변의 일반적인 사실들을 체계있고 내용있게 정리해 주었다.
특히 H소령님의 문제해결 전반에 걸친 방법적인 소개는 대단히 가치로운 것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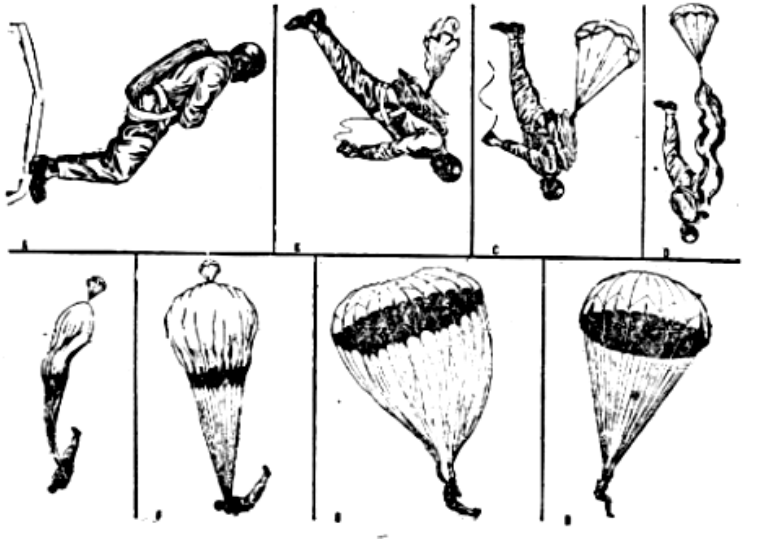
되살아오는 동공

예정에 따라 강의의 종반에 이르자 우리는 또렷이 되사는 교원들의 동공을 의식 하였고 사명과 열성으로 교관들은 있는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교관들의 사기는 백배로 상승했다. 알고 있는 지식, 지니고 있는 역량을 다한 교관들은 소령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였다.
J중위의 강의식 교육방법을 비롯한 국민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시험문제에 대한 분석 방법과 그 이론적 배경을 전개하는 강의는 관심의 초점을 모았으며 우리가 흔히들 소홀히 하기 쉽든 교육심리의 깊은 이론이 R소위에 의하여 전개되자 그들의 모습에는 새로운 문제점에의 관심이 더욱 커가고 있었다.
강의의 종반 중위의 강의가 계속 되었다. 원만한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의 이론 향토학교의 여러 문제 또 평가이론의 개괄적 소개 등은 정말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이 교육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는 우리의 확신을 공동의제로서 제기한 것이었다. 장내는 사랑으로 넘치고 서로는 다정한 정화를 도란거리듯 참되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익어만 갔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또 요구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느껴 판단한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들어서 유익하기에 듣는 그들의 준비뿐이었다. 아쉬운 시골학교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포근했고 듣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작한지 6일 총 24과목 42시간의 성의 있는 강의는 끝이 났다.
구구한 억측과 시기적인 조건을 극복한 채 강습회는 끝났다. 멀리 왜관의 6일이 지났고 사랑의 우정은 깊어 갔다.

혁명의 완수는 국민 운동으로

아쉬운 인정을 나누며 정든 6일의 왜관을 떠났다. 폐강식의 조촐한 식장은 꾸밈없는 인정으로 그득하고 가난한 우리의 주변이었으나 우리는 행복했다.
강습회의 제도적인 당연 앞에 우리는 염증을 느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 공군대학 교관님들의 강습회는 가장 인상 깊고 우리에게 자극을 준 가장 값진 강습회라 믿습니다. 이는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요 결코 아부도 아닙니다. 다만 느껴진 내용을 그대로 전해 드릴 뿐입니다. 어느 선생님의 소감문의 일절이다.
그리고 우리의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을 기록해 보면 첫째는 국민운동의 참된 뜻을 처음으로 체험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운동은 환상이어서도 아니 되며 더구나 그것은 센티멘탈리즘에 머물어도 아니 된다. 혁명의 초석은 국민운동의 거족적 각성에 놓여져야 되며 더구나 국민운동의 건실한 터전 위에서만 우리의 혁명은 완성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체험한 것이다. 소나 토끼 몇 마리의 회사가 자매결연사업의 총화는 아닐 것이요 물질적 원조의 형식적인 기록은 없애야겠다. 성의와 사랑으로 따뜻한 자매의 인정을 나눠가는 그것만이 우리국민 운동의 원동이 될 것이고 이러한 내면적인 정신 혁명이 없는 한 우리의 국민운동은 막연한 이 상론에 그친 빛 좋은 개살구에 비교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매운동은 서로 돕는 움직임이지 우열이나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은 그 시초에서 부터 밝혀온 바이다.
격려하고 서로 돕는 그윽한 인정과 성의만이 이 운동의 성공을 이룩하겠다는 굳은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때문에 국민운동은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한 치례도 아니며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보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었다는 것이다. 교육의 길은 험하고 그 실시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이 바로 교육이란 이야기가 있다. 비진취적이며 소극적이고 선이 가늘고 폭이 좁은 분들은 흔히 교사에 비교한다. 그러나 박봉의 가냘픈 생활에서도 그들은 옳음을 알고 참되게 살려는 기백이 있었다. 그래도 그들에겐 사랑이 있었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고 있다는 것이 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값진 인생들이냐. 오늘도 그들의 무릎위엔 페스탈로치의 정기가 엿보이고 선도를 위한 아동의 지도에 인색치 않은 열성을 보내는 그들을 볼 때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배형낙하산 개산순서

낙하산에 대한 일반상식

이훈

1. 연혁

낙하산은 불어로 Parachute라고 한다. Para는 저항 또는 대항한다는 뜻이며 Chute는 추락 또는 강하한다는 뜻에서 Parachute는 추락에 저항하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Parachute는 1495년 레오날드·다빈치(Leonard Davinchi)가 최초 고안과 동시에 이 기구를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이론을 썼다. 이론을 이용한 세계 각국에서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기구이용 또는 높은 탑을 만들어 뛰어 내리기를 하며 낙하산을 발달시켜 왔다.
1834년 영국의 로버트·코킹 (Robert Coking)은 원추형의 낙하산을 만들어 기구를 이용하여 고도 1천 미터까지 올라가 기구를 이탈하여 강하하다가 착륙시 희생되었다.
코킹의 희생은 세계 각국에서 낙하산을 타고 즐기던 사람들에게 큰 쇼크를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낙하산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18세기까지는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낙하한 것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하여 모험을 즐겨 왔다.

1908년 미국의 Sleves가 수동식 낙하산을 설계한 것이 현대화 되었다. 이 낙하산이 항공장구로써 사명을 이루게 되고 1912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복좌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낙하산 강하가 행하여 졌다.

1923년 미국의 해리스 중위는 실제로 사고 난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낙하산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하여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낙하하여 성공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항공기에서 베일·아웉(Bail-Out)하면 낙하산이 자동으로 개산되게 발달된 것이다.

2. 낙하산(Parachute)의 종류

낙하산은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대별하면,

항공장구로써 조종사의 구급용 낙하산. 공정부대 투하용. 화물투하용. 캡슐(Capsule)운반용.

항공기의 속도제한용. 조명탄용.

심지어는 60미리 박격포 조명탄용 낙하산도 있다.

3. 낙하산의 형류(Parachute Type)

낙하산은 배형(Back Type), 흉형(Chest Type), 석형(Seat Type) 세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항공기형에 따라 조종사는 각기 다른 낙하산을 가지게 된다.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원은 누구나 배형을 착용하게 된다.

4. 비상용 낙하산

비상용 낙하산은 항공기 전탑승원에게 분배한다. 비상용 낙하산은 비행중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없을 경우 조종사 또는 탑승원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다.

5. 낙하산 개산법

배형, 좌형, 흉형이 외면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개산된다. 각 낙하산은 립·코오드(펴짐줄 : Ripcord) 손잡이(Hand)를 당기면 개산된다.

(도표 1은 배형 낙하산의 개산순서다)

「립·코오드 핸드」를 당길 때에는 최소한 20파운드의 무게를 드는 힘을 가하여 당겨야 개산된다.

Ejection Seat(쏴밀이 좌석)가 있는 항공기는 제외된다.)

1. 「립·코오드」를 당기면 낙하산은 다음과 같이 개산된다.

가,「립·코오드」를 당김으로써 말려있는 캐노피(Canopy)는 즉시 열린 포장 밴드로부터 개산된다. 이 밴드는 헝겊으로 쌓인 스트링으로 긴장케 밀착되었다.

나, 포장 열림과 함께 유도낙하산(Pilot Parachute)은 공중으로 개산된다.

다, 캐노피는 유도낙하산에 끌려 나와 신속하게 공기를 채운다.

라, 완전히 「캐노피」가 열리면 즉시 팽창된 상태로 돌아온다. 이러한 전 과정은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는다. 낙하산이

완전히 개산된 후 강하 속도는 1초 동안에 18피이트 내지 22피이트이다.

(시속 12~15리이다).

6. 뛰어 내리는 동작

「베일 아웉」하는 사람이 항공기로부터 출구를 잘 나가고 「점프」하는 동안 조심하면 Parachute Jump는 항상 성공의 결과를 맺는다.

하기 지시는 안전한 「베일 아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jection Seat 가 있는 항공기는 제외)

가, 항공기에 각각 연결된 Band를 풀어 놓고 문으로 나가야 한다.

나, 손은 항공기밖에 위치하고 탈출한다. 낙하산이 개산 될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에서 부터 『라』까지의 요약된 것과 같이 눈을 뜨고 정확한 몸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배형 낙하산을 사용할 때는 머리를 가슴위로 내려 숙이고 「립·코오드」손잡이를 보아야 한다. 이 姿는 「라이서」 (매달림줄 : Riser)와「캐노피」를 개산시킬 때 두부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자세이다.

라, 어느 형의 낙하산도 「립·코오드」는 오른손으로 잡는다.

마, 두발과 무릎에 힘을 주어 꼭 붙이고 다리를 쭉 펴야 한다. 다리를 함께 붙이는 것은 낙하산 줄이 포장으로부터 개산될 때 다리와 낙하산줄 사이로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며 다리의 부상을 방지한다.

7.『립 · 코오드』 손잡이를 당기는 법

「그립 코오드」는 「점프」하는 사람이 항공기로부터 뛰어내린 후 고도에 따라 다르며 고도 14,OOO 이하 1,000「피이트」까지는 3초 내에 당겨도 상관없다.

「그립 코오드」를 잡아 뽑을 때의 자세는 머리를 가슴으로 붙이고 양발을 꼭 붙여 쭉 펴고 얼굴이 지면을 향하게 하고, 「립 코오드」 손잡이는 좌우손으로 야구 뺏드 쥐듯 하고 힘 있게 잡아 당겨야 한다.

그릇된 생각이 항공기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립·코오드」손잡이를 당기는 수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손잡이를 당기면 「스프링」으로된 유도 낙하산이 나와 이탈하는 항공기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8. 강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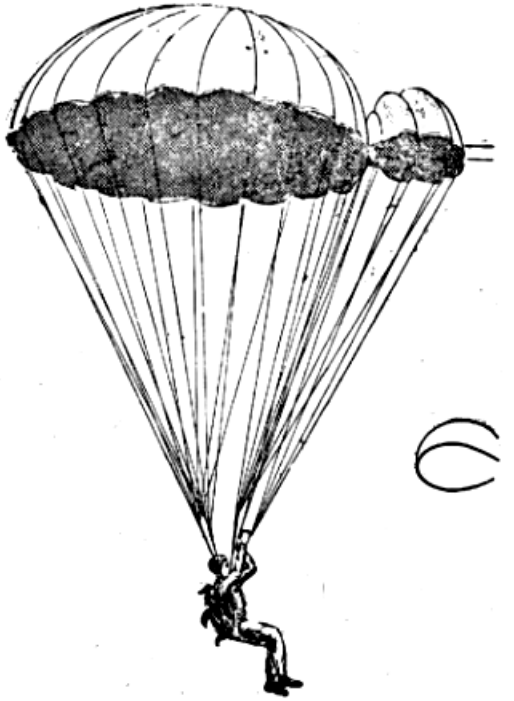
낙하산이 완전히 열리기에는 「립 코오드」손잡이를 당긴 후 2초~4초가 걸리는데 「립 코오드」를 당긴 후 2초~4초 동안에 개산충격을 몸에 느낀다. 만일 「캐노피」가 개산되는 동안 몸이 회전되거나 「라이저」와 낙하산 줄이 꼬이면 머리를 즉시 쳐 들기는 불가능하다. 「라이저」와 낙하산 줄이 꼬이지 않으면 개산 충격과 동시 앞을 똑 바로 바라 볼 수 있으며 「캐노피」가 완전히 정확하게 개봉되었는가를 검열한다.

「캐노피」는 가끔 사소한 나쁜 기능으로 팽창되어 전도되는 수가 있다.

(전도되었다는 「캐노피」라고 하는 것은 「캐노피」 내부가 뒤집어 지는 것을 말한다.

1. 일부 전도된 「캐노피」를 벗기는 법

일부 전도된 것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1초 동안에 2·3「피이트」의



거꾸로 된 Canopy를 바로 하는 장면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는 장면

강하하는 속도를 증가 시킨다. 강하하는 사람이 고도 1,000「피이트」이하에서는 전도된 「캐노피」를 그대로 착륙 한다.(그림-2)에 있는 작은 고리에 밀착되어 있는 줄을 당김으로써 전도된 「캐노피」는 벗겨진다.

2. 강하 중 진동을 감소시키는 법,

개산된 낙하산이 시계 추 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은 낙하산이 강하하는데 항상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 진동을 감소시켜야 한다.

진동은 「캐노피」 변두리로 부터 균일하지 않게 새나오는 바람이 공기의 압축으로 인해서 「캐노피」 내에 쌓아 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진동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강하하는 사람은, 펼쳐진 네 줄의 「라이저」를 좌우 손을 위로 쭉 펴서 움켜잡고 팔꿈치가 가슴 앞에 접근 할 때 까지 「라이저」를 아래로 당기고 「라이저」를 잡은 손이 어깨 움푹 파진 곳에 이르기 까지 잡아당겨야 한다. 이러한 동작은 새나가는 모든 바람을 「캐노피」의 기공에 내 보내고 움직이는 순환을 차단시킨 다음 낙하산을 조종한다.

처음……바른손을 머리후면에 접촉케하고 왼쪽 Riser를 잡는다.

그다음……왼손으로 머리저편에 건너질러 바른쪽 Riser를 잡는다.

상기와 같이 한 다음에는 양손을 동시에 잡아 다녀 Riser를 교차하게 하고 몸은 바른쪽으로 돌아가게 한다.

낙하산을 조종할 때에 잡았던 「라이저」를 가만히 놓아 주어야 한다. 만약 강하하는 사람이 잡은 「라이저」를 콱콱 놓아주면 진동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생기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9. 낙하산 방향

조종법

1. 벗기기(활공법 Slips)

가, 벗기기는 공중에서 낙하대원이 충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지상에 있는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공동작이다.

2. 몸을 돌리는 동작

가, 한 손은 머리 뒤에 놓고 반대 양쪽「라이저」를 꼭 쥐고(그림-3) 우수는 우쪽으로 좌수는 좌쪽으로 잡아당기고,

나, 두 손을 X자로 되게 얼굴 앞에 두고 양쪽 반대 「라이저」를 움켜 잡는다.

다, 양쪽「라이저」를 동시에 잡아당긴다. 그로 인하여 X자로 된 「라이저」는 등뒤로 오고 몸은 돌려진다.

활공은 강하하는 사람이 180도로 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지면을 관찰한 후에는 본래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서서히 잡아당겨 개봉한다.

3. 활공법(Slips)

가, 앞으로 가려면 : 앞 두줄을 Riser아래로 잡아당긴다.

나, 뒤로 가려면 : 뒤의 두줄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Ri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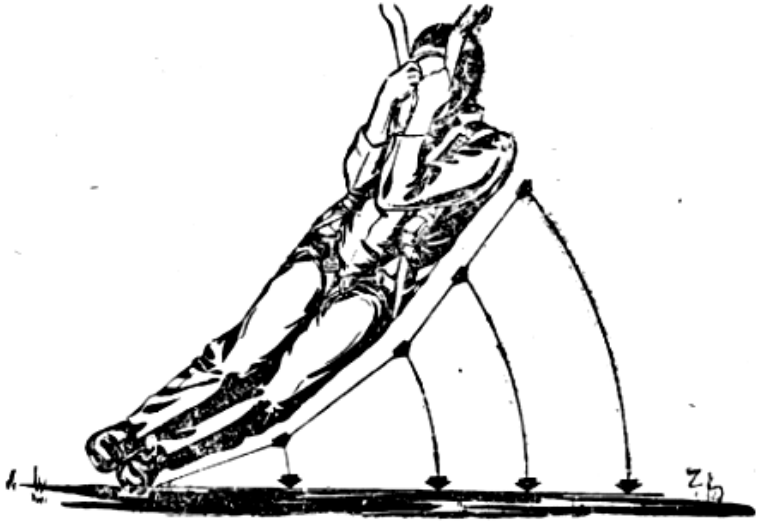
다, 우측으로 가려면 : 우측의 두 Riser를 아래로 잡아당긴다.

라, 좌측으로 가려면 : 좌측의 두 Riser를 아래로 잡아당긴다.

이러한 활공방법으로써 낙하대원이나 또는 지상의 장애물충돌을 피한다.

10. 낙하산 강하 착륙방법

낙하산이 틀림없이 잘 펴졌다고 해서



착륙시 몸의 접지 순서 : 발, 옆다리, 넓적다리, 등어깨, 근육 순으로 닿는다.

안전착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착륙은 거의 어느 위치에서나 가능하다.

낙하산 강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개 3피이트 상공에서 착륙준비하여 접지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대략 50「피이트」고도에서 착륙 준비를 해야 한다. 하강하는 사람이 강하고도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없으므로 머리와 눈은 수평으로 두어야 한다.

1. 착륙시 이행 할 주의사항

낙하산으로 입은 부상은 그 대부분이 정당치 못한 착륙동작에서 오는 것이다.

착륙할 때에 가장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이 발목이므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과 무릎이 동일한 면에 놓이도록 부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작은 땅에 접촉하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체의 근육을 너무 긴장시키면 골격보다 근육의 받는 충격이 더욱 심하므로 지면에 닿을 찰라에는 전신의 근육을 적절히 긴장시켜야한다.

무릎과 궁둥이의 관절을 늦추어 약간 구부리고 있어야 지면으로 부터 오는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착륙할 때는 두다리에 공평한 힘의 분배를 주어야 다리의 골절을 방지할 수 있다.

2. 착륙동작

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가져오며 팔꿈치는 몸에 단단히 부치고 있어야 한다. 팔꿈치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지면충격에 어깨의 관절이 탈골하기 쉽다.

나, 착륙할 때에 몸의 접지순서(그림-4)는 발 앞끝 발바닥 앞다리 넓적다리 궁둥이 끝으로 등위에 어깨의 근육을 대야 한다(그림-4참조).

다, 착륙을 이행할 때 지면에 대서는 안 되는 몸의 부분(무릎 팔굽 머리 등의 골격부분은 절대로 땅에 대서는 안 된다.

공산정권의 폭정실태

-중공의 탈출자 조복의 증언-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스웨덴」주재 중공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중공의 폭정에 못이겨 서방측에 망명한 동대사관 안전실 주임 조복(27세)이 미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이다.

중공은 당, 정부, 군대동의 간부를 철저히 훈련하는 한편 이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급 또는 하급간부가 망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조복은 철저한 공산주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당원의 소장간부 중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한 최근의 인물이다. 조에게는 아내와 두살되는 딸이 있는데 그의 탈출로 말미암아 이미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편집자)

나는 1935년 2월에 만주 길림성 심양부근의 촌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3대에 걸쳐 한갖 농사꾼으로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내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가족은 심양으로 가서 숙부와 함께 살게 되었고 나도 거기서 소학교를 다녔다.

1947년 나는 몇 달 동안 학교를 쉬고 고향으로 갔는데 당시 고향에서 지방정부를 만들기 시작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구룹」에 참가해 달라고 부탁해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12명의 아이들 「구룹」의 지도자로 뽑혔는데 이 「구룹」의 임무는 모두 창을 들고 이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었다.

1948년 봄에 나는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 소학교를 마치고, 장춘에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거기서 나는 어학, 수학, 지리, 역사등의 보통과정을 택했으나 시간의 대부분은 정치 강의 그것도 전부가 공산주의 강의에 할당되었다.
내가 2학년 때 그 학교의 공산당위원회는 나에게 보병예비사관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 그 학교는 군사학교인 고로 학 비가 한 푼도 안 들기 때문에 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으며 입학과 동시에 군적에 오르고 후보생이 되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소·중공 국경부근 흑룡강성에 주둔하고 있는 공안부대에 배속되었으며 여기서 다시 6개월 동안 근무한 뒤에 나는 공안부대의 중위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나는 1955년부터 58년 말까지 「차무스」의 구류소 소대장직을 받았고 56년 6월에는 중국공산당 정당원이 되었다.
나는 가족력이 순수했던 관계로(여러 대에 걸쳐 가난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쉽게 당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소 · 중공의 불화를 알다

58년에 나는 「차무스」의 공안부대 병참부로 전근되었다. 「하루빈」에서 단기훈련을 받은 다음 나는 식량, 피복, 연료담당 보급사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부대는 흑룡강의 「호찬」특별구에 병력을 공급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
이 지구에서 근무 중에 안 일이 나를 공산주의에서 이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호찬」지구에는 많은 노동개량수용소가 있으며 이 수용소에는 장기의 형이 선고된 정치범 형사범이 있었다.
그들은 1957년에 이미 흑룡강성의 황무지대로 옮겨졌다.
정부는 이 황량한 지역에서 도망해야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이 지방에 다려왔다.
수용소에서는 월 15킬로의 곡물과 소량의 야채를 줄뿐이고 고기는 전연 주지 않고 있다.
위생 의료시설은 원시적이고 만약 죄수가 병이 걸리더라도 노동시간 중에는 실내에 있는 것 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동물보다 못한 조건 아래서 살고 있다.
내가 중·소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안 것은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고서였다.
그는 공안부대가 만주리 근처의 국경경비의 임무를 맡으려고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나는 네가 나 이상으로 이 훈련과 새로운 임무의 이유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라고 써 보냈다.
중공 당국자는 소련인이 이 지역의 피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파괴활동, 정보활동을 위하여 이용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차무스」의 공안부대가 국경경비의 임무에 들어간 것은 처음 시작된 일이다.
1960년 초에 나는 북경에 가서 공안부에 출두하라고 부대에서 선출된 3명의 사관 중 한사람으로 뽑혔다.
대사관의 공안관으로서 해외에 파견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당시 나는 왜 내가 이 특별훈련을 받기 위해 선발되었는지

를 몰랐었지만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외교부는 공안부에 대해서 대사관 특히 중립국과 자본주의 국가의 대사관에 파견할 공안관을 공급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첫째로 공산당원 이어야 할 것.
둘째로 가족이 적어도 삼대빈농이어야 할 것.
셋째로 국외사람과 여하한 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중국이외의 아무와도 서신교환 사실이 없었던 자. 넷째로 경력에 징벌이 없고 정치적인 과오의 징후가 없는 자. 학교에서는 정치상의 훈련 즉 『공산주의체제의 우위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외국에 있어서 대사관의 건물과 관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지시가 주어졌다.
나는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1960년 10월 24일 스톡호름에 도착하여 스웨덴주재 중공대사관의 서기관 겸 공안관이 되었다.

인민공사운동으로 반성

이렇게 해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인 나는 중국 공산주의정권에서 교육을 받고 외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제도를 박찼으며, 또 중앙정권하의 10년의 경험이 왜 나에게 공산주의제도가 중국 국민을 기르는 데 실패했다고 확신하게 하였나를 말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국외로 나오기 전 특히 모택동이 전국민에게 인민공사를 만들라고 명하고 대약진을 기도했을 때라고 생각된다. 즉 1958년 초부터 정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사실인즉 나는 공안부의 한 간부로서 언제나 노동자나 농민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뭣인가 자문자답하기 시작했으며 중국국민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실제에 있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 죄악과 싸우고 세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지배하의 중국의 비참한 현상을 고하는 길을 택하였다.
나 자신이 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 그리고 스웨덴에 돌아온 우인들에게서 중국의 상황을 들은 것 등에 의해서 공산주의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되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식량부족의 원인이 천재였다고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물고기 조차 손에 넣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대륙이 가뭄과 수해로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중국전토에서는 개가 자취를 감추었다.
고기에 허기증이 난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했다. 왜 천재가 원인이 되어 중국만이 심한 부족이 생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근처의 지역 즉 일본과 대만에서는 그 정도까지 부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부족의 증거

내 고향은 예전부터 식량의 주산지였다.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기아나 재해에 시달린 일은 전연 없었다.

우리는 빈한한 농민계급이었지만 예전에는 배를 골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은 뒤로는 우리가족은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모에는 돼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이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이래 우리 가족은 십년동안 돼지 한 마리도 잡은 일이 없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형은 전보다 오래 일을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식량은 예전보다 적다.
스웨덴에서 우리들은 중공의 사정이 이것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는 증거를 종종 발견했다.
1961년 여름에 동원천대사 부처가 휴가로 귀국했다. 대사관원이 식량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대사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출발했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8킬로의 밀가루와 스웨덴에서 산 의복 신 옷감 등을 갖고 갔다.
대사관의 요리인이 1961년 여름에 남창에 있는 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다섯 아이가 굶주리고 있다고 전해 왔다.
요리인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울었으며 그는 자기가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사관의 운전수 한명도 같은 시기에 국제우편으로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으며 이것 역시 식량부족을 전하고 도와 달라고 적어왔다.
대사관의『도움』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개봉해서 운전수가 국제우편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고 질책하는 것이었다.
나의 동료 한사람은 귀국해서 체중이 20파운드나 줄었다. 그는 식량을 입수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한 고기가 요리 속에 들어 있어도 고기요리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사나이도 갓 결혼한 신부에게 거울을 사주려고 두 시간이나 줄을 섰었지만 결국 전부 품절이 되어서 못 사고 말았다.
그 외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사관원이 50명에서 23명으로 감원되고 또 봉급이 반으로 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우리 이름으로 본국에서 은행에 예금되었다.

자유 없는 것을 외국에서 알았다

이 나는 특히 스웨덴에 와서 중공의 헌법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에는 절대로 어떠한 자유도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나는 스웨덴에서 중국공산당의 선전이 허위이고 스웨덴의 노동자는 훌륭한 음식과 의복을 입고 있을 뿐 더러 원한다면 정부를 갈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따금 밤중에 눈을 뜬 채 누워 우리들이 중국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몇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못하나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자유로이 얘기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며 직장이나 집을 바꿀 수도 없으며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침내 중국공산주의자가 일체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국민을 신뢰하지 않고 실제로는 중국국민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
동대사는 62년 6월에 대사관원에게 중공외교부에서 보내온 중국과 대만의 현상을 논한 문서의 내용을 설명 했었다. 이 문서는 6월 23일에 발생한 대만정세에 관한 중공의 성명에 관해서 대사관에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들 전원에 대하여 외국의 반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이 설명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기억에 새로운 것은 만일 자유중국의 군대가 인도와 같은 다른 군대와 같이 공격해 온다면 중공은 극히 중대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표명된 것이다. 만일 국민이 정치정세의 악화에서 야기되는 경제상의 곤경 때문에 자유중국의 군대의 공격에 호응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사는 중공의 절대적인 경제사정을 논하면서 1962년 초에 많은 난민이 홍콩으로 도망한 것은 정부에 큰 위협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는 최선책은 장개석 정부의 부패에 관한 국내 선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정부에 관한 중앙정부의 성명이 발표된 후에 소련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위원회의 의도는 이것은 단순한 선전에 불과하며 소련이 실제로 군사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위원회라는 것은 대사, 참사관, 상무참사관 및 무관으로 구성된 대사관의 고위층이다.

도망을 결심하기까지

벌써 오래전 부터 우리들 대사관 사람들은 중공정부와 소련과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사관 사람들이 흐루시쵸프를 늙은 민대머리라 부르고 그를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이 1961년 10월에 알바니아와 단교한 후 부터였다. 대사관의 간부관원인 대사부인이 장인 내가 속하고 있는 구룹에서는 흐루시쵸프는 5개의 틀린 행동을 취하였다고 비난되었다. 그것은 알바니아와 공공연하게 단교한 것 티토에 접근한 것, UN에서 구두를 테이블에 난타하면서 공산주의의 품위을 해친 것, 스타린의 유체를 옮겨 경의의 결여를 표시한 것, 그리고 사위인 아랙세이·아쥬배이를 파견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회견케 하여 이것으로 미국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위의 평판을 높이 하려 했다는 다섯 가지 일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공산주의와 외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을 계속하겠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나는 더욱 더 대사관의 전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손을 들고 말았다. 우리들은 교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는 어디에 얼마동안 가는 것인가를 소정의 용지에 써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무시간 중일지라도 한사람의 관원이 반드시 동행되었으며 대사, 참사관,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극소수의 관원만이 단독외출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사는 몇 주일 전에 국제정세의 악화 때문에 항상 전원에 대하여 동행제를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내가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홀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하였다.
내가 빨리 어떤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여기에서 도망 얘기가 시작된다.
작년 여름, 나는 자유를 생각하며 밤새껏 자지도 않고 일어나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미명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대사관을 빠져 나왔다.
내가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검은 클라이스러를 몰고 스톡크호름 교외까지 와서 차를 버리고 또 한번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도망하여야 한다는 굳은 결심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도망할 것인가 가 문제였다. 나는 숲 사이를 수마일 걷고 전차로 여기저기를 갔으며 결국에는 「세데루다에」정차장에 다달 았다.
친절한 역원이 아침까지 나를 대합실에서 자게 해 주었다.
다음날 나는 덴마크행 열차에 몸을 싣고 그 후에는 터벅터벅 걷든지 친절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면서 마침내 대륙에 다달았다. 대륙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나는 마음을 놓았으며 미국부국에 연락했다. 미국부국은 호의를 갖고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은 나의 성의를 파악한 후에 나의 정치적 망명에 도와줄 것에 동의했다. 나는 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지금의 심경은 아직 꿈속에 있는 기분이며 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막연할 뿐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행복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다.

(P73에서)
그 결과 제법 걸을 수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 앞에 내 세워놓고 아이의 걸음마를 은근히 자랑할 것이다. 자랑을 하면서도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여 마음을 조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대장은 사병과의 관계에서 중대장보다. 멀고 중대장은 구대장(또는 책임장교)보다 멀고 구대 장은 반장보다 먼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내무반장은 누구보다도 반원들과 가장 가까운데서 반원을 지도하게 됨으로 그 지도의 고충이 더 클 것임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훌륭한 내무반장은 이런 고충을 불평하기에 앞서 일과 중 반원들의 근무처를 순방하여 그들의 집무군기를 감독 내지 파악할 수 있는 성의를 가진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반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관심의 발로일 뿐이다.
흔히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하여 양친 중 아버지를 엄하다고 하고 어머니를 자애롭다고 하는데 우리 군대의 일과중 소속 부대의 지휘관을 엄부에 비유한다면 일과후의 내무반장은 자모의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어머니 슬하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자식이 나와 만인이 우러러 보는 모범적 인물이 되듯이 훌륭한 내무반장의 지도하에 육성된 내무반원이 훌륭한 군인이 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인 것이다.

포위망을 뚫고
북한 애국동포는 나를 살렸다. ⑤

이준수
〈공군문관〉

새 진지에 도착
괴뢰군 옆에 바싹 붙어 앉은 유격대원들은 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소리도 내지 않고 4명의 괴뢰군을 힘들지 않게 긴 잠을 재웠다.
얼마 후 자동차는 헤드라이트를 끄며 정지했다. 뛰어내린 운전수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동지들은 노획한 물건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차에서 내리시요』하고 소리친다. 우리들은 살이 든 몇 개의 전대와 괴뢰군복을 가지고 차에서 뛰어 내려 옆에 섰다. 운전수는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대를 낭 떨어지 쪽으로 돌려놓고 차에 서 뛰어내렸다. 언덕을 내려가던 차는 뒤에서 미는 힘과 아래로 구르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낭떨어지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 낭떨어지(절벽)로 떨어지는 차위에는 긴 잠이 든 4명의 괴뢰군과 놈들의 군수품이 적재되어 있다.
잠시 후 차는 큰 소리를 내며 몇번 뒹굴다가 바퀴를 하늘 쪽으로 향하고 길게 눕고 말았다.
우리는 준비한 물건을 가지고 산악에 있는 우리들의 주둔지를 찾아 올라간다. 선두에선 지형 정찰대원은 부엉이 눈을 가졌는지 어두운 길을 동내서 마을 다니는 길처럼 찾아 갔다. 우리가 새로 도착한 주둔지에서 이미 수차에 걸친 작전에 성공하였고 또 낙하산 공수보급을 두 번이나 받은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출동하여 괴뢰군의 주둔지 또는 놈들이 이동하는 것을 간단없이 습격한 것이다. 습격을 받은 놈들은 우리들의 약점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놈들은 계획된 시간 내에 전선을 향해 이동해야만 했고 그렇다고 후방보급로를 교란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새로운 정보

우리들의 보급로와 무장의 출처 및 우리의 병력 주둔지를 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놈들이 유격군을 가장 하고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산으로 들어와 우리들처럼 동굴을 파고 주둔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전투 경험이 많은 빨치산 또는 내무서원과 정치보위 부원들이 이미 입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하시라도 놈들을 맞아 산악에서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한 정보가 입수 된 후 5일간은 일체 작전을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우리들이 주둔한 근방에 월북자로 조직된 토벌대가 주둔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대로 우리를 토벌하러 출동하리라는 정보가 들어와 이 통을 중지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 한 우리들은 놈들을 먼저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놈들이 이곳을 토벌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우느냐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주간 행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놈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놈들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놈들의 병력이 대대병력이라고 하지만 놈들이 몰려오는 떼를 먼저 발견만 하면 우리의 소대병력으로서도 문제 될 것이 거의 어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놈들이 올라올만한 곳에 지뢰를 매설했다.

놈들이 우리를 대낮에 토벌한다 해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산악을 옷에서 이 잡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토벌하려면 놈들도 수많이 발생할 희생자를 미리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인지 활 뽕 는 놈들이 주둔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 식량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았다.

격퇴 신호

바로 그 이튿날이다.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산정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놈들이 기어 올라와서 산등성을 타고 휘-돌아서는 넓은 간으로 짐승을 만나지 못한 포수며 모양으로 내려가 버렸다. 우리는 전원 숨어서 놈들의 행동을 살필 뿐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놈들이 집단으로 올라오는 산 밑에 지뢰를 매장하고 그 추위에 병력을 배치해 놓았다. 이튿 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우리가 예정한 곳에 놈들이 나타났다. 나는 놈들을 본 순간부터 없애버리고 싶은 생 각 뿐이다. 잠시 후에 놈들은 지뢰가 매설된 곳까지 닦아왔다. 그때다. 유격대장의 신호가 들렸다. 나는 놈들을 향해서 연방 탄창을 갈아 끼우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놈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놈들이 뛰어 가는 곳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지뢰가 터지기 시작했다. 지뢰가 터질 때 마다 놈들은 흉하게 이즈러졌다. 놈들은 흩어져 도망하기 시작 했다. 흩어져 도망가는 놈들을 향해 격발하는 반동은 나에게 큰 쾌감을 주었다. 격발하는 충격이 어깨에 전해질 때마다 상쾌한 고통이 폭음과 더불어 자릿하게 전신에 파고들었다. 격발을 시킬 때마다 총신과 놈들이 동시에 높이 올라갔다는 떨어지는 것 같다. 탄창에 든 탄환이 떨어지자 격발은 중지되었다. 나의 귀는 조용하나 멀리서 지뢰터지는 소리는 요란하다. 놈들이 가는 곳마다 터 저라! 나는 탄창을 갈아 끼우고 유격대장의 후퇴신호를 기다렸다. 잠 시 후 3발 4발 연발로 들여오는 총 소리 신호에 맞추어 포복을 하기 시작하여 그 곳을 이탈한 후 우리들이 주둔한 곳에 올라왔다.

유격대장은 모여든 전우들에게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 각 조별로 은폐소를 찾아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숨어 있으라」하였다. 나는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반격 해 올지 모르는 놈들을 기다렸다. 놈들은 오지 않았다.

포로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무사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 곳보다 는 좀 안전하겠다 생각되는 곳에서 며칠을 무사히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들이 주둔한 장소로 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다. 「저 곳도 우리 대원들의 있는 곳인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우리 대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며, 만약 우리 동지들이면 위험한 정세하에서 이른 아침에 뻐젓이 연기를 낼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나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유격대장에 연락을 했다. 유격대장은 나와 몇 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그 곳을 확인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멀리서 부터 연기 나는 곳을 포위하고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 보았다. 나의 눈 안에 든 3명은 아군(국군)이 입는 작업복과 사지 또는 세타까지 입고 있다. 우리는 사격을 하지 않고 일제히 들어가며 밥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총을 들이댔다. 그들은 손을 들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며,『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그러자 유격대장은 조그마한 소리로『동무들 무엇 때문에 이 곳에 와 있는 거요.』 말도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얼굴색은 샛노랗게 변해 가기 시작했다.

『 동무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나는 앞에 서 있는 놈의 배를 청구로 찌르면서 물었다. 그들은 당황해서 한 마디의 말도 못하고 여기 저기 사방을 살피기만 하였다. 그러자 한 대원이 그들 앞으로 나가면서.

『 우리는 인민군 905부대에 소속하고 있소. 그런데 듣자하니 이 산에 테로들이 많다 하여 토벌을 올라 왔오 그런데 당신들은?』그러자 유격 대장의 입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내무서원들에게 테러행위를 했지』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는 떨리는 말이 굳게 나왔다.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바른 편에는 1정의 칼빙총과 2정의 M1총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이것 봐라 너희 놈들이 입은 복장과 무기는 틀림없이 국방군 테러들 것이다.』내가 한발 다가서며 말했다. 그러자 유격대장은

『동무들 어서 저 테러들을 묶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유격대장은 그들에게 우리가 인민군이라는 행세를 하기 위해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이다. 깊은 산중에서 산울림이 온다 해도 그리 번저 나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놈들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문을 해 보니 유격군을 가장한 괴뢰 빨치산에 틀림없었다.

놈들은 우리의 병력 및 무장 식량의 출처를 탐지하기 위하여 가장한 것이며, 우리들을 도와주는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국군복장으로 가장하고 서해지구에 침투한 유격군 행세를 해 보려든 참이었다. 우리가 이 곳에 주둔한 것을 놈들이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곳을 또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밤중으로 제2의 집결지로 갈 것을 결정했다. 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주둔지를 알고 정보원을 투입 시키었을까?

-산세가 험하니까 앞으로 유격대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지 않으면-우리의 병력을 확인한 다음 우리를 습격하기위해서?- 잇달은 의문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방정보원으로

부터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놈들은 계속해서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괴뢰 정규군의 지원까지 이미 요청했다는 것이다.

적의 포위망

그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 약실안에 들었던 총알을 빼고는 옆에서 자는 친구에게 일어나라고 몸을 흔들었다. 순간 머리위에서 갑자기 고막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콩 볶듯 하는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무수한 총알이 엇갈리는 억류 속에서 나는 방향을 잃고 뛰었다. 모두 어디로 갔는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깨워서 일어난 전우도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낙오된 채 밝아가는 아침 눈 속에서 위치마저 잊어 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정의 권총과 1정의 따발총을 가지고 나무가 무성한 비탈길 사이의 깊은 도랑에 몸을 숨겼다.

총소리는 따라 오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놈들이 있는지 더 심하게 머리위로 발밑으로, 뽕-하면서 푸륵푸륵 옆에 마구 박혔다. 발을 전후좌우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분간할 수도 없다.

흩어졌던 유격군들도 대항을 했으나 워낙 많은 괴뢰정규군을 물리치기는 곤란하였다. 잠시 후에 놈들은 후퇴하는 아군에게 박격포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박격포탄을 피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서「어느 놈이고 가까이 오기만 해 봐라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테니.....」하는 결심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생각을 고쳤다. 적군하나 죽이고 나하나 죽는 것은 나의 살 값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서 할일이 많은 사람이다. 첫째로 나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맞나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대로 여기서 가슴에 훈장하나 달아보지 못한 채 적군 한명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꾸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은폐소를 옮기려 할 때에 포탄이 또 터진다. 내 등위에 포탄만 떨어지지 말고 한 놈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라는 생각에서 나는 주위를 살피었다. 살 값이나 하기에는 문제없는 지역이 다 나무가 울창하여 하늘이 안 보이며 그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였다. 청색만 없어진 일년초가 무성하여 있으니 내가 적을 먼저 발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곳으로 총을 겨누고 바위밑에 엎드렸다. 부근에 산재해 있던 유격군들도 총소리를 듣고 산정으로 모여 반격하기 시작했다.

무질서한 총성들 때문에 적을 우리가 포위했는지 우리가 적에게 포위 되었는지 지금의 몽롱한 정신으로써는 알 수가 없었다. 당황해 하는 것은 놈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서로 두르고 감은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복장의 유격군을 무엇으로 분별할런지 당황한 괴뢰군들은 직사포로 맹공격을 가한다. 그러나 직사포는 그리 겁나지 않는다. 은폐된 곳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격포는 어느 곳에 떨어질 런지 어디서 쓰는지 방향도 잘 모르는 무서운 무기다. 얼마 후에 양쪽에서는 사격을 중지하고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모양으로 조용했다. 이 때다 자리를 이동 하려고 몸을 일으켜 서너 발자국 뛰는데 머리위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난다. 나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은폐된 곳에 엎드렸다. 적군은 틀림없이 나의 위치를 알고 있다. 어떻게 이 곳을 빠져 나갈 것인가? 내 앞에는 가파른 산이요 양쪽에는 놈들이 모여들며 집중사격을 하고 있다. 나는 엎드린 채 팔을 들어 이마에 쏟아지는 기름같은 땀을 씻으며 생각했다. 도망치자면 산옆을 끼고 달아나는 길 밖에는 없다. 놈들은 내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자 혈안이 되어 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잠시도 긴장을 거두지 않고 어느 한 모퉁이를 뚫고 나갈 길을 찾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오늘 중으로 제2의 집결지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몸을 일으켜 제2의 집결지 방향으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적군은 나에게 총을 조준하여 놓았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발사한다. 나는 나무가 무성한 비탈진 곳까지 뛰어가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 보니 깊이 파진 바위돌 밑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놈들이 맹열히 사격을 하고 있을 때 들었던 총을 그 곳으로 내동댕이치며 총에 맞아 쓰러지는 듯 팔을 높이 들고 낙엽이 쌓인 구렁텅 이에 떨어졌다. 사격은 중지됐다. 잠시 후에 박격포탄 하나가 5-6미터 밖에서 터졌다. 때를 놓칠세라 나 그는 몸을 날세게 돌려 한 바퀴 구른 다음 다시 일어서서 또 뛰기 시작했다.

밤에 내린 눈이 녹아서 질벅질벅 마구 미끄러지는 산등성이를 기어 올라갔다. 산등에 가서는 잘 은폐된 좋은 지형에 몸을 숨기고 엎드렸다. 비로서 나는 긴 한숨을 쉬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한발의 총성도 나지 않았다.

부상

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앞을 헤치며 집결지를 향해 나아갔다. 순간 몸을 누가 집어 던지는 것 같은 충격과 동시에 꽝 하는 소리를 들으며 엎드러졌다. 박격포였다 나는 다시 일어나

방향도 모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어두운 산골짜기로 뛰었다. 도중 몸에서는 땀이 나는지 측근 측근한 감을 느끼었다.

나는 어둠속에서 뛰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옆구리를 만져보았다. 순간 상상치도 않던 아픔을 옆구리에 느끼게 되었고 온몸이 녹아 버리는 것 같았다. 옆구리를 움켜쥐니 총알에 맞아 늘어진 살덩이가 한주먹 잡히었다. 그래도 나는 달아난 옆구리를 움켜쥐고 산등성이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다. 마음의 충격인지 정신적인 충격인지 또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인지 그 때의 심정으로서는 분간할 수 가 없었다. 주저앉아 있다가는 엎드려 있다가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이 세상에서 살아지는 최후라고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총을 다시 잡아 움켜쥐고 생각했다.-지금 이 고통의 연장은 살면 살수록 연장될 것이다. 이 쓰라린 고통을 연장 시키지 말고 이것으로.....-

총탄을 장진하려고 하는데 약실에 들었던 총알이 밖으로 뛰어 나왔다. 적과 싸울 적에 장진되어 있던 것이다. 이 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았다. 앞에 보이는 저 큰 산등성이를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는 가자! 저 산등성이만 넘으면 전우들이 있는 집결지가 닥칠 것이다.

나는 상처를 움켜쥐어 가며 총을 어깨에 매달고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다. 집결지에만 가면 전우들 을 만날 수 있다. 또 총에 맞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지친 나의 몸을 밀어주었다. 엎드러지며 한 발자국 기어 올라가다가는 다시 두 발자국 미끄러져 내려오는 안타까운 지경에서 버둥댔다. 나는 죽어도 전우들을 만나서 전우들 앞에서 죽어야한다. 죽어서도 이 비참한 시체를 놈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서 가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도 까마귀 밥이 되고 흙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슬같이 없어질 나의 체구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초조해 오는 것 같았다. 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나의 상처는 대단치 않다. 문제없이 집결지까지는 갈수 있다. 그 곳보다도 더 멀리 갈수 있다. 몸이 괴로울 적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나 혼자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신념만은 버리지 않고 한 발자국 두발자국 기어 올라갔다.

왜 그런지 지금은 더 무시무시하다. 아군과 적군은 어디 있는지 한발의 총성도 나지 않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끝내 손바닥을 의지하고 기어 올라가니 손바닥이 찢어지고, 얼굴마저 붉은 피와 땀이 흘러나올 때에야 비로서 능선을 타고 앉았다.

전우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약 집결지까지 가서도 없으면? 나는 전우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 야 내가 살수있다는 생각이 축 늘어진 나의 몸을 일으켰다. 흔들리는 몸을 가누어 가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앞에 절벽이 닥쳤다. 나는 절벽을 내려가려고 늘어진 나무가지를 잡고 그 아래를 디디려다가 헛발질을 하고 부러지는 나무가지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소련의 공포정치 ②

<비밀경찰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A. 그리고레프

비밀경찰의 정보원

1. 첩보원

소련 공산치하에서는 어떤 사람이던 다 소련형법 제58조 1C항 58조 1D항 및 58조 12항의 법율 근거에 의해서 정치적 첩보자가 되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들 형법에서는 소위 「반역」 또는 「반혁명적 범죄」의 통보를 게을리 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까지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에서 정치적 첩보는 고상한 행위로 되어 있으며 첩보자는 영웅으로 떠받든다. 그것의 전형적인 예는 파브리크·모로조프와 같은 경우인데 이 아이는 자기 부모를 고발한 공으로 소련 신문이 영웅이라고 떠들어 대었다.

또한 모스코바의 이른바 재살의사사건을 고발한 여의사 마리아·티마슈크는 그의 소위 영웅적 행위로 해서 레닌훈장을 탈뻔 하였는데 재수 없게도 1953년 4월에 공산당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석방되고 티마슈크는 그 덕분에 훈장도 타지 못하였다.

첩보를 장려하기 위한 선전은 잡지나 신문에서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한 첩보원은 소위 「경계심」을 과시함으로서 비밀경찰의 보호를 받고 그 덕분에 어떤 좋은 지위를 획득해 보려는 이른바 「활동가」라는 작자들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공공아파트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첩보가 그 방을 탐내는 이웃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에카테리나·세루게바라는 여자는 레닌그라드에 살면서 유명한 첩보원이 되어서 그네들이 말하는 이른바 왕성한 「시민활동」으로 여 러번 표창을 받은 사람인데 1934년에 Z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Z가 가지고 있는 여권에 오기가 있음을 인지하고 재빨리 그를 반동분자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Z가 NKVD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우연하게도 누가 첩보 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1936년에 남편과 자식이 NKVD에 끌려간 K라는 여자는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이웃사람의 밀고로 소위 반혁명선전을 하였다는 죄로 체포되어 덮어 놓고 조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3년 동안을 갇힌 예도 있다.

1943년 3월에 하루코프지방이 소련에게 주된 다음 거리마다 빨안 빛갈의 함이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는 「NKVD에의 통신용」이라는 글이 써 있었고 누구던지 「독일에 협력한」 사람에 관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독일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심부름 한 일까지 협력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전후에 걸쳐 소련 정치경찰은 첩보원들로 부터 통보를 받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NKVD의 저 유명한 「중앙 카드식 색인」이 모스코바에서 우파로 옮겨 저 지하실에 처박아 둔 채 당분간 그것을 써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독일에게 점령된 지역의 지방 카드색인은 철퇴할 때 체키스트들이 없애 버리고 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 점령지역에 남아있 던 사람들은 소련공산정권이 자신들의 소위 반역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이들끼리 서로 반역자라고 고발하는 것으로서 호신책을 삼었다. 따라서 비밀경찰은 정보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2. 특무부

산업기관이나 공장이나 사무소 같은 속에 있는 비밀경찰의 조직 즉 특무부의 제도와 기능에 관해서는 다른데 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믿고 필자는 여기서 그것이 비밀경찰의 정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만 달하고저 한다. 이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며 특히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을 폭로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취직을 할 경우에 써 내는 신상조사 서에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련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다. 공산혁명 초기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전의 특권 계급이라던가 백계군을 비롯해서 여러 잡다한 민족 군 및 그러한 집단이나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적색 혁명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비공산주의 정당의 당원 및 반공폭동 가담자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외에 유형지 또는 강제수용소에서 도망친 사람, 형무소에서 복역한 전과자 및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공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추가되었다.

집단화 운동의 개시에 따라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였다. 그 가운데는 부농을 숙청할 때 도망친 농부라던가 정해진 거주지에서 도망간 소위 특별이주민 그리고 비밀경찰이 자기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대전 후에는 독일이 점령하였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포로가 되었 었던 사람 거기다 이른바 「히.뷔」(독일군에 협력한 자)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은 더욱 더 많이 늘어났다.

소련 관료기강에서는 스피드라는 것은 결코 특색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직장에서 새로 채용한 사람에 관해서 특무부에 조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회답을 얻기까지 적어도 3·4개월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신원을 속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통지가 와서 진상이 들어나기 전에 주소나 근무처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부동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지게 된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소련 공산정권은 노동자나 고용인을 특정한 기관에 부속시킴으로서 이 소위 「부동」과 투쟁할 것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감독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버리는 것은 범죄가 되며 여권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함께 경찰의 등록제도는 사람들의 주거변경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되었으며 더 지독한 대책으로서는 장거리도 승차권은 공용여행 증명서나 특별한 허가가 없는 자에게는 파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은 날로 증가하는 소위 인민의 적을 NKVD가 감시하는데 있어 상당히 쓸모가 있는 것이었다.

3. 공산당원

공산당의 여러 기관은 비밀경찰과 항상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원중에서 만약 비행이라던가 비공산주의적 언동을 눈치채면 즉시 이것을 통보하였다. 이것은『모든 공산주의자는 체키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레닌의 말을 기본원칙으로 한 것이다. 공산당의 여러 기관은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의 소위 정치적 양심상태까지도 감시하도록 요구되었다. 1939년에 열렸던 제18회 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의 사회주의적 지능을 강화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원조하여 인민의 적을 멸망시키고 근절시키는 것은..... 당의 임무다』

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특무부의 일을 맡긴다던가 때로는 비밀경찰의 주재관을 겸임시키던지 하는 경우가 집단농장 같은 데서는 열차로 되어있다. 만약 당기관이 소위 「인민의 적」의 활동에 관해서 비밀 경찰에게 통보를 게을리 한다면 그 책임자와 기관은 즉시『경계심의 결여』로 고발되어 적당한 조직적 결론이 내려진다. 그뿐 아니라 공산당원은 당의 규칙과 그들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동료와 일반 민중의 감독자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공산당 안에 소련 첩보망은 공포와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첩보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해서 비밀경찰이 당 밑에 있다던가, 또는 그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당이나 비밀경찰이나 다 같이 클레드린 공산독재자에게 엄중히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몰 음지기 경찰기관이 독재자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한다거나 독립된 세력으로서 행동하려고 하였다면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매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4. 신문

소련의 모든 신문-(국영)은 소위 「활동가」에 속하는 독자 가운데서 노동자 통신원, 또는 촌락 통신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들의 임무는 계획의 성취나 좌절, 또는 미수, 사회주의적 재산의 횡령, 반혁명선동, 태업, 당 또는 정부지도층의 소위 반동분자와의 접촉 등의 사건을 신문에 통보하는 것이다.

신문에 통보된 이런 종류의 편지는 이른바 「시민활동」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대부분은 단순한 비난공격으로서 특히 숙련당원이 편집실 안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자기들에게 흥미가 있을 것 같은 것을 비밀경찰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소련 신문에는 게으른 자나 건달패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란이 마련되어 있다. 1940년 6월 26일부 소련 최고상임위원회의 포고와 1940년 8월 21일부 인민위원회의 포고에 의해서 근무 중 20분 이상 직장을 떠난 자는 범죄자로 취급되며 그 사업의 감독자는 이러한 범죄자를 모두 법정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책임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 자신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감독자가 단순한 친절심에서 고용인이나 노동자들의 앞에서 말한 정도의 태업을 감추려는 기색이 보이면 소위 노동자통신은 이러한 것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문에 즉각 통보한다. 감독자가 다소간이라도 그와 같은 범죄를 감춘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법정이 아니고 비밀경찰이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문학평론가의 일도 소련 신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련의 문학을 꼼꼼히 추구하여 검열이 누락한 소위 반혁명적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평론가의 책임이며, 작가나 시인을 비밀경찰이 고 발할 때 이러한 경향에 대한 평론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5. 우편물 검열

우편물의 검열은 정보국(INFO)의 책임인데 이들은 모든 소련 우편전보국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 정보국 직원들의 일이란 모든 편지를 모조리 뜯어서 읽어 볼 뿐 아니라 국외로 부터 오는 통신이나 비밀경찰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찰인에 보내는 편지를 전부 조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편물을 검열하다가 흥미가 있는 부분은 발췌를 하는데 만약 편지의 전문이 특히 흥미의 대상이 될 때에는 사진 공장에 돌려서 복사를 하며, 암호 같은 것으로 문장을 은폐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편지는 특별국(SPEXO)에서 파견된 전문 기술자에게 보여서 감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밀경찰의 검열이 끝난 편지는 보통 얼마동안 지체되지만 배달은 된다. 그리고 검열할 때 발췌한 자료는 전부 정보국에서 적당한 비밀경찰기관에 돌려져서 거기서 서류에 기록된다. 그렇게 되면 의심스러운 편지를 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기와 서신왕래가 있는 자는 때때로 비밀경찰에 불려가서 편지에 무엇을 쓰라고 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6. 비밀 통보원

소련 민중의 소위 「정치적 양심」상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의 하나는 비밀 통보원(S.O로 약칭)이다. 비밀경찰의 행동위원들은 모두 자기의 S.O를 몇 사람씩 두어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 (그밖에 특무부나 특별주재 원들도 저마다 비밀 통보원을 거느리고 있다.)

행동위원 다시 말하면 검찰관은 각 S.O의

개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화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1. 비밀경찰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일하며 이 일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명된 선서문.
2. 통보원의 사진
3. 통보원의 익명(모든 작업서류에 사용)
4. 통보원 개인 및 그 활동에 관한 자료-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인물을 형법 제 몇 조에 해당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다.
5. 통보원의 지인 전부의 리스트
6. 통보원의 보고서의 전카피
7. 통보원의 상벌의 명세
이와 같은 각통보원의 개인적 기술을 검찰관은 1년에 한번 씩 그들 상관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받은 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통보원의 보고를 모스코바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사람의 검찰관에게 종속된 비밀통보원의 수는 그들을 어떻게 유효하게 부려먹는가 하는 검찰관의 능력에 따라 좌우 된다. 대체로 비밀 통보원들의 질이 얻기 때문에 주로 그들 머리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밀통보원이 사건을 찾아냈을 때는 비밀경찰 활동망에서 숙련된 전문 직원이 반듯이 파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7. 증인
비밀경찰은 사건이 생기면 그의 임무로서 증인을 소환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건의 상황뿐 아니라 그의 친구, 동숙인들의 정치적 의견이나 도덕적 성격 같은 것도 질문하는데 이러한 공술이 비밀경찰의 정보원을 더욱 증대시켜 가는 것이다.

비밀통보원의 역할
1. 징모방법
인구에 비해서 방대한 수에 이르는 통보원은 소련의 행정이나 산업 중심지 또는 국경지구에서 징모되는데 공장이나 사업장, 학교 등의 비밀통보원의 수는 그 시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에 의해서 다르다. 그리고 많은 비밀 통보원 이 호텔, 레스토랑, 이발소,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징모되고 있다.
비밀경찰은 그 사람의 경력으로 미루어 소위 반동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비밀 통보원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는 소위 반혁명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말 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비밀경찰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물이 징모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근무지에 있는 특무부나 비밀경찰에 호출되어 자기의 생활양식, 하고 있는 일, 아는 사람, 친구 등에 대해서 잡담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특히 반공적 사상이라던가 그러한 대화를 들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이야기가 비밀경찰로서 흥미가 있으면 선례에 따라 그 사람은 소위「민중의 적에 대한 투쟁을 원조하는」일이 위촉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서 새로 뽑은 비밀통보원은 그 사람 자신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던 인물의 감시를 비밀경찰이 요구하며 그 실적으로 시험된 다음 비로소 어떠한 사건의 인물을 스파이 하도록 명령되는 것이다.
자진해서 어떤 사람을 비밀경찰에 고발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비밀통보원이 되도록 권유되며 무슨 사건의 증언을 위해서 비밀경찰에 호출된 증인이 검찰관 질문에 전부 대답을 하던지 하면 의례히 뽑히게 마련이다.
때로는 비밀경찰의 주재원을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주재원은 먼저 후보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사람이 비밀 통보원으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시험해 본다. 이와 같은 예비적인 테스트의 결과 그 사람이 유망하다고 인정되면 그는 비로소 자기가 비밀경찰 직원이며 비밀경찰은 당신을 사용해서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집단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비밀 통보원 후보자가 소련공산정권에 충실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또 는 급히 피의자의 뒤를 쫓게 할 필요가 있거나 비밀경찰로 호출해서 일반의 주의를 끄는 것이 난처하다고 생각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후보자가 당원이라면 비밀 통보원으로서 일하는 것은 당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 취급되며 후보자가 통보원이 될 것을 거절하던지 하면 비밀경찰은 충고에서 위협으로 전환하여 비밀경찰을 위해서 일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소위 반혁명적 경향의 증좌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협박 까지도 실패하면 이번에는 보다 더 가혹한 권력적 방법이 취해진다. 즉 비밀통보원의 징모계획이 실패로 도라 갔다는 것은 비밀경찰의 수법 외부에 누설시킨 것이 되어 그들에게는 중요한 실책으로 되기 때문이다. 비밀경찰이 반소적 사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더욱이 징모에 반항하였다고 인정되는 인물에게는 특수한 수단이 취해지는데 심사원은 후보자의 생활환경, 친구, 또는 반공적 담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때로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후보자가 용의주도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비밀통보원 앞에서는 정치적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거나 하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소위 반혁명적 회화를 들었다는 죄를 뒤집어 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희생자 가운데 꼭 써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밀경찰이 인정하면 그를 호출해서 경력이라던가. 지인의 세목을 상세히 질문하는 한편 검찰관은 그 사람에게 친구들에 관한 정치적 특성을 자세히 말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에게 위해로운 정보를 그 사람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 할 경우에 이번에는 후보자 자신의 반공적 회화가 수록된 서류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사람은 체포되어 형무소를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밀경찰의 끄나풀 노릇으로 속죄를 하던가, 둘 중에 어느 쪽 하나를 택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의 비밀경찰의 활동에 관해서는 몇 가지 실례가 있다.
1. 1932년 모스코바에 사는 M라는 청년은 자기의 소위 출신성분을 감춘 채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이 사실을 알아낸 비밀경찰은 그의 신분을 폭로시켜

학교에서 추방할 뿐 아니라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끝에 그를 비밀 통보원으로 만들었다.

2. 심페로폴 지방에 사는 K라는 소녀는 독일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독일 농장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이 적군에게 탈환되자 그녀는 체포되었다. NKVD의 검찰관은 그녀의 사건을 군사재판에 돌리면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형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파이로 일하겠느냐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성실히 일을 하지 않던지 하면 그녀의 모친을 잡아 가겠다고 위협하였다.

3. 키에프에 사는 K라는 의사는 포랜드로 이주한 친척과 서신 왕래도 있었고 때로는 소포를 부쳐 오기도 하였는데 1927년에 그는 체포되어 스파이 행위 및 외국단체와 접촉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과로 고발되었다. 비밀경찰은 그를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시킨 다음 비밀 통보원으로 일함으로서 소위 「소련공산정권에의 충성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강제로 비밀 통보원을 만들어 버렸다.

4. G라는 사람은 어려서 노부첼카스크 병학교를 다녔으며 국내전중 첼네쓰오프 휘하에서 백계군 유격대에 참가하였다가 반년 만에 전상을 입고 전쟁에는 나가 보지도 못하였다. 그 후 그는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되었으나 1937년에 비밀경찰은 그를 형법 제58조 13항으로 처벌 하겠다고 위협한 끝에 강제로 비밀통보원에 종사시켰다.

5. Z부인은 백계군 장교의 아내인데 남편은 192에0년 국외로 망명하고 그녀는 그대로 로스토프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소련 기관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끊임없는 숙청에 그녀도 걸려들어 소위 「백비」의 처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노동수첩에는 그러한 취지가 기록되었다. 그 후 그녀는 어디를 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굶어 죽게 된 그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게·페·우에 진정을 해 보라고 가리켜 주어 그녀는 그의 말대로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녀를 상당히 정중하고도 친절히 맞아 드려 직장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다음 「오랫동안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당신의 말도, 또한 당신이 우리의 동무라는 것도 신용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비밀경찰 일에 협력하여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6. 옛날 백계군 장교였던 S라는 사람은 그러한 경력을 감추고 벌목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드디어 체포되어 오랜 세월을 감옥생활을 한 끝에 비밀 통보원으로 일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비밀 통보원을 뽑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반듯이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로서 짐작할 수 있다.

7. B라는 도시에서 교구민 사이에 굉장히 명망 높은 신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비밀경찰에 호출되어 온갖 협박을 받아가며 비밀통보원이 될 것을 강요당하였다. NKVD는 드디어 1936년에 그의 집을 빼앗아 집 없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계속 위협 강권하였으나 완강히 불응하자 다음해에 체포된채 생사를 알 길이 없게 되었다.

8. 에레나라는 여자는 오뎃사에 있는 통조림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옛날 귀족신분을 감추느라고 여직공다운 말씨와 몸가짐을 갖기에 애를 썼다. 그러나 NKVD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내고 특무부로 호출해서 과거를 속인 죄에 관해서 오랜 시간을 취조한 끝에 비밀통보원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 그녀는 투옥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승낙하였더니 즉시 NKVD로 보내졌는데 여기서 검찰관은 그녀를 정식 통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고할 날짜를 지정 하였다. 집에 돌아온 에레나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를 곰곰히 생각한 끝에 바보 노릇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녀는 비밀경찰을 찾아갈 때마다 자기가 아는 사랑에 대한 보고자료를 산떼미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소위 「인민의 적」을 모조리 잡아내겠다고 떠들면서 아무것도 아닌 회화내용 따위를 인용하였으며 비밀경찰이 흥미를 느낄 만 한 것은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을 그녀에게 골탕을 먹은 비밀경찰은 그녀를 비밀통보원으로 만든 것은 잘못이었다고 깨닫고 이제는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보통은 비밀경찰이 일단 비밀통보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면 그 사람이 일 할 것에 동의하기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그리고 후보자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거나 일에 태만하던지 하면 으레 강제수용소로 가게 마련이다. 비밀 통보원으로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폭로하는데는 그 통보원이 감시하고 있는 요(要)시찰인에게 또 한 사람의 통보원을 딸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어떤 반혁명적 회화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회하도록 꾸며서 나중에 두 사람의 보고가 비교된다. 이때 만약 어느 한쪽 통보원의 보고가 소위 반혁명적인 말이나 행위를 감추고 있는 것이 들어난다면 굉장히 가혹한 행정적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1938년 노바야·지리앙카 격리수용소에서 필자는 소위 반혁명적 폭동을 계획하였다는 나와 똑같은 조작된 죄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P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그 옛날 로스토프의 목장주의 아들로서 대학에 다닐 때 옛날 신분이 밝혀져 학교에서 내쫓고 다음 어느 철도역에서 수하물 운반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는 간혹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였다 한다. 그 당시는 소위 집단화운동과 부농박멸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들은 이 정책에 공명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당의 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비밀경찰에 불려가서 그와 같은 회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 취조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야기한 내용에 있어서 소위 반혁명적인 것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검찰관은 그가 하였던 말을 모조리 인용함으로서 할 수 없이 그는 자백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검찰관은 그에게 기록문서에다 署名을 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네가 싸인한 것으로서 10년 감옥

생활은 틀림없을 것이다. 너의 친구들은 푸로레타리아트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되겠지만 너는 자본가의 아들이니 문제는 다르다. 그런데 구조될 방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너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나에게 늘 자세히 보고를 하면 말이다.」

이 말을 들은 P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형무소로 끌려갔는데 2주일 후에 다시 호출되어 똑같은 권유를 받았으나 역시 거절하자 이번에는 독방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한 달 좀 후에 또 다시 비밀경찰 부두목에게 끌려갔다. 부두목은 그를 세워놓고 「우리들의 일을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고 싶으냐」라고 을러대는 한편 몇 시간을 고문한 끝에 우도 배겨나지를 못해서 드디어 비밀경찰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그 후 P는 2주일 마다 검찰관을 찾아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그는 자기 집에서 있었던 회화 내용을 주의 깊게 메모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이와 같은 보고로 인연해서 사람들이 체포되어 가자 이 이상 통보원 노릇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보고서를 적당히 얼버무려 쓰기 시작 하였다. 처음에는 검찰관이 그러한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그의 보고에 엉터리가 많음을 깨달은 검찰관이 하루는 P가 가져온 서류를 그의 얼굴에 내던지면서 가진 욕설로 그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 P가 또다시 검찰관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심한 고문 끝에 감옥으로 끌려갔다. 감옥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집에서 있었던 회화 내용은 모조리 보고하였다고 여전히 주장하였으나 취조관은 거짓말 한다고 마구 때리면서 그의 집에서 주고받았던 소위 반혁명적 회화 몇 가지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P는 또다시 투옥되었으나 3개월 후에 석방되었다. 그것은 비밀경찰이 아무래도 그의 집에 눈독을 드려 저 이들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P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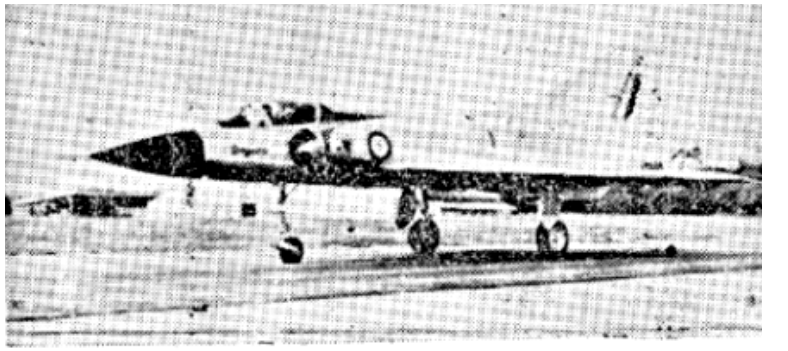
그는 절망 끝에 도망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먼 친척이 살고있는 어느 마을로 가 버렸다. 그러나 비밀경찰은 그곳까지 찾아내서 그는 체포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의 판결문에는 특히 중노동만을 시킨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렇지않으면?

「쇼」는 이웃 처녀의 결혼에 자작 각본책을 보냈다. 이 책을 받은 이웃 처녀는 부자인 「쇼」가 책만 보내주는데 실망했다.

처녀는 그 책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책 뒷 페이지에 금액이 상당한 수표 한장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수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당신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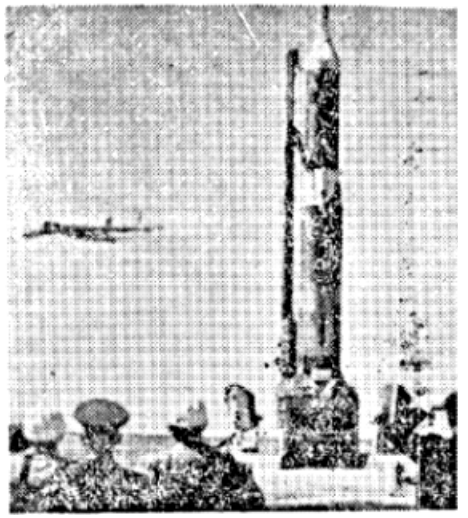
불란서 초음속 전투기 MIRAGE III

세계의 항공세력(하)

홍성표
〈공군소령〉

영국, 불란서 및 기타

동서양진영이 상호열전을 전개할 때 직접 미국에 가담하여 소련본토에 대한 전략공격을 가하는 것은 영국, 불란서와 기타국가로써 그의 공군력을 묵과할 수 없다. 영국의 전략세력을 보면 약 180대의 Vulcan 폭격기를 비롯하여 Victor 그리고 Valiant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폭격기는 모두 수 메가톤 급의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전략공군의 수개대대는 Vulcan B2와 Victor B2로 대체하고 있는데 Vulcan B2는 최대 속도가 시속 620리로 항속거리 4,000리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Victor B2의 최대속도는 Vulcan B2보다 약간 빠른 속도 650리나 반면 항속거리는 3,500리 남짓하게 비행할 수 있는데 이 2종류의 전략폭격기는 모두 미국의 ALBM인 Skybolt 공대지탄을 장비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생산중지를 함으로써 비록 Skybolt 보다 짧으나 약 600리의 사정을 가진 Blue-Steel 공대



미 전략공군소속의 ICBM Titan과 비행중의 B-52, 8발 제트폭격기

지탄도탄을 일부 장비하고 있다. 그 외에 Valiant는 공중급유기로 개조하여가는 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약 1OO대가 여러 가지 임무에 임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같이 전략용 중거리 탄도탄 Thor를 60발 보유하고 있는데 폭격사령부에 소속 되어 있던 것이 금년 들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년 시월 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다음 불란서공군을 들어보면 역시 대형전략폭격기는 없으나 경폭격기 Mirage Ⅳ를 자국에서 생산하여 전략공군사령부에 50대를 1965년까지 배치할 예정인데 이 MirageⅣ 경폭격기는 미국제인 12대의 공중급유기 KC-135의 지원하에 핵폭탄을 소련본토에 투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끝으로 미국육군에서 생산한 Jupiter 중거리탄도탄을 이태리에는 일개대대에 15발씩 장비한 2개 대대와 토이기에는 역시 일개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전반적 동서양진영에서 상호 영도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소련본토에 공격할 전략세력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측 동측
장거리탄도탄
(사정 2,000리 이상) 450~500개 약 100개
장거리 폭격기
(항속거리 5,00리 이상) 630대 200개
중거리 폭격
(항속거리기 2,000리 이상) 1,630대 1,400대
원자력잠수함 32척 12척
중거리탄도탄
(사정 700~2,000리) 250개 700개
재래식 잠수함 212척 445척
※재래식잠수함은 유도탄을 장비함으로 전략무기가 됨.

지금까지 논한 것은 적어도 자국에서 생산한 전략항공세력을 비롯하여 탄도탄을 보유한 나라로써 세계정세를 좌우하고 전 인류를 생존기로에 존폐를 택할 수 있는 위력이었기에 전반적인 전략무기까지 예거하였으나 앞으로 논할 소국가군은 아직까지 항공세력이 그의 국지전에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에 다만 항공력만을 취급하여 볼까 한다.

NATO (북대서양조약기강)

1949년 4월 4일 조인하고 그해 8월 24일에 효력을 본 NATO는 그의 가맹국이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으로 되어있으며 그의 목적은 가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를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국련헌장 제51조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즉후 각개로 또는 타 가맹국과 협동해서 북대서양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사용을 포함하여 그의 필요를 인정하는 행동에 해서 공격을 받은 나라를 원조하는 것이다.

또 그의 유효기간을 보면 이 조약은 20년 유효하며 발효해서 10년 후에는 재검토 때문에 협의하고 20년 후에는 조약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다.

항공력에 있어서는 벨기에는 총인원2만명에 항공기는 미공군의 F-100 전투폭격기 카나다식 화한 CF-100 2개 요격대대, Haunter-6 5개 대대, 미국제 F-84F 6개 전투폭격기대대를 포함하여 NATO에 파견된 2개 수송대대를 포함하여 400대의 각종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카나다는 총병력 52,500명에 NORAD에 소속된 CF-100과 완전히 대체된 66대를 가진 F-101 5개요격전투기대대와 구라파에 파견되던 12개전투기대대가 있는데 이 12개전투기대대가 63년까지는 8개 대대로 감축되면서 현재의 항공기 F-86F와 CF-100을 대체하여 200대의 CF-104를 배치할 것이다. 이 외에 4개 수송대대와 3개 Argus 대대와 1개 Neptune 대대계 40대의 4개 해안대대 등 각종항공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군은 총병력 7,500명에 각종항공기 500여 대중 200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모두 외국제로써 3개 F-100대대, 3개 F-86 연대 그리고 1개 Hunter 대대로 되어있다.

불란서는 앞서 전략 공군력만 취급하였지만 전공군력을 보면 총병력 13만 7천 명에 전략 공군을 제외한 제1전술 공군은 NATO군으로 서독에 75대 배치한 것을 포함하여 4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대수중에는

1961년부터 초음속전투기이며 불란서제 Mriage III초음속전투기 440대를 생산 대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미국제로써 F-84, F-86 그리고 F-100 전투폭격기이다.

그리고 본토내에 있는 방공군은 Super Mysere 십개 대대와 70대를 가진 Vautour IN 오개대대 끝으로 수송 사령부에 200대의 Noratlases를 보유한 것을 포함하여 총 항공기 대수중 미상이나 전투기만 1,OOO대가 된다.

서독은 십만명의 병력을 목표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팔만삼천명으로써 항공기는 칠개 전투기 및 전폭비행단, 일개정찰비행단 일개수송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투기는 미국제 F-84 및 F-86이 이태리제 G-91로 대체할 예정이며 현 항공기대수는 미상이나 전투기만은 400eo이며 65년까지 증강할 계획을 보면 삼개전투기 및 전폭비행단, 삼개정찰비행단 그리고 이개수송비행단으로 되어있다.

희랍공군은 총병력 22,000명으로써 항공기보유현황을 보면 약250대의 F-84, F-86 그리고 F-100인 데 이태리제 G-91이 1962년도에 취역하기 시작하였으며 F-104를 역시 구매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태리공군은 1963년까지 총병력 6만 명으로써 편성은 7개 공군여단며 이중 2개 여단은 F-84F와 F86 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1962년도부터 F-104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삼개전폭여단은 F-84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자국제인 G-91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미 2개 여단은 완료하였다. 총 항공기대수는 미상이나 전투기 400대, 전폭기 400대 그리고 수송기 180대로 되어 있다.

'네더랜드'공군은 총병력 20,000명으로써 16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9개전투기대대 H- unter와 미제 전천후전투기 F-86F로 장비하고 있으며 그에 6개 전폭대대는 F-84F로 장비하고 있고 1개 정찰대대는 RF-84F로 장비하고 있으면서 1963년부터는 F-104G로 대체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놀웨이'공군은 총병력 불과 1O,OOO명으로써 8개전술대대내에 140대의 F-86F와 F-86K로 장비하고 이 이외에 4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중 4개 대대는 1963년 초부터 F-104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폴츄칼'공군은 총병력 낙하산대원을 포함하여 12,500명으로써 2개 F-86F 전대와 1개 Neptune 대체기대대를 포함하여 350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터어키 공군'은 총병력 20,OOO명으로써 총 항공기 350대인데 이중에는 3개 F-100 전폭기대대, 3개 F-86 대대, 9개 F-84F 및 F-84G 대대 그리고 1개 C-47 수송비행단이 있는데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는 50~100대의 F-104를 구매할 예정이며 또 15대의 G-91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미국은 앞서 전략공군만은 역시 취급하였는데 총병력은 14만 5,000명으로써 전략세력을 제외하면 전투기사령부는 Lighting 초음속전투기(Mach 2.1) Javelin요격기에 Bloodhound 공대공유도탄을 장비하고 있으며 해외사령부는 약간의 Valiant 장거리중형폭격기(최대항총거리 4,500리) 외에 「싸이프러스」, 「아덴」 그리고 「싱가폴」에 Shackleton(4발 Prop 해상정찰폭격기) 해안정찰대대와 Chnberra, CB-57 원형, 폭격기 Javelin 요격기 그리고 Hunter 전투지상공격기(시속도 715 MPH)를 장비하고 있으며 수송사령부는 4발대형수송기만은 13대의 Britannia, 10대의 Comet, 20대의 Argosy, 48대의 Hastinc 그리고 32대의 Beverley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수송기는 거의 모두 16,00톤의 대물을 적재하드라도 1—500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425톤이면 4,000리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 5개의 Comet 와 36개의 Argosy를 주문하여 미국공군의 총 항공기대수 약 5,000대로 추산하고 있다.

Warsaw 조약기구

지금까지 NATO 가맹국의 세력을 보았는데 이와 대치되는 공산국의 동맹체인 Warsaw 가입국의 공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arsaw 조약은 NATO가 체결되어 발효를 본 6년 후인 1955년 5월 14일에 조인하여 그해 6월 5일에 발효를 보았는데 가맹국으로써 소련을 위시하여 동구공산위성국 등 8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이 조약의 목적은 「불가닌」 전수상이 55년 5월 25일에 언명한 바와 같이 서독의 재군비를 규정한 파리 협정에 대한 회답이며 서독이 참가한 NATO 침략에 대처한다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Warsaw 공군력은 총 항공기대수 약 3,000대로 보 고 있으며 이중 80%가 제트기인데 그 내역을 보면 (소련공군은 생략하기로 하고) 동독이 총병력 9,000명에 항공기대수는 2개비행사원에 약 370대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은 전투기로는 일설에는 MIG-21까지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 이외에 MIG-15BIS, MIG-17 이 있으며 Helicopter는 MI-4 그리고 수송기 IL-14P 와 AN-2 등이 있다.

「체코」공군은 총병력 35,000명으로써 共産衛星國 중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중의 하나로써 항공기대수는 약 1,000대를 헤아리고 있는데 전투기는 최우수기로는 MIG-21까지 보유하고 있다하며 그 외에 MIG15BIS, MIG-17, MIG-19를 보유한 외에 폭격기 IL-28 제트 폭격기가 있고 Helicopter 는 MI-1, MI-4 그리고, 수송기로는 LI-2, IL-12, IL-14 쌍발 Prop기가 있는 외에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알바니아 공군은 뻔히 소규모의 병력인 1,500명으로써, 항공기대수도 불과 50대에 기종도 MIG-15 BIS가 최우수기이며 Helicopter도 MI-1이다. 기타 수송기는 IL-2, LI-14 등 소형의 각종항공기 약간씩 보유하고 있다.

「불가리아」 공군은 총병력 15,000명으로써 항공기 대수는 300대로 보고 있으며 기종으로서는 전투기는 MIG-15 BIS, MIG-17까지 보유하고 전폭기 제2차 대전 Prop전투기인 IL-10 그리고 Helicopter MI-4와 수송기 C-47 등 서방측에서 제조한 것도 장비하고 있다.

「포랜드」 공군은 공산위생국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공군력을 가진 나라로써 총병력 45,000명에 항공기대수만도 약 1,100대로 보고 있으며 그의 기종으로서는 전투기는 LIM-2, LIM-5, LIM-7 이외 폭격기 IL-28, Helicopter MI-4 그리고 수송기 LI-2, IL-14를 보유하고 있다.

「루마니아」 공군은 총병력 15,000명으로써 항공기 대수는 전투기 MIG-15 BIS, MIG-17, 폭격기 IL-28, H- elicopter MI-4 그리고 수송기 C-47 등을 보유하고 있다.

끝으로 「항가리」 공군은 소규모이나 최신예전투기인 MIG-15 BIS, MIG-17 와 폭격기 IL-28까지 보유하고 Helicopter MI-4 그리고 수송기 LI-2, AN-2, IL-14 등 총 대수 111대에 총병력 5,500명이 되는 것이다.

SEATO(동남아조약기구)

1954년 9월 8일 서명하고 그 다음 55년 2월 19일 발효하였는데 기간은 무기한이나 일 년간의 예고 기간을 두었다가 탈퇴할 수 있다.

참가국으로서는 미국, 영국, 불란서, 호주, 뉴질랜드, 비율빈, 태국, 파키스탄 등 8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목적은 공산직접침략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침략으로써 가맹국 또는 지정국의 영토보전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에 전 가맹국은 공동방위에 일치된 수단을 취하기 위하여 즉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맹국 중 이미 그의 공군력을 논술한 나라를 제한

각국을 살펴보면 호주공군은 총병력 16,000명에 예비공군 90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항공기대수는 총 586대중 440여대가 국내생산이고 내역을 보면 3개 Canbera 제트경폭격대대를 비롯하여 4개 F-86 전대인데 이중 일개대대는 63년부터 불란서 기음속전투기 MirageIII와 대체할 예정이며 기타 2개 Neptune 대체기대대 그리고 1개 C-130 수송대대와 2개 Dakota 수송 대대 계 3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들은 Bloodh-und 공대공유도탄을 장비하고 있다.

「뉴-지랜드」공군은 총병력 불과 4,400명으로써 항공기는 12대의 Canbera 제트경폭격기로 장비된 1개 폭격대대와 1개 해안정찰대대 그리고 3개 수송대대 등 6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태국」공군은 총병력 22,000명에 항공기는 일선 전투기로써 약 30대의 F-84G를 비롯하여 약 20대의 F-86 등 150대를 포함하여 전항공기 약 350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F-86은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제 Sidewinder를 장비하고 있는 듯 하나 수자는 미상이다.

「비율빈」 공군은 비교적 적은 병력인 7,0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항공기는 4개 대대의 F-86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F-86F에는 1개 대대가 Sidewinder 공대공유도탄을 장비하고 있는 듯 하며 최근에는 약 200발을 도입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 F-86F 이외에 전천후전투기 F-865형 약간 대 F-51 Prop 전투기 약 70대등 총 항공기대수는 22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ENTO

전 「바그닷트」 조약은 최초 토이기 이락상호방위조약으로써 1955년 2월 24일 조인되어 그 후 1955년 3월 30일 영국, 1955년 9월 23일 파키스탄, 1955년 10월 11일에는 「이란」이 참가하여 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나 「바그닷트」조약기구는 59년 3월 「이락」이 탈퇴하면서부터 8월 19일에 그의 명칭을 ENTO로 개칭하였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토이기, 파키스탄과 군사적 상호조약을 체결함으로 하나의 보조회원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란」 공군의 현황을 보면 총병력 7,500명에 75대의 F-86G, F-86 그리고 약간대의 F-47D로 장비한 일개비행단을 확보하고 있는 이외 100대의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60대의 전투기와 약간의 수송기를 포함한 100대의 각종항공기를 더 도입할 것으로 되어 있다.

「파키스탄」 공군은 총병력 15,000명으로써 항공기는 현재 7대의 Canera 제트경폭격기로 장비한 일개대대가 있으나 앞으로 약 50대로 증가시킬 이외에 12개의 F-104로 장비한 일개대대와 약 이개비행단상당량의 F-86 등 총 28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이외에 남미제국의 공군을 들 수 있는데 모두 공산국의 직접침략으로부터 원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국이 극히 보잘 것 없는 수의 항공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계 각국 중 중립국이면서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몇 개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로써 총병력은 15,000명으로 화란령이었던 서뉴기니아의 분쟁으로 소음으로부터 제트 중형폭격기 TU-16(Badger) 약 26대를 보유한 이외 초음속전투기 12대의 MIG-21을 장비한 일개대대 후 최우수기로 장비하고 있으며 총 대수는 약 130대로 보고 있으며 일설에는 TU-16에는 공대지유도탄을 적재할 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뉴기니아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취소하였다고 한다.

통일 아랍공화국은 그의 공군력이 이미 낫셀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스웨즈」운하의 국유화 선언하면서부터 영, 불, 「이스라엘」과 대립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최우수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IL-28 제트경폭격기, MIG-19, MIG-17을 포함하여 약 400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설에는 MIG-21 초음속전투기를 지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만담인 것 같다.

통일 아랍공화국과 항상 숙적으로 되여 있으며 중동지구에서 고립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공군은 200대의 전투기, 약 20대의 폭격기등 370여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극동지역

끝으로 극동지역에서 자유 공산 양진영의 공군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한국의 휴전선은 하시라도 북 괴뢰군이 불의기습공격으로부터 공산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또한 최대의 관심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사속에서도 직접 한국군의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북괴공군의 공군력도 자세히 발표할 수 없고 또한 한국공군력도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고위층으로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괴공군은 역시 소련간접침략의 선두적 역할을 함으로 최우수기를 공여하여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외지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총병력 30,000명에 MIG-17, MIG-15 BIS 전투기를 포함하여 약100대의

IL-28 제트경폭격기 등 900대의 각종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언젠가 MIG-19까지 도입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못하였고 그 외 고성능전투기가 도입되었다는 말도 있다. 다음에 북괴공군을 지원할 수 있는 중공 공군세력을 보면 총병력 9만명에 각종항공기는 해군기 500대를 포함하여 3,000대를 보유 하고 있는데 기종으로서는 전투기 MIG-19, MIG-17, MIG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폭격기는 IL-28 이외에 최근 TU-16 제트중형폭격기를 도입하여 왔다는데 확인할 수 는 없다.

중공과 대치한 자유중국의 공군력은 중공공군력보다는 상당히 수에 있어서 뒤 떨어지나 질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병력은 75,000명에 항공기는 25대의 F-104 A, B 형을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약간의 전천후 쌍쌍발복좌 전투기 F-101 및 RF-101 그리고 RF -100, RF-84F, RB-57D 300여대의 F-86F 그리고 일개대대의 F-86D 형 그리고 수송기는 16대의 C-119 외 80여대의 C-46. 약간의 C-47 등 각종 항공기 약 6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미 수 개월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도 있지만 U-2정찰기를 보유하고 중공본토를 촬영 중 추락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국과 이웃한 일본의 공군세력을 보면 그의 항공자위대세력이 총병력 약 38,400명에 공격력을 가진 폭격기를 보유하지 않은 방공력으로서는 금년에 실전부대에 배치된 약간대수의 F-104J를 포함하여 110여대의 F-86D, 350여대의 F-86F 등 항공자위대만도 1,13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는 소형연락기와 Helicopter를 포함하여 270여대 그리고 해상자위대도 최신대잠기 P2V-7 40여대를 비롯하여 각종항공기 1210여대 등 총 항공기대수는 1,600대 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일본항공기는 미국과 대여계약에서 일부만을 도입하는 외 대부분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TIA 제트연습기를 설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항공기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극동에서 한국과 똑같은 정세하에 놓여있는 월남은 최근 「케리라」의 준동으로 주월 미군이 주둔하면서 항공기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한편 자체에서도 공군을 확보하고 있다. 총병력은 약 4,200명이며 항공기는 미 해군기인 A-1H(AD-6) 공격기 20여대와 대수 미상의 F-86F 전투기를 포함하여 약 40대의 C-47 등 총 약 180대의 각종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 일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T-28 연습기를 개조하여 지상공격기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월공 공군세력을 보면 총병력 16,000명과 MIG-17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데 수송기는 Ll-2 등 각종 항공기 3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극동 소련공군을 보면 병력 약 15만 명에 각종 항공기 5,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태평양군력은 3,600대의 각종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칠함대만도 최신예항공기 100여대를 장비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중 공격기는 A-5A(A-3J)핵 공격기와 F-4 A(F-4 H) Phantom 초음속전투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이상으로 대략 세계각국전군세력을 살펴보았으나 항공 세력은 지상군과 달리 그의 수로써 승패를 속단할 수 없고 일익발전하여 가는 성능의 향상, 장비된 유도무기, 적재무기의 핵 위력 그리고 특히 전자계통의 탐지, 추적능력과 ECM 능력이 그 항공기의 존재가치를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상의 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능만 우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어 곧 상대방 공군력을 제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항공기 특히 전투기는 거의 모두 음속2배를 넘음으로 G. C. I.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완벽을 기할 수 없고 地上電子支援 능력이 있는 외에 자체기의 기상 Ra-dar의 우열에 달려있으며 또 자체가 장비한 유도무기에 의존하는 바가 큼으로 비록 성능상의 약간의 부족은 있으나 기상 Radar와 지원능력 그리고 유도무기가 우수하면 카-바하고도 남는 것이다. 그래서 항공기를 평가함에는 전에 가졌던 낡은 인식으로 속단함은 극히 금물이다. 여하튼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항공기가 출현하게 될 것이니속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결국은 전자장치와 유도무기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항공기 대수만으로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라고 하겠다.

밖으로는
군민친선
안으로는
인화단결

농촌진흥의 기본방향과 군내 영농교육의 성과

임종대
<국방부정훈국정훈과교육계장>

1. 서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경제 개발오개년 계획의 주요지표는 중농정책을 채택 구현으로써 농촌경제를 향상,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삼아 현대공업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국가시책으로서의 성공여부는 자주경제 확립에 직결되는 것으로 자못 중요시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날의 구정권하에서의 허울 좋은 대 농어촌시책은 그 성과는 커녕 위정자들의 비정으로 공전을 되풀이 하였을 뿐 농민은 풍년기아에 울었으며, 수탈에 지치고 호구지책이 막막하여 급기야는 이농을 하고, 실업자로서 도시에 운집하는 비통한 운명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적 비극의 실마리가 되어 마침내는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며 온갖 사회악은 만연되어 농어촌경제는 물론 국민경제를 파종에 직면시키고 말았다.

이에 혁명정부에서는 모든 구악을 일소하고 줄기차게 대 농어촌시책이 결실하여 가고 있어 이제 농어촌에는 새로운 삶의 의욕이 용솟음치고 전진발전을 기약하는 맥박이 고동치고 있음을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야말로 농민의 자력자조의 기풍을 진작시켜 정부시책인 중농정책을 건실하게 실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국가시책의 기정지표에 의한 농촌진흥책을 과감히

수행하는 동시에 낙후된 농촌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 솔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안정된 농촌경제의 수립조성은 국민경제의 자립을 하는 유일하고 유효한 지름길이 되는 까닭에 온 국민은 한결같이 농촌재건의 역군으로서 농업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앞을 다투어 참여하여야 할 때는 왔다.

2. 당면한 농업경영의 합리화

오늘날 농업경영은 국민경제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보급, 경영에 참여하는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적당적기에 안배함으로써 각기 생활요소가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케 하여 경제적인 수익도가 높은 농업경영을 육성 장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도하는데 따라 영농방법의 개선책도 아울러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은 무엇보다도 경영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경작지가 과소하여 가족노동마저 경영면에서 완전고용 소화치 못하여 과잉취업으로 필요이상 많은 노동력이 농업에 투하되어 노동자의 경제적 이용을 저지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규모의 영세화는 농업경영의 근대화의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자원이 빈약하여 수도 작에 편중하는 나머지 1모작 전답이 태반으로 토지이용도가 저위에서 침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세농가가 전체농가의 약4할 1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영세농가의 경영규모를 질과 양으로 복합화 하여 실질적인 경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단순재생산을 지속케 하는 것이 농촌경제 발전의 기본요건이며 국민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초미의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농촌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는 농촌인구의 압력은 과소 소득 영세농의 경제책에 박차를 가하여 확대재생산은 기대할 수 없고 단순재생산마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영농규모가 현재와 같이 오단보미만의 영농이 태반을 차지하는 경영체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집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한다 치더라도 안정된 소득수준을 유지시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임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영농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경영규모를 확대시켜 농업소득의 증대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최소한 단순 재생산을 지속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이 촉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농업경영의 기본적인 시책이 곧 농촌진흥을 급속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첫째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수요현상을 전망, 분석하여 수요에 있어 탄력성이 강한 품목에 중점을 두고 적지적산의 집중생산체제를 확립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작부생산체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선택적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어 토지, 노동, 기술, 경영규모의 정비와 자본장비의 충확과 경영의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생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농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재해의 사전방비책과 아울러 농업재해대책의 제정으로 영농을 안정화시키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농산물의 도입을 억제 또는 금지하고 생산여건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기구, 비료, 농약, 우량종자 등 필요자재의 생산유통을 개선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농업성장을 기함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격성을 제고시켜 농산물 시장의 확대변화에 수반하여 상품의 규격화와 대량화는 유통거래의 근대화와 더불어 유리한 가격조절 및 실현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시장조정과 출하 보관의 성격에 비추어 생산의 부분적 협동화에 의하여 규격의 통일로서 거래량의 대량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장단기 수요관측을 하여 농업경영에 지침을 주는 동시에 시장 변동상황을 수시로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수반하여 소비성향이 변화되는데 대응시켜 원료농산물의 공급에서 진일보하여 가공농산물의 유통을 조장할 것이며 국내외 시장개척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출하 공동판매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수준과 각종 농산물간의 상대관계는 생산물의 수급사정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을 갖게 하고 영농생산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영농의 자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예정가를 농업 경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영농구조의 개선책으로 영세농의 단순경영으로 확대재생산의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 구조를 근대적인 자립경영으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영세농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영농방법에 있어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 정비가 긴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적 조건이란 농업경영자의 자질향상문제이고 객관적 조건이란 농업경영의 터전으로서의 경영규모(실적면과 양적면의 외연성), 토지조건, 기술적인 제 조건을 정비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3. 농촌진흥지도체제의 기본방향

혁명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을 채택하여 과거의 공업화에

의한 농촌진흥책을 지양하고 농촌진흥에 의한 공업화라는 농촌재건우선의 시책으로서 종래의 완만과 중복 그리고 모든 비위와 모순을 시정하는 한편 농본국가로서의 농업 중점 산업체제를 갖추게 되었음은 국가장래를 생각할 때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전통적인 고질을 과감하게도 절개수술을 하였으니 고리채정리를 비롯하여 농산물가격유지법, 농협의 개편, 농지개간법, 어협 등의 창설은 그 농촌진흥의 희망적인 거보를 내어 디딘 것이라 하겠으며 대체로 농어업성장과 농촌경제의 향상에 있어서 이를 부분적 고질로 본다면 그 질원이나 근본적인 고질은 농촌진흥에 따른 지도체제의 난립상이라 하겠다.

잡다한 셈의 중심요소가 되는 병원을 뽑아서 치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병원을 송두리채 발본하지 않고 국부적인 표피치료를 아무리 되풀이 해봤댓자 재발을 모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조직이 다원적일 때에는 대상체에 대한 추구력이나 침투력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과중하고 다양다기적인 지도이념이나 체계는 되려 역효과를 초치하게 마련인 것으로 지도체계의 다원성은 경비와 시간과 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대상체에 대한 시책의 침투 면에 있어서도 허다한 혼잡과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농촌생활지도에 있어 비록 그 대상이 미개하고 무지한 저속한 농촌일망정 하나의 사회구조이니 만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종의 생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위 지역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력과 더불어 기술적 지도와 經濟事業 추진의 기능은 당연히 분립·독존하는 전문적 지도로서 상호 보완하는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지도조직의 다원성을 말함이 아니라 전문분야의 최소한 분화를 의미하며 유사 동일한 업무체제는 가능한 한 흡수 병합하여 지도체계의 단일화를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의 복지행정과 기술지도 및 보급은 그 기능과 계통에 알맞게 분화시켜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협조하게 하는 것이며 상호조정과 통일화로서 중앙에서 말단 각종 지도원간에 보다 효율적인 지도체계가 거양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의 직무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지도에 따른 시험과 연구 및 그 지도업무 이외에 이들 임무를 감당 수행할 인재의 양성과 훈련을 겸합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농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엉뚱한 후진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며 근 6할을 점하고 있는 농업인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 없이는 산업 부흥과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복지국가 건설은 기대 난(難)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능의 발휘와 지도체제의 혁신은 앞으로의 농촌진흥책의 현안이 되고 있는 영농방법 및 지도체계의 합리적인 확립운영은 물론 특정농작물의 지방별 장려와 고답적인 미맥본위의 농업경영으로부터 탈피하여 현금소득으로 수익 고를 높일 수 있는 과수 채소 특정축산 전업의 권장 그리고 농가부업으로서의 특용작물의 재배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영농착상도록 지도육성 하는 길만이 농촌진흥의 첩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겠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농촌 진흥시책 상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혁명의 풍광을 받으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생산성의 향상을 지향하여 가진 수단과 지도를 충분히 한다 해도 그 경영면에서 적정한 지도육성으로써 농민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며 생산물의 국내소비 및 국외 시장 활용에 따른 판로개척과 무역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렇게 농촌진흥의 지도체계를 확립함에는 지도의 확보는 물론 농촌지도의 봉사정신으로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로서 열성적인 농촌재건의욕이 한 젊은 세대 층으로 기성적이며 고답적인 관념을 배제 혁신할 수 있는 박력과 적극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군내 영농기술교육이 국가 시책을 뒷받침하는 의의와 전망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4. 군내 영농기술교육의 성과

우리나라의 영농방법이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선진된 영농방식을 생각함이 없이 언제까지나 무위도식하며 지낼 수 없는 것으로 묵은 사고방식과 생활관을 제하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된 기술을 하루 속히 체득하여 조국의 번영과 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며 중농 정책을 뒷받침하고 오개년경제계획 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예를 군내 영농교육으로서 차지하고 실효성을 거두 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에 군내 영농기술교육의 발단은 한국의 장래와 민족의 복지를 위하여 군민일체가 되어 농촌경제의 진흥책을 촉진하는데 선도적 길잡이를 양성하여 민족재생의 일대계기가 되어 효율적 농사교육을 실시하고 예비병들의 자활대책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2군 관하 각 예비사단에서는 재건교육이란 명목으로 61년 9월부터 예비병에게 농사교육을 실시하게 되자 새로운 기풍으로 농사개량, 농촌진흥 및 농사지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래성을 전망할 수 있음이 판명됨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제대병에 대한 농사 지도능력

부여교육지시를 내려 영농교육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군내 영농기술교육은 농촌진흥의 촉진제로써 영건방법의 개량과 혁신으로서 농촌의 기성세대를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현대 영농기술을 시급히 보급 장려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국가재건사업의 일환책으로서의 당면한 중농정책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며 62년도의 교육실적이 약 24만 명에 달하는 바 5개년 경제계획의 달성연도에는 약 백만명의 교육수료자를 양성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교육 이수자들은 군내에서 조직의 통수권과 명령으로 단련되고 습성화된 단체생활의 체험을 살려서 농촌지도자로서의 적격성을 발견하고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며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못한 충성과 봉사정신을 전향하여 농촌재건의 역군으로서 헌신케 하는 것은 적응한 시기에 적정한 시책에 따라 군내 영농기술교육의 활용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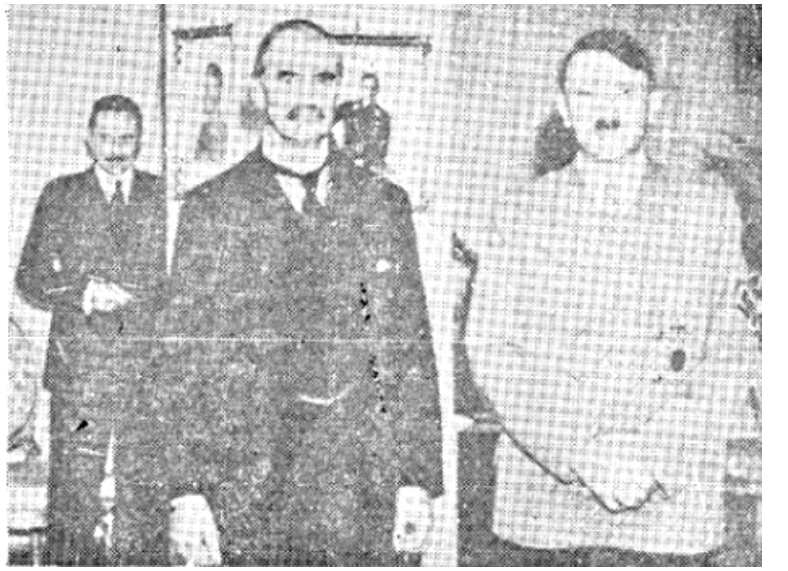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군내 영농교육을 이수한 제대병과 예비병들이 귀향하여 각자 부락의 농사지도를 감당한다기 보다는 혁신된 영농기술과 생활개선의 솔선적인 실천으로 표본적인 농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락민에게 기초적이며 실기상의 산지식을 가르치고 또한 자기의 의무를 감수하고 이행하며 권리를 향유할 줄 알며 각자가 처하고 있는 주위환경이나 자기위치를 자각하여 농사경영의 활용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농촌진흥에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며 보람된 농촌경제의 부흥과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데 거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토록 군내 영농기술교육은 단시간에 지역 또는 출신별(농촌, 도시, 도서)로 고루한 영건방법을 지양하고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영농기술을 시청각을 통한 실기적이며 단기교육으로 실효성있는 교육성과를 지향하여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는바 지대하다고 전망되는 것이다.

5. 결론

이와 같이 중농시책을 뒷받침하는 농촌진흥의 촉진으로서는 재래식 농사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농가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율적인 영건방법을 채택 구현하게 되는 것으로 농촌경제의 부흥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그 스스로가 혁신하고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이며 신문화에 대한 섭취성과 진취성이 허약하므로 급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이 긴요한것으로 신진세대의

(P137에 계속)



요 약 제삼제국의 흥망 <II 부>

승리와 준비공작

W.L.샤이러

◇권력에의 길

1925년으로부터 1929년 불황이 닥쳐 올 때까지의 기간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운동에 있어서는 고난의 시기였다.

농담거리 이외에는, 진지하게 히틀러의 이름이 화제에 오르거나 나치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도 대개는 그 때 겨우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비어홀·무취에 대해서 비웃는 말에 지나지 못하였다 1928년 5월의 선거에서는 나치당은 총 삼천백만의 투표 중에서 겨우 81만 표를 얻는데 불과했으며 당원은 겨우 십만팔천명이었다. 바이에른 주의 수상 하인릿히.헤르트박사는 히틀러로부터 굳은 약속을 받은 후 나치당과 그 기관지의 발행금지를 풀어 주었다. 「야수에게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으니 조금쯤 사슬을 늦추어 주어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헤르트는 법무상인 큐트너에게 말했다. 이로서 바이에른주의 수상은

숙명적이며 그릇된 판단을 내린 도이치 정치가중의 최초의 한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히틀러는 실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번영의 시기가 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러한 번영의 시기가 오래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나치당을 순전히 입헌적 수단을 통해서만 정권을 추구하는 정치조직체로서 재건하고 져 결심했다. 그는 측근자에게 새로운 전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무장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꾹 참고 카토릭교와 공산당의 반대세력으로서 등장하여 연방의회에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보다 많은 득표를 하려면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 그들 스스로의 헌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합법적 수단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 이 걸리는 법이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는 과반수를 얻게 된다. 그 뒤에는 도이 취를 얻게되는 것이다.」란트스베르크요새에서 석방되자 히틀러는 바이에른주 수상에게 앞으로 나치당은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2월 27일 뷰르거불라우켈터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는 군중들의 흥분 속에 닿자 자신이 휩쓸리고 말았다. 국가에 대한 협박문 귀는 거의 노골적이라 할 수 있었다. 바이에론 정부는 즉시 히틀러가 다시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금지는 2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히틀러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입이 해져서 말을 할 수 없는 히틀러는 이미 패배한 히틀러였으며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그릇된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히틀러가 청중을 현혹시키는 웅변가인 동시에 오거나이저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도이치 근로자당을 재건하여 이것을 도이취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조직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한 것이다. 최초의 일은 당비를 제공할 당원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1925년 말에는 당원이 2만 7천 명이었다. 성적은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매년 얼마씩은 발전하고 있었다. 1926년에는 4만 9천 명, 1927년에는 7만 2천 명, 1928년에는 17만 8천 명으로 증가되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그의 정치적 흉년이 계속되던 때가 후일에 스스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사적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풍년의 시절이었다. 1929년까지 대중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나치당과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은밀히 계획을 세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바바리아·알프스에 있는 베헤 스테스가르텐의 마을 비탈에 있는 오베르자르츠베르크에서 보냈다. 그곳은 안식과 휴양의 피난처였다.

그 무렵(오베르자르츠베르크에서) 나는 많은 여성들을 알고 있었다. 그중 몇 사람은 나에게 반하게까지 되었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처자를 뒤에 남겨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조금이라도 분별없는 짓을 하게 되면 6년간이나 다시 감옥에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나에게는 결혼은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히틀러가 후에 끄집어 낸 그 당시의 추억담이었다.

일반의 세평과는 반대로 히틀러는 여성과의 교제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상대방 여성이 아름다운 때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었다. 그는 전쟁 중 최고사령부에서의 좌담에서 몇 번이고 그것을 화제로 하고 있었다.「정말로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돌프 히틀러의 생애에서 오직 하나의 깊은 연애사건이란 그의 생질 겔리뿐이었다.

1928년 여름 히틀러는 베르히테스카르텔을 바라보는 오베르자르츠베르크에서 밧펜펠트장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한 채 빌렸다. 집을 돌보아 주도록 배다른 누님 안젤라.라우발을 뷔엔나에서 불러 들였다. 라우발여사는 자기 딸 자매 젤리와 프리돌을 같이 데리고 왔다. 겔리는 갓스물난 처녀로 불론드의 흐뭇한 머리와 예쁘장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쾌활한 기질을 가졌으며 뭇 남자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히틀러는 곧 겔리와 사랑하게 되었다. 회합장소라든지 혹은 회의장, 산골길의 긴 산책이며 뮨헨의 카페나 극장 등 어디고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1929년 뮨헨에서 가장 고급 주택지의 하나인 프린츠레겐텐가의 호사스런 방이 아홉이나 달린 아파트를 빌렸을 때 그는 그녀에게 방 하나를 주었던 것이다. 당의 다른 지도자와 그의 생질에 관한 소문이 문헌이나 남도이취의 나치스 동료들 사이에 오가고 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부의 고지식하고 혹은 질투심 많은 간부들은 히틀러가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애인을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내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둥, 혹은 히틀러가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둥 쑥덕거렸다. 히틀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펄펄 뛰면서 화를 내곤 했다.

아마도 히틀러의 의사는 그의 생질과 결혼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히틀러와 친했던 당 초기의 동료들은 후일에 와서 저자에게 히틀러의 결혼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말한 일이 있다. 히틀러가 그의 생질을 깊이 사랑하였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겔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녀가 바로 유명해 지려하고 있던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친절을 베풀어 받는데 대해서 정말 기뻐하였으리라는 것은 뻔 한 일이다. 그녀가 외숙부의 애정을 받아드리고 또 그녀도 그를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나중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원인이나 성질이 끝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큰 불화가 생겼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 질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겔리는 히틀러가 다른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화를 냈다. 또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겔 리가 그의 신변 보호원이었던 에밀·모리스와 은근히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겔리는 외숙부가 자기에게 간혹 폭군같이 대하는 것이 무척 마땅치 않았다. 히틀러는 겔 리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남이 보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그는 그녀가 계속해서 성악공부를 하기 위해 뷔엔나로 가려는 그녀의 야심을 꺾어 버렸다. 그는 켈리를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겔리는 자기 애인의 마조히즘적 경향에 질색이었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도 포악하던 폭군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는 노예 같이 취급당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는 풍문도 있다. 히틀러와 같은 사나이에게는 결코 신기한 것은 아니라고 성 학자들은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외숙부와 생질과의 사이의 애정을 가로막고 흐리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는 별문제로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은 더욱 심해가기만 했다. 1931년의 여름도 다 갈 무렵 겔리는 뷔엔나로 돌아가 성악공부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또다시 히틀러는 그녀가 가는 것을 만류했다. 1931년 9월 17일, 히틀러가 뮨헨의 아파트를 떠나 함부르크로 갔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바탕 갈등이 다시 있었던 것을 이웃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다. 젊은 여자가 창문으로부터 얼굴을 내밀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 외숙부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뷔엔나에 안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히틀러가 대답하는 것이 들렸다. 「안 돼」하고 소리쳤다.

다음날 아침 겔리.라우발이 자기 방에서 권총으로 맞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검찰청에서는 철저히 조사 후 자살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후 몇 해 동안 뮨헨에는 켈리.라우발이 피살되었으리라는 소문이 퍼졌다. 격분한 히틀러가 죽였거나 당의 말썽거리 상태를 끝내기 위해 힘러가 죽였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히틀러 자신은 몹시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의 한 측근자는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을 밤낮 할 것 없이 줄곧 그 곁에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히틀러는 그 후 몇 달 동안을 내내 슬픔에 잠겨있었던 것이다.

훨씬 뒷날에 히틀러는 자기가 일찌기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겔리.라우발뿐이었다고 측근자에게 단언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깊은 존경을 나타내어 종종 눈물까지 흘리면서 겔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시중드는 애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히틀러가 수상이 된 후 오베르자르츠베르크의 별장을 개축하고 확장할 때도 그녀의 방만은 그녀가 남겨 둔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잔인하고 비틀어진 사내와 같던 히틀러의 이 어린 겔리에 대한 애정은 그 불가사의한 일생에 하나의 수수께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모든 수수께끼와 마찬가지로 이 수수께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그저 단지 적어두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거의 확실한 것은 히틀러가 사십이 지난 뒤 스스로 의 목숨을 끊는 전날까지 결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 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히틀러는 그의 왕성한 정력과 전 재능을 그의 운명달성의 사업에만 바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력을 향하여 위대한 독재자의 지위를 향하여 최후의 돌진을 시도할 때가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1929년말 홍수처럼 전 세계를 휩쓴 불경기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으며 그는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많은 위대한 혁명가가 그러하였듯이 히틀러도 재액의 시기에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대중이 실업자가 되고 굶주림에 절망 하였을 때,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전쟁에 골몰해 있을 때 그러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히틀러는 역사상 수많은 혁명가 중 독자적인 존재였다. 히틀러는 그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 혁명을 이룩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입헌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는 것이다.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는 히틀러는 1930년대 초기처럼 또 다시 도이취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때」의 도움을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월가의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어났다. 도이취의 번영의 기반은 외국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차관과 세계무역이었다. 차관의 유입이 끊어지고 묵은 차관의 지불 기한이 닥쳐오게 되자 도이취의 재정기구는 그 경제 핍박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도이취의 산업은 그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 1929년부터 1932년에 걸쳐 그 생산은 거의 반감되었다.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몇 만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은행들이 몰락하고 말았다.

히틀러는 이 파국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가. 납득되지 않는 점에서는 다른 정치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아마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이해를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 백지였을 뿐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불황이 갑자기 가져다 준 이러한 기회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또 무지하지도 않았다. 도이취 국민의 곤궁 십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날의 마르크화폐 가치의 몰락에 의한 비참한 경험이 아직도 그 상처를 남기고 있던 그날의 생활은 히틀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히틀러에게는 자기 동포의 괴로움은 이를 동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그리고 재빨리 스스로의 야망인 정치적 지지력으로 변형시켜야 할 좋은 소재였다. 1930년 여름도 끝날 무렵 히틀러는 그러한 일에 착수하였다.

당시의 경제적인 위기는 강력정부의 출현을 지상명령으로 하고 있었다.

새로운 선거를 9월 24일에 시행하기로 되었으며 히틀러는 이것에 의해서 그 자신의 호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음을 알았다.

완전히 갈 길을 잃은 국민들은 이 슬픈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을 갈구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구제를 원하였다. 지난번 선거이래 새로이 투표연령에 달한 약 사백만의 청년들은 적어도 생활 방도를 열어주며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랬다. 불만을 품은 수백만의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히틀러는 동분서주 사면팔방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비참한 절망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처를 공약하였다. 도이취를 또 다시 강력하게 만들며 그 엄청난 배상지불을 거부하고 베르사이유 조약을 파기하며 오직을 추방하고 그리하여 모든 도이취인에게 직장과 빵을 주겠다고 히틀러는 역설하였다. 단순한 구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신을 구하고 있던, 절망속에서 굶주리던 도이취 대중들에게는

히틀러의 호소는 하나의 광명이 아닐 수 없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이번 선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1930년 9월 14일 밤에 선거결과가 판명되자 뜻하지 않았던 대 성과에 자기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년 전 나치당은 81만 표를 얻어 의회에 12명의 대의원을 보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득표가 사배로 증가되고 의석은 아마 오십정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히틀러는 혼자서 속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의 선거결과를 보니 득표수가 6천 4백만 9천 6백 표로 뛰어 올랐고 의회에 107개의 의석을 확보하여, 지금까지의 아홉번 째의 최소정당으로부터 일약 의회의 제2당으로 진출했다.
선거전에서의 성공에 의기충천한 히틀러는 다음에는 방향을 달리하여, 육군과 대 기업가 및 금융가등 두개의 강력한 단체를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 했다. 그는 단언하여 말했다. 나는 시종일관 육군을 대신하여 들어서려는 기도는 전혀 터무니없고 정신 빠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육군을 없애고 대신하겠다는 관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쥐는 날에는 현재의 라이흐스베어로 부터 도이취 국민의 위대한 육군이 탄생할 것임을 실증할 것입니다. 히틀러가 군에 공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인하여 일부 장관들은 국가 사회주의야말로 국민을 단결시키고 옛날의 도이취를 회복시키며 다시한번 위대한 대 육군을 건설하여 굴욕적인 벨사이유조약 의 질곡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급장교들은 처음 히틀러가 육군을 놓치려 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라이프치히 재판에서의 히틀러의 발언 이후부터는 안심하였던 것이다.
도이취 육군 장교들의 정치적 맹목은 멀지 않은 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었음이 실증되기는 하였으나 벌써 그때부터 그러한 경향이 싹 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산업계, 재계의 거두들의 정치적 무능도 장군들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잔뜩 돈을 쥐어 주기만 하면 히틀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권을 잡은 뒤 그들의 요구데로 하여 주리라 잠꼬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그들의 대부분은 미천한 출신인 히틀러가 벼락같이 유명해진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1930년 9월의 선거로 나치가 눈부신 진출을 하고 난 뒤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갑작스런 영웅이 도이취의 지배권을 쥐게 될 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히틀러가 정권획득을 향하여 최후의 돌진을 피함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한 범위에 걸쳐 도이취 실업계로부터 많은 재정적 원조를 받았다. 히틀러가 끝내 한 번도 비밀로 한 일이 없었던 샤하트의 이른바 나치운동이 내포하는 <깊은진라>라는 것은 다름 아니고 나치당이 도이취의 지배권을 쥐었을 경우 샤하트 박사와 그의 친구 실업가들의 자유까지를 포함한 모든 도이취인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1931년 도이취의 직장을 잃은 봉급생활자 오백만과 파산에 직면한 중산 계급, 토지를 저당에 잡힌 후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쩔쩔매는 농민, 그리고 반신불수가 된 의회와 흔들거리는 연약한 정부, 거기에 급속히 노쇠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84세의 대통령을 안고서 불안한 길을 더듬고 있을 때 나치수령들의 가슴 속에는 벌써 앞으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으리라는 확신이 깃들고 있었다. 나치수령중의 한 사람이 공공연하게 자랑하였듯이 「파국을 촉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 도이취의 혁명을 위하여 좋은 일이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던 것이다.

◇공화제 최후의 날

공화국의 파국은 명백하였으며 바이마르 정권은 연약하기 그지없었다. 도이취에는 정당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 정당들은 각각 서로의 목적에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각자가 대표한 특수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추구 하는데 만 몰두한 나머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이 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능히 극복 할 만큼 안정된 정부를 뒷받침 할만한 영속적인 과반수 원내 세력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의회제도를 토대로 하는 정부는 도이취인 「오직행위(汚職行爲)」라고 말하는 이른바 흥정정치로 타락하여 정당은 그들을 선거해 준 단체의 특수이익을 위하여 거래함으로써 나라의 이해는 제쳐 놓고 있었다. 정부는 좌익 중간 우익의 그 어느 정책에 있어서도 과반수를 얻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정부의 일을 계속하고 경제적 마비상태에 대처하여, 단순히 어떤 시책을 강구하는 데도 헌법 제48조를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법 제48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비상시 선언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긴급령에 의하여 통치할 수가 있었다.
도이취의 정치권력은 공화제 탄생당시부터 그렇긴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국민의 손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손에도 없었다. 이제는 노쇠한 85세의 대통령과 그의 혼미한 정신을 조종하는 측근자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히틀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들어맞는 일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로 말하면 그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힌덴부르크의 이 새 노선이야말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남겨진 오직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에 과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아니 하였던 것이다.
내각은 마비되어 차례로 붕괴되었으며 새로운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었다.
7월 31일의 총선거는 지난 5개월 동안에 도이취에서 실시된 세번째 선거였다. 그러나 그러한 빈번한 선거운동에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나치들은 한층 더 광적인 정열을 가지고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히틀러의 얼굴을 보려고 밀려드는 군중수로 보더라도 나치의 세력이 무척 신장하였음은 분명한 것이었다.
7월 31일의 선거에서 나치당은 놀랄만한 대성공을 거두었다. 총 천 3백 74만 5천표를 차지 하므로서 의회에 230이라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정원 6백 8명의 하원에서 과반수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으나 그래도 이제는 최대정당으로 올라선 것이었다.
1928년의 선거와 비교해 보면 불과 4년 동안에 나치는 무려 천 삼백만의 새로운 표를 획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자동적으로 나치에 굴러 떨어지는데 필요한 과반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겨우 총투표의 37퍼어센트를 얻은데 불과하므로 도이취인의 최대다수는 그를 등지고 있었다.
나치의 득세로 또 하나의 혼란이 생겼다. 불화와 반목으로 날이 새는 1932년도 저물 무렵 베르린은 음모에 가득 차 있었고 음모 속에 또 하나의 음모가 들어 있곤 했다. 음모는 대통령관저에도 있었다. 대통령의 배후에서 대통령의 아들 오스카르, 관방장(官房長) 마이스너가 실권을 쥐고 있었다. 카이저호프에도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 거기에는 히틀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패들이 정권획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동료끼리 배격 중상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리하여 음모의 그물은 이내 서로 얽혀버려 1933년의 새해가 밝아 올 때에는 음모가 들은 누가 이중으로 양편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잠시동안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슐라이하는 불란서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과 오칠일간 수상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칠일간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57회나 배반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 〈도이취인의 신의〉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933년 1월 15일에 있었던 립페소주의 선거에서 나치는 성공을 거두었다. 총투표는 불과 9만 표로서 그중에서 나치는 3만 8천 표, 즉 39퍼어센트를 획득하여 지난번 선거 때 보 다 약 17퍼어센트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게벨스에 끌려 움직인 나치의 지도자들은 대대적으로 승리의 선전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이상하게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크게 감명을 주었다. 이들 감명받은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관방장 마이스너, 대통령의 아들 힌덴부르크·오스카르를 중심으로 하는 힌덴부르크대통령의 배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월 22일 밤 이들 두 사람은 대통령관저에서 살짝 빠져 나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파아펜의 친구이며 지금까지 무명이었던 립벤트로프라는 나치당원의 집으로 갔다. 마이스너의 말에 의하면 오스카르는 이 숙명적인 밤까지는 나치와 흥정하는 것을 무엇이 건간에 반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히틀러는 오스카르와 단둘이서만 이야기 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오스카르가 그에 동의하여 별실로 자리를 옮기고는 히틀러와 단둘이서 한 시간 가량이나 틀어 박혀 있었다. 별로 머리가 좋지도 않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도 못되는 대통령의 아들 오스카르에게 히틀러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히틀러가 협박과 감언이설의 두 가지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협박으로서는 오스카르가 힌덴부르크의 소유지에 관해 탈세하고 있음을 공표하겠다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언이설 중에는 50여 정보의 면세토지가 힌덴부르크가의 토지에 산입되었고 오스카르가 대령에서부터 소장에 승진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좌우간 히틀러가 대통령의 아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돌아오는 택시 속에서 오스카르는 말 한마디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입밖에 낸 말이라고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나치를 정부에 들여 놓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 뿐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히틀러가 그에게 요술을 부리는데 성공한 듯 하였다고 마이스너는 후에 말했다.」
다음으로 히틀러에게 남은 일은 대통령에게 요술을 부리는 일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한층 더 어려운 일이었다. 노대통령의 두뇌는 비록 노쇠했다고는 하나 그의 화강암 같은 성격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겠지만 요술을 부리는 것이 히틀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932년 여름 수상을 지낸 바 있는 교활하고 야심가인 파아펜이 히틀러를 거들고 있었다.
12월 28일 정오에 파아펜은 히틀러를 수상으로 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가 여부를 노력해 보도록 대통령으로부터 위촉 받았다.
1933년 겨울의 추운 아침, 바이마르공화제의 비극, 도이취가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하여 14년간에 걸쳐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면서 실패 위에 실패를 더 하여 온 헛된 시도의 비극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파아펜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0시반경 새로 조직되는 내각의 각료들은 나의 입에 모여, 대통령 관저로 정원을 가로 질러 걸어가 마이스너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 방으로 들어 갔으며, 나는 필요한 정식소개를 했다. 힌덴부르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완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짧막한 인사를 했다. 다음에 우리는 선서를 했다. 이리하여 히틀러내각은 출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술책 뒷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멸시하던 낡아빠진 반동주의자와 비열한 정치흥정을 함으로써 뷔엔나에서 온 옛 부랑자이며 과격한 혁명주의자인 히틀러는 도이취라는 위대한 나라의 수상이 된 것이다.
나치당은 새 정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소수파였다. 내각의 11개 부서중 3개부서 밖에는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도 수상을 제외하면 중요한 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이 내각은 파아펜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으로써 자기를 절대적으로 선임하는 힌 덴부르크대통령의 원조와 8대3의 비율로 나치를 압도하는 보수적 동료들의 지지에 의해서 내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자신만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경박하고 소홀한 정치가는 정말로 히틀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익들은 히틀러를 그들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물이라고 망상했다. 공화제의 타도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우익이 희망한 것은 권위주의적 도이취의 전설이었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적〈넌센스〉와 노동조합을 봉쇄하고, 대 외적으로는 1918년의 판결을 무효로 하여 벨사이유 조약의 질곡을 분쇄하고 대육군을 재건하며 군사력을 통하여 도이취를 또 다시 국제정치무대의 표면에 밀어 올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것은 히틀러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히틀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결여된 것, 즉 뒤를 따르는 대중을 갖고 있었으며 우익은 히틀러가 자기들의 호주머니안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믿었다. 히틀러는 연방정부안에서 8대3으로 압도되어 있고 그들 우익이 이와 같은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이상 보수파들은 나치즘의 만행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수파들의 견해에 의하면 나치즈들은 진정 신을 두려워 할줄 아는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도이취인은 나치의 폭정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들 자신의 몸에 씌웠던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933년 1월 30일 정오, 완전히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아돌프.히틀러에게 수상의 지위를 맡겼을 때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그것을 깨달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

◇도이취의 나치

1933년, 히틀러가 수상이 되 었을때 도이취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무장은 거의 해제되고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업이 만연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더욱이 도이취의 인접국가들 특히 폴랜드, 불란서, 그리고 소련은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었으며 도이취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7년 남짓한 동안에 히틀러는 도이취를 유롭의 최강자로 군림케 했으며 전격적이고 광범위한 정복을 통해 대륙의 절반의 지배자로 만들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틀러는 교활하고 잔인한 수단을 재빠르게 써서 순식간에 도이취내에서 그의 권위를 확고히 했다. 1933년 3월에는 〈권능 부여법〉을 통과시켜서 의회의 권능을 잠정적이라는 약속으로 자기가 차지했다. 이렇게 되므로서 히틀러의 권한은 말할 수 없이 강대해졌으며 그것은 제3제국 의회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이렇듯 강대한 권력을 갖고 즉각 반대 정당을 봉쇄했으며 집단수용소와 조직적인 테로로서 철권정치를 시행했다.

전 도이취를 통제하고 각 단체를 차례로 나치화했다. 노동조합의 기금을 압수하고 지도자를 투옥한 다음 모든 파업을 금하므로서 근로대중을 장악했다. 농민은 옛날처럼 농노화하고 중소기업들을 억제하여 실업가를 임금노동자로 만들었으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 학교 등을 손아귀에 넣었다. 사법부는 괴뢰화하고 신문은 나치의 선전도구로 만들었다. 도이취인의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도이취대중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추종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직장을 잃고 있던 임금노동자들이 육백만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직장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직장생활에 대한 보장이 공약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도이취 민중의 가슴속에 오래동안 맺혀있던 동적인 힘을 풀어 놓은 것이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그리고 수많은 발언에서 지적한 이러한 원대한 힘을 무엇에 쏟을 것인가? 그는 도이취의 외교 정책을 전쟁과 정복의 방향으로 지향시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금 거대한 군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다. -끝-

한국적 교양

**교양인은 언제나 그 사회 그 나라의 꽃이다.
때문에 한나라의 교양인은 그 겨레의 역사 그 나라의 풍로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
참된 교양인이 그 나라의 정신적 육신을 그 정수로서 계승 받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풍연

먼저 전근대와 근대로 갈라서 이야기하는 편이 편할 것 같다. 또 모든 사고방식은 근대에 이르러 많이 개혁된 듯이 보이나 전통이란 것이 무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양이 문화생활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화하면 했지 혁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의 특권, 교양

「교양」이란 말이 어디서 나 왔는가 「교육과 수양」이 준말임은 더할나위 없다. 아다시피 전근대에 있어서는 아무나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다. 즉 상민이란 서민 계급은 납세와 부역과 병역의 의무는 있었으나 교육의 의무가 없었으며, 교육도 받을 수가 없게시리 되어 있다. 설사 교육을 받은대짜 상민의 혈통을 받은 자는 누구나 씌어 먹히지 않았다. 꽤 적지 아니 수재나 천재가 있을 법한 데 기록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을 보아도 알겠다. 가까스로 하원 정지윤 같은 이의 행장과 작품이 남았으나 그것도 아명인 수동으로 통하고 그의 풍자와 기행의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 중세기에 있어서 암흑시대의 승려 계급이 계승한 문화가 아니랄 수 없듯이 지배 계급 전 담의 교양이 교양 아니랄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교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었으므로 그 원리 원칙은 건전한 것이며 지성이 높은 것이었다. 알다싶이 유교란 다소 위선의 혐의는 있으나 그 원리 원칙에 있어서 이치에 어긋난 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막연하고 시사적이면서, 중대가 서 있는 철학이다.

전근대의 지배 계급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였다. 분석해 보면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출세도 바랄 수 없거니와 자기의 가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였고, 그리고 경쟁적이었다.

우선 어려서 독서의 알파벳트인 천자문을 가르친다. 천자를 뗀 다음엔 「동몽선습」이나 「계몽편」을 가르친다. 여기서 부터 교육은 본론에 들어간다. 동몽선습은 이조 중종 때의 박세무가 엮은 것으로서 오륜의 아웃트·라인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 첫머리에 가로되,

『천지의 사이에 만물의 무리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사람을 귀하다고 하는 바는 그 오륜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친이 있으며, 군신이 의가 있으며, 부부가 별이 있으며, 장수가 서가 있으며, 붕우가 신이 있다 하시었다. 사람이면서 이 오륜이 있음을 모른다면 금수에 멀지 않다 하겠다.』운운

빠르면 대여섯살 부터 46배판만한 크기의 책에 주먹덩이만큼 큰 글자로 박힌 것을 연해 상반신을 전후로 꾸뻑거리면서 읽고 또 읽는 것이다.

이 책들을 떼고 나면 대개 소학으로 올라간다. 이 책이야말로 유교의 초보로는 완벽한 것으로 수신 예절과 효충신자의 사적을 엮은 것이다. 이 책 서두에 좋은 말이 적혀 있다.

『옛날의 소학에는 사람을 가르침에 쇄소응대진퇴의 절차와 어버이를 친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고, 벗을 취하는 길을 주로 하였다.』운운.

여기서 보듯이 사람을 맨 먼저 가르친 서열에서 물 뿌리고 비질하는 근로를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환경 정리를 이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남을 응대하는 처세술(예의)의 중요함을 놓았고 그 다음엔 진퇴, 즉 인격의 도야가 놓여 있다.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별항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동양 최고의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와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뒷사람이 이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 크게 잘못한 혐의가 있다.

이를테면, 『사람의 몸과 터럭은 이것을 부모에게 받았다. 감히 다치지 못하는 것은 효도의 시작이니라』 하는 말이었다. 이 말은 몸을 함부로 굴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와 몸을 튼튼히 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적극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곡해하여 부모가 물려주신 몸과 터럭을 어찌 건드릴까보냐 하고서 머리 깎기를 싫어하여 상투를 틀고 몸을 되도록 꼼짝 안하고서 힘 드는 일은 모두 상민에게 맡기고, 그리고 전투에 참가함을 꺼리었다. 충신이 효도에 맞서는 것이요, 군명에 의해 적과 싸우는 것이 지상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배우면서 몸을 사리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전이나 법전이 그 문서화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담으로 해둔다.

<예의>

동양에서는 예의를 무척 중요시한다.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엔 예의에 대한 개념이 대체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를테면 정치하는 골자도 예의요. 처세하는 골자도 예의라고 말한다.

어쨌든 예의를 몰라가지고 교양을 말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의란 필경 사람을 대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도 예의는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당정인보 선생이 일찌기 일본의 경도 대 학에 갔을 때 그곳 교수가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율곡 선생의 저서를 꺼낼 때 책에 대해 경건히 절을 하고서 책장을 펴드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것은 아마 진정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동양적인 예의의 한 단편이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어디 쓴 것을 본즉 자기는 남의 저서를 누워서 읽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동양의 예의가 그렇게 만든 것이리라 감탄하였다. 나는 그 뒤, 방송에서 내가 존경하는 분의 음성이 나오면 자세를 바로 하고 듣는 버릇이 생겼다. 노산 선생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분에 감화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예의라는 것은 남을 상대로 하지 않더라도 지키는데 가치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도 통한다. 나의 어느 친구는 미국사람이 교통신호를 지키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적한 시골길을 밤에 자동차로 달리는데, 네거리에 빨간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그냥 지나도 아무상관이 없건만 굳이 파랑 신호를 기다려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인 동시에 예의가 아닌가고, 내 친구는 내게 물은 적이 었다.
길바닥이나 남의 집 담에 대고 오줌을 누는 것은 낮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겸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서 높이 평가된다. 장유유서의 원칙도 준수하려니 자연 어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도 되겠지만 전혀 세력이 팽팽한 대등한 사람에게도 겸양하는 성미는 확실히 아름다운 미덕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가령 어떤 친구가 미국에서 버스를 탔더니, 튼튼한 사나이가 앉아 있고, 나이 많은 여인이 서 있는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여자를 존중하는 나라의 풍속인가고 의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본 즉 논리는 이러하다. 그 튼튼한 사나이는 지금 부양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근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인은 연금을 받고 살며, 아무런 근로도 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돈을 더 쓰고라도 택시를 탈만한 처지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튼튼한 사나이는 정력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아무런 사회 보장제도가 없다면, 족히 자리를 내어주는 습관이 있을 것이다고 잠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겸양의 덕은 결코 패퇴나 후퇴는 아니다. 가령 여기 타이피스트를 모집한다고 하였을 때, 채용하는 쪽에서,
『타이프라이터를 잘 치오?』
하고 물었을 때 선뜻 나온다는 말이,
『별로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읍니다.』 하는 따위는 결코 겸양의 미덕은 아니다. 당당히 일분간에 몇 마디를 찍을 수 있다는 실력을 과시해야 된다. 우리들이 흔히 사람을 청하여 밥 먹으러 오라 하고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잡수셔요.』 하는 것을 외국인들은 퍽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극단의 말로서, 소홀한 대접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것 같이 들린다. 겸양이란 스스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겸양의 한계를 요령 있게 조절하는 힘은 또한 교양인 것이다.

<자중>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 그러나 아는 척 하고 떠드는 일은 교양 있는 사람의 할 짓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아는 신조 또는 지식을 묵언 실행하는 것이 예로부터 교양 있는 사람의 짓이었다. 알고만

있고 용기 없이 침묵만 지키는 것도 교양있는 사람의 행위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식은 속에 간직하고, 행위로써 나타내는 것, 이것은 어떠면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일는지 모른다. 그의 사태가 폭발했을 때 어느 일본의 지성인은 한국인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칭송하였다. 즉, 참을 때까지 참고 견디다가 일단 분노가 터지면 그 무엇도 겁내지 않는 성미가 한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3·1독립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을 겪어본 그들은 절실하게 그것을 깨닫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전 지성인들이 언제고 자기 실력을 감추고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옛날의 선비들이 시화에 취미가 치우쳤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술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자기의 교양의 정도를 얼마든지 시문에다 드러낼 수 있었다. 즉 입으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지껄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처세술 이것도 하나의 고양이 아닐 수 없다.

<가난에 태연>

옛날 선비는 청렴결백을 그리고 지조를 소중히 여기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가난을 아무렇게나 안 아는 타이프가 즉 교양인의 파이프인양 되어 버렸다.
이런 일화가 있다. 근세에 어느 재상의 집에 실직자인 선비 한 사람이 취직운동을 왔었다. 그런데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서 손이 주인에게 하직하고 일어서는 순간, 털컥하고 솜뭉치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여름옷이 너무 나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등에다 집어넣은 송이었다. 그 사람이 그러나 아주 태연히 그것을 들고 방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 흘낏 주인 재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때, 그 재상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참봉감이로군』하였다는 것이다. 「참봉감」이란 참봉벼슬을 할 위인이나 그 이상은 못 된다는 것이다. 재상이 솜뭉치가 방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이 사람에게 벼슬 줄 마음이 안 생겼었다. 그러다가 솜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문득, 벼슬을 주어야겠다고 느끼었다. 그랬던 것인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주인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으로 그만 점수를 깎지 않을 수 없었다.
가난에 대하여 철저한 불감증 이것만이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의 도덕이었다.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치는 드러내지 않는다. 하기야 사치하면, 감찰제도가 심했던 이조시대에는 다치기 쉬운 까닭도 있어서 땅을 산다거나 패물을 장만한

다거나 문방구를 마련하는 짓을 하였다. 그렇지만, 음식 치례 옷 치례는 특정한 잔치를 빼놓고는 평소에는 삼가는 법이다. 옛날 재상에 집은 김치가 유난히 잤다. 식객이 많은 터이라 간을 더 친 것이겠지만 어쨌든 재상도 그 전 김치를 먹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치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통에서 해방 후 무슨 큰 벼슬만하면 우선 사치의 앞장을 서는 듯한 폐풍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근대의 벼슬아치가 예전의 벼슬아치보다 교양이 적다고 볼 수 없을까.

<솔선수범>

예전의 지배계급층은 서민을 착취하지만 않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행세하였다. 미풍양속은 모두 지배 계급으로 부터 흘러나왔다.

이즈음 생활개선이 부르짖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다. 지도층자신이 몸소 목표한 개선에 솔선수범하면 대중이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관혼상제의 풍습을 간소화하고 싶은 마음은 지도층보다 대중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우선 힘에 겨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대인관계 때문에 동떨어지게 간소한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만약에 아주 저명한 지도적인 인사가 솔선하여 그리고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잇달아 간소화 할 때 그 때 가서도 가난뱅이들이 불필요한 의식을 갖출 것인가?

이러한 묘미를 터득했기 때문에 예전의 교양인들은 무엇이나 남 앞에 솔선수범함을 자랑으로 하고 있었다. (P121에서 계속)

새로운 의욕적인 농촌지도자 자동적으로 요구 되는 바 이러한 때에 군내 영농교육의 중요성은 재언을 불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토록 농촌지도자의 육성이 긴박한 현실에 대비하여 군내 영농교육은 모든 개선책을 과감하게 실천 궁행할 수 있는 박력과 책임감이 강한 젊은이로써 선도적 길잡이가 되도록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내 영농교육은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될 것이며 당면한 농업경영의 개선과 농촌진흥의 지도체제를 확립함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희망적인 전망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와 진리의 문제

-논리적 실제주의에 관하여-

김형석

우리는 오늘의 분석철학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비엔나의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아메리카의 재구성주의를 연결 짓는 형식본위의 입장이 그 하나이며 캠브릿지의 분석학과에서 일상어의 분석을 위주하고 있는 옥스 포드 학파에의 입장이 그 둘째이다.

이제 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철학이 뜻하는 중심과제들을 추려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인식지를 중심으로 모인 뷔엔나와 베를린의 학자들은 과거의 형이상학적 철학을 버리고 새로운 과학적 철학을 형성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면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것을 경험에 입각한 과학이라고 보았다. 비록 수학과 같이 명백성을 지닌 학문이라 해도 그것은 사유의 필연적 결과이지 경험과 귀납의 사실은 못 된다. 형이상학이 배척을 받는 이유의 하나도 그 내용들이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한 무의미한 학설일 뿐이라는 것이다. 경험을 떠나서는 실제도 없으며, 인식의 대상이나 내용도 주어지지를 못한다. 이러한 경험의 과학적 뒷받침만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론은 과거의 영국철학이 지녀온 경험철학이지 논리적 실증주의와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 논리실증주의는 반형이상학의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경험철학과 일치되며 그 사상과 학문적 기반을 경험과학에 두었을 뿐이지 경험론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가 경험론에서 자라 경험론과 달라진 근본 조건은 무엇인가? 경험론은 본래가 실재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과 진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는 사실의 표현이며 간접지인 동시에 매 개체인 언어를 인식과 진리의 대상

내용으로 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논리실증주의가 형이상학을 배척하는 것도 언어적 명제로 나타난 형이상학적 내용은 명제로서의 진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적 명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험과 귀납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수학의 양적인 추리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수학의 계산성이 그대로 경험계의 현실과 합치 되는가 함에는 커다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경험주의자들이 수학의 현실적 확증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수학의 명제는 그대로 참이라고 인정한다. 그것은 명제로서의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지식으로서의 내용을 주지는 못한다. 반복할 수 있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뜻하는 바는 사실을 취급하는 것은 경험과학에 그 사실로부터 주어진 명제를 취급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로 라는 구별이 생긴다. 전자는 과학에 속하지만 후자는 통일적인 새로운 철학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과학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경험론을 근거로 논리적 실증주의가 이질적인 것으로 자라고 있음은 족히 짐작이 간다. H.라이헨바흐도 같은 입장이라 볼 수 있으며 신실재론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하는 B.럿셀의 논리적 원 자료도 같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뷔엔나의 논리실증주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대륙 속에 있는 영국 철학이었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원하며 취급하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철학이 사상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어에 관한 것이다. 언어에 관한 제일 문제는 그 주어진 언어로서의 명제가 진이냐 위이냐 하는데 있다. 어떤 입장에서든지 진은 택하면 되나 위는 버려야 한다.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검증의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검증의 표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명제 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명제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①언어의 논리적 구조에서 볼 때 참인 것, ②언어의 논리적 구조에서 볼 때 거짓인 것, ③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 셋 중에서 제일에 속하는 명제를 흔히 동의어반복(Tautalogy)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명제의 논리적 구조로 보아 그 자체가 참으로 머무나 대상의 내용 사건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명제이다. 라이헨바흐의 예를 빌린다면 그만일 나쁘레온도 씨 이자도 60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나뽀레온은

육십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같은 명제이다. 이 명제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진이다. 나뽀레온이 54세에 죽었다는 사실과도 상관이 없으며 혹 나쁘레온이 육십이 넘도록 살았다 해도 이 명제는 명제대로 참이다. 언어의 논리적 구조만 참이면 모든 것은 그로 족한 때문이다.

제이에 속하는 명제는 바로 그 반대이다. 명제 자체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가 되는 모순명제이다. 둥근 사각형 비겁한 용사와 같이 명제 자체의 모순과 거짓이 뚜렷한 것이므로 별로 재론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삼의 경우이다. 이것은 그 명제 자체로서는 진도 위도 아닌 것이다. 대상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그 명제의 내용이 검증되어야 하는 명제이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수학이나 논리학으로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제삼의 경우에는 오직 경험과학만이 진위를 가지는 임무를 책임 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검증수단이 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으며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만일 검증수단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 언어적 명제는 인식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명제에 그친다. 명제다운 명제구실을 못하며 진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내용이 못 된다. 과거의 모든 형이상학들이 이러한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경험과학의 힘을 빌려 검증수단이 주어지며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뜻하는 진리에의 명제가 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것을 종합적 명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어표현의 명석과 그 논리적 구조를 밝힘으로서 내용의 혼란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명제의 논리적 비판을 내리는 근본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철학적 근거에서 명제의 경험성과 논리성은 합치점을 발견하게 되는가? 여기에 큰 영향을 준 철학자가 B.럿셀 비트겐슈타인 등의 논리적 원자론이다. 그들은 직접 뷔엔나 학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학설은 영국과 대륙에 꼭 같은 영향을 초래했다.

지금 논리적 원자론을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공통점을 설명한다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상의 세계는 그 자체대로 학문이나 철학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과학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상은 마치 사실의 원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원자적 사실들에 관한 유한개수의 개체상항들을 하나의 술어상항으로 연결시켜 의미체로 바꾸어 놓은 것이 원자적 명제가 된다.

즉 사실의 요소인 원자가 명제의 요소인 논리적 원자로 바꾸어 놓아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럿셀은 감각에 의한 직접소여가 사물을 전해주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불리적인 시공좌표를 통하여 사실에서 명제에의 길이 가능하다고 주장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과학이다. 결코 철학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형이상학의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원자적 명제는 보다 일반적인 명제인 분자적 명제로 바뀌어진다.

우리들이 일상 접하고 있는 언어적 명제의 대부분은 이 분자적 명제이다. 이 분자적 명제를 동의어반복이나 모순명제로 규정지을 때는 진위가 명백하다. 그것은 논리적 구조에서 판단될 수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그 어느 것도 아닌 종합 명제일 때는 자연히 분자적 명제에서 원자적 명제로 돌아가야 하며 다시 원자적 사실과의 관계를 경험학적 입장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취급하는 것은 경험과학이며 철학은 언어로서의 명제 밖에는 취급할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 원자론을 받아들인 논리실증주의가(언어로서의) 명제의 검증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 코저 뜻한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물론 거기에도 많은 문제는 남아 있다. 무한히 많은 명제 중에서 어떻게 그 표준을 찾는가 함도 어려운 과제이며 유의미 명제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함도 그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언어의 논리적 분석, 의미의 비판을 내린다는 근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언어비판도 하나의 인식비판이기 때문에 분석철학은 일종의 비판철학이기도 하다. 그들이 분석철학을 기호 및 언어의 논리구조를 분석함으로 이루어지는 인식비판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논리적 원자론에는 많은 난점이 들어나게 되었고 논리학의 새로운 발전은 명제의 논리적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19311년 K·괴에델에 의하여는 수학의 논리학에의 환원이 바른 길이 못 됨을 깨닫게 되었고 고전논리에서 다치 논리 양상논리학에의 발전은 언어의 논리적 표현의 다양성이 가능함을 인정케 했다. 여기에 논리적 원자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 이 개척되어야 함을 느끼고 있을 때 카르납의 「언어의 논리적 문장론」이 나타났다. 1934년의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로리칼·신탁스의 입장이라고 부른다.

카르납은 일상용어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혀내기 곤란하나 경험과학의 이론들을 언어로 표현 하는데는 논리적 구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현대 논리의 발전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가져온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논리구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이론들을 어떤 공리계의 형식으로 정돈하며 이 공리계를 다시 엄격히 통제된 일의적인 용법을 가지는 기호의 체계에 의하여 형식화해야 한다. 거기에는 형성규칙과 변형규칙이 가능해지나 그것을 이론적인 위치에서 구별해 보면 다음 세 종류의 명제가 된다. 기호배열에 의하여 주어지는 기본형이다.

영개(零個)의 전제 명제군에서 도출되는 명제 그 부정이 영개의 전제 명제군에서 로출되는 명제 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명제이다. 이 첫째의 것이 다름 아닌 동의어반복이며 둘째것이 모순명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장 중한 것은 제 삼의 종합적 명제이다. 이 종합명제의 진위 및 확실률은 그 이론에서 취급되는 사상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 세 종류 이외의 명제는 명제형성 규칙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무의미한 명제는 사전에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

카르납은 이와 같이 모든 이론을 주어진 형식에 적응시켜 그 적응범위를 가리며 가려진 내용을 다시 세 가지 명제에 해당시켜 논리 구조를 완성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즉 논리적 문장론이다. 그에 의하면 철학이란 이와 같이 경험과학의 이론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논리적 명제로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오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상명제와 메타명제의 구별이다.

전자는 물리 및 경험과학의 대상을 취급하는 명제이지만 후자는 철학적 명제로서 대상이 아닌 언어의 관계성, 세상의 가능한 서술을 언급하는 명제이다. 대상명제는 경험과학의 소여이지만 Meta(넘어서)명제는 그 철학적 관계에 속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지칼 신탁스의 중심은 무엇인가? 논리적 원자론보다 언어적인 논리구조로 끌어들인 내용이며 거기에 엄격한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형식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논리구조를 밝힘으로 언어표현의 혼란을 제거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전 체적인 입장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카르납의 지나친 형식주의에도 몇 가지 난점은 있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우리들의 일상 언어와 과학적 언어를 일률적인 형식규정에 잡아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그 때 마다 구체적인 언어형식의 규정을 찾는다는 사실도 곤란한 일이다. 요컨대 형식화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과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감을 금하기 어렵다. 참과 거짓에 관한 의미론적 개념을 형식주의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완전히 정의 지을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카르납 자신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꾸준한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같은 분야의 전체 분위기는 벌써 다른 방향에의 길을 찾기에 이르렀다.

카르납의 로지칼·신탁스에 의한다면 경험과학의 이론과 형이상학적인 이론의 엄연한 구별이 곤란해진다. 명제의 논리구조가 다양성을 띄게 된다는 것은 형이상학의 명제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길을 여는 것이며 또 지금까지는 인식론적 입장에서 보아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었던 명제가 경험과학의 발달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내용으로 받아드려질 수도 있다. 그 때 마다 새로운 형식적 원리가 제공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카르납의 이론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본래부터 미국에 있던 한두 학자들이 형이상학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의미가 있는 형이상학적 이론과 명제를 논리 구성적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하며 올바른 학문에의 길과 방도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금 하아바드에 있는 파인이 그중의 한 사람 이며 G·벨그만 같은 이는 논리 실증적 방법에 의한 형이상학적 명제의 재구성을 전개시키고 있다. 콰인은 본래 유각론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학자로 출발하여 철학의 정합적인 표현의 도구로서 기호논리의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으나 경험 과학적 언어의 논리구조를 일률적으로 형식에 적응시킴의 곤란을 지적하고 언어의 구조는 넓은 의미의 경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형식 다음에 언어에의 순서였던 것을 먼저 언어 다음에 형식의 위치로 바꾼 감이 없지 않다. 카르납과 같은 위치에 있던 파인이 논리학적, 영역의 기술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일면 일상 언어의 표현을 형식화하고 그 형식회에 따르는 초 수학적 고찰을 통하여 전통적인 철학의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 나가는 일을 택하고 있음은 그 뚜렷한 일예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방법의 철학에의 도입은 결코 철학을 경험과학의 발전에서 유리시키는 것 이 아니다. 카르납과 파인이 자신들을 넓은 의미의 경험론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논리실증주의도 하나의 입장적 선택이며 선택의 기준을 언어의 논리적 구조 및 그 확실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까지 비를 수도 있다.) (P159로 계속)

민주주의 원리 ①

민주주의의 의미

이극찬
<연세대·교수>

야만적인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둔 제이차 대전후에 나타난 뚜렷한 세계의 정치적 특색은 거의 모든 나라가 앞으로서의 정치는 모름지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한결같이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세계의 공분모로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정한 방법과 신념으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특정의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1) 그러므로 「부라운」(J.J.C. Brown)은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절대로 판이한 열개의 이상을 품고 있는 절대로 판이 한 열 사람이 모두 자기는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라든가 또는 「자기의 정책은 민주주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고 기술했던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에 와서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두 진영으로부터 제각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정통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본래의 민주주의의 참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1】 데모크라씨(Denocracy)를 번역하여 일반적으로 민주정 또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데모크라씨」를 「민주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로 정치의 형태에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념 또는 원리 면에 각각 중점을 두고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형태는 그 이념이라던가 원리와 전연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구별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라는 말은 먼저 희랍에서 생겨졌다. 즉 그것은 희랍어의 Démos(민중)와 Kratos(지배.권력)라는 두 말이 결합되어서 생겨진 것으로서,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는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통치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권력이 단 한 사람에 속하는 군주정치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속하는 귀족정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정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인민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원으로부터 고찰해 본다면 민주주의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전적인 정의를 내렸다고 간주되고 있는 「제임스·부라이스」경(James Bryce)이 그의 명저 근대 민주정치론(Modern Dem! ocracies, 1921)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토스의 시대 이래로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옳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릴 경우에 야기되는 혼란의 원인은 그것을 정치의 하나의 방식 즉 형태, 제도 방법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실현되어져야 할 정책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보느냐와의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다. 만일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 형태 또는 정치제도로 본다면, 그와 같은 정치형태와 제도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정책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반해서 만일 민주주의를 그 실현될 정책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정책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 취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간생활에서 사람들이 채택하는 수단과 방법이 또한 그와 같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정책내용과 목적이 모두 같은 이념에 적합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정치의 마당에서는 반드시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는 경우에는 불가불 그것을 제도의 방법으로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내용으로부터 규정하느냐의 어느 편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찍이 「아부라함·린컨」은 「게티스버어크의 연설」 속에서 민주 정을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민주정치는 무엇보다도 인민에의 정치이다. (※2) 즉 무엇이 「인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인민 스스로의 의사로써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민주 정을 그것과 대립되는 전제 또는 독재정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뚜렷해진다. 즉 전제 또는 독재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일반국민에게는 아무런 참정권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취급되어 있는 정치이다. 이것에 반해서 「인민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이란 요컨데 일반 국민이 보통 평등의 참정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 다수의 의사로써 정치가 운영되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정과 전제정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는 그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의 형태, 방식, 제도에 착안해서 내려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정책목적으로부터 민주정을 정의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취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민주정을 그렇게 정의하면 자기 스스로를 「국민의 첫째가는 종」이라고 자처하여 인민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생각했던 프로샤의 「프리드릿 히」대왕과 같은 전제군주도 대표적인 민주주의자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찌기 나치즘과 파시즘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정치를 「참된 민주정」이라고 자칭한 것이나 또는 경제적 기회균등만을 실현만 하면 그것을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도, (※3) 결국은 민주정을 정치의 형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책목적에 주안점을 두고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민주정은 무엇보다도 인민에 의한 정치이다. 이것이 민주정과 전제정을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 하기야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에 참여한 인민이 무식하고 경솔하여 때로는 인민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인민이 원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인민의 의사에 기인되지 않은 지배자가 제멋대로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한 정책을 내 걸고 정치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 댄다 할지라도 또한 사실상 그것이 요행이도 인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적어도 그것이 민의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민주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정치가 보통 평등의 참정권을 가진 일반국민의 자유로이 표명된 다수 의사에 따라서 행해지는 한 현실적인 정치기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건 간에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국을 위시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건 또는 미국처럼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건 또는 군림은 해도 통치하지 않는 명목적인 세습적 군주제를 취하건 간에 요컨데 정치가 민의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한,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군주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훌륭한 민주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형식상으로는 아름다운 민주헌법을 가진 공화국이라 할지라도 실제상으로는 독재정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2】「아부라함·린컨」은 민주정치을 「인민의」(Of,) 「인민에 의한」(By) 「인민을 위한」 (For) 정치라고 했는데 이때에 Of, By, For 라는 각 요소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일체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 민주 정치이다. 왜냐하면 「인민을 위한」 정치에 독재정치도 있을 수가 있으며 「인민에 의한」 정치에 폭민정치도 있는가 하면 또한 「인민의 정치」가 관료정치에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관념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민주정치의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이 세 개의 관념이 하나에로 융합되어 있을 때 정치적 자유는 잘 보장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인민을 위한다」고만 하고 「인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전연 불허한다면 정치적 자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때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A그림과 B그림을 참조하라).

[A그림]

[B그림]

【※3】 일찍이 「레에닌」은 한 나라가 적어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에 대하여 「한스·겔젠」 교수는 그의 저서 「볼세 비즘정치이론의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국가질서의 경제적 형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민주주의는 첫째로 국가의 특수한 형태이고 국가질서의 특수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국가의 경제체제가-정치형태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이유에 의해서 그 헌법이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국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인 한다는 것은 용허할 수 없는 상념의 혼동이다.」

【※4】 그러므로 단지 형식적인 보통·평등의 참정권만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민주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 참정권이 사실상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질 수 있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 즉 언론 집회, 결사 운동 등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관권의 간섭과 금권에 의한 독점과 매수등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유공명선거가 실시되어 선거에서 표시된 민의가 정치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민주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맥키버(R. M. Maclver)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재삼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진위)을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로이 또는 열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종전과 조감도 다름없이 신체의 안전을 보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과연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점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그 권력을 투표로써 과연 빼앗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행해지도록 헌법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느냐 만일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같이 노어(NO)라는 대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R.M. Maclver, The Ramparts We Guard , 1956. P. 97)

공산주의 비판 ①

김창순
〈시사평론가〉

공산주의의 의미

공산주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모든 생산기관과 생산을 공유화하는 제도를 말할 때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며,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재산의 공유제 사회를 실현하자는 주의 및 사상을 말할 때 공산주의란 말을 쓴다. 그렇고 보면 공산주의란 것은 재산의 사유제도, 즉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제도와 사상이다.

옛날의 공산시대 아득한 옛날에 인류는 공산사회에 살았다 한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네것 내것의 구별 없이 살았다는 것이다. 앞산의 딸기 뒷산의 능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연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태어 네것, 내것을 가릴 필요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네것, 내것의 구별이 없었다 한다. 즉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다. 저 여자는 내 여편네이다는 구별없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말하여 원시 공산시대, 또는 원시 공산사회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인류는 진화하였다. 우선 식생활에 있어서 앞산의 딸기도 딸기요, 뒷산의 딸기도 딸기지만 어쩐지 내 입에는 뒷산의 딸기보다는 앞산의 딸기가 더 맛이 있다는 미각이 발달되었다. 그리하여 앞산의 딸기는 내것이다는 사유관념과 사유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인간의 사유관념과 사유의식은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으로서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여자는 내 여편네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또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는 부부관계가 형성 되므로서 집이 형성되고, 이것은 가족제도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의 출현 및 발달은 인류사회의 문명과 진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의 공산주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란 것은 인류가 미개했을 때 이미 그 형태가 있었던 것이나 오늘에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란 것은 마르크스(1818~83)와 「엥겔스(1820~95)」를 교조(교조)로 하는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말함이다.

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이론은 3대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1.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철학적 기초이론)
2. 노동가치설(경제학적 기초이론)
3.「프롤레타리아」 혁명론과 독재론(정치학적 기초 이론)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종래부터 있어왔던 학설들, 특히 독일의 철학, 영국의 경제학, 프랑스혁명의 정치사상들을 종합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에 맞도록 이용 또는 변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맑스」주의라고도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공산주의가 맑스주의 그대로가 아닌 것만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미 「맑스」 시대부터 「맑스」주의 이론의 그릇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맑스」가 사망한 뒤에는 더욱 그에 대한 수정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맑스」주의를 러시아에 실현한 「레-닌」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대담하게 수정한 자이다. 그러면서도 「레-닌」은 자기만이 「맑스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킨 정통파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이것은 「맑스」가 벌어놓은 유산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려는 모략적 의도인 것 같다.

「맑스」가 벌어놓은 유산이란 것은 「맑스」주의가 옳다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때 많이 나타났던 것을 말함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그「레-닌」은 자기만 이 「맑스」의 진정한 제자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이외의 「맑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자, 변절자 또는 배신자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레-닌」에 의하여 「러시아」에 적용된 「맑스」주의는 그 실 「맑스」주의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레-닌」 주의라고 부른다. 또는 「맑스·레닌주의」라고도 한다. 이것이 현대공산주의의 대표적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레-닌」을 현대공산주의의 종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레-닌」을 계승한 「스타린」은 「레-닌」 주의들 상당히 수정하였다. 이것은 「스타린」의 독재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스타린」은 「레-닌」보다도 더욱 파격적이며 극단적이다.

그러나 「스타린」 주의도 수정을 당하였다. 「스타린」의 사망 후에 「흐루시쵸프」는 과거의 「스타린」 주의를 가지고서는 소련 내의 공산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공의 독재자 모택동은 「스타린」주의의 수정에 반기를 들고 소련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리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의 공산진영은 소련「뿔럭」과 중공 「뿔럭」으로 분렬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당이 더 많다.

공산주의 이론

1. 유물론(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세 계관이 유물론에 토대하고 있다. 「엥겔스」는 말하기를.....『모든 철학 (특히 근대철학)의 가장 큰 근본문제는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이 무엇에 앞서느냐 즉 정신이 자연에 앞서느냐 또는 자연이 정신에 앞서느냐의 문제이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2대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정신이 자연에 앞서서 존재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에 의하여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용인한 사람들은 관념론의 진영을 이루었다. 이에 대하여 자연(물질)을 본원적인 것으로 본 사람들은 유물론의 각 종류파에 속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물론의 진영에 속한다. 그들은 물질이 정신보다 본원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물질은 감각, 관념, 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본질적이며, 이에 대하여 의식은 물질의 반영이기 때문에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도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심론자들이 인간은 사유하고 비판하는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물질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시해 버린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물질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유는 뇌수의 산물인바, 뇌수는 물질 가운데 최고의 물질이다. 뇌수는 사유의 기관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은 옳은 것인가?

첫째로 우주는 물질의 세계이며, 물질은 모든 것의 근원적인 존재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할진대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세계(물질)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이 없을 때 물질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물질에 대한 인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데 유물론을 취하든 안 취하든 간에 물질이란 것은 인간에 의하여 인식된 존재이다. 가령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세계(물질)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며, 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세계가 먼저며 인간이 뒤라고 하는 시간의 전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뿐이지 어느 것이 근원적이고 어느 것이 파생적이라는 결정의 근거로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생각해 보라. 정신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만, 물질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를 물질로만 본다면 몇 푼의 가치밖에 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 하나의 고기 덩어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어떠한 생각이 떠올리게 되는가? 정신이 뇌수의 산물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뇌수는 물질이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한 부분이며, 그리하여 물질세계의 한 구석 안에 있다.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대하여 생각할 적에 물질세계의 밖에서 물질을 관찰하는 것이다. 물질로서의 뇌수와 정신이 동일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물며 물질이 본질이고 정신이 부차적이라는 주장이 옳을 수가 없다. 또 생각해 보라. 인간은 누구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유쾌하다.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럼 뇌수는 물질이기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가 없다. 그러나 정신은 괴로운 것은 괴롭다. 즐거운 것은 즐겁다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생각해 보라. 도덕의 가치, 선악의 판단은 인간 정신의 능력이다. 어느 물질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인간의 행위는 동물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곳에 가치가 있다. 사람이 실천한다는 것은 주위의 현실성을 변경하며 자가의 목적에 적합하게 시리 주위의 현실성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함이다. 그럼으로 실천이란 것은 일정한 목적을 예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적이란 것이 미래에 있어서 비로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실현되어 있는 것일 수가 없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의식은 다만 객관적 존재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객관적 실재물이 없이는 인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미래에 실현되어야 하는 목적의식이란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어렵게 말하면 공산주의 철학의 묘사설적 인식론의 맹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실천에 대하여 열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즉『공산주의를 먹어 보면 누구나 그 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자』고 외친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객관적 실재물로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묘사설적 인식론-※의식은 객관적 실재물이 뇌수에 반영된 것이다.)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유물론의 입장을 내던지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형편이 좋게 될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하고 있다. 즉『먹어보면 그 맛을 안다』는 주장이『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먹어보면 그 맛이 천하일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감관, 지각을 후차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여기서는 그것을 선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맑스」와「엥겔스」는 다 같이 공산주의사회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도 공산주의사 회를 먹어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보면 천하일 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그들의 철학이『먹어보아야 비로소 그 맛을 안다』고 주장함에 있어서랴. 또 한 가지는 먹어보고 맛이 좋은가 나쁜가를 안다는 것은 인식의 진·위와는 관계가 없다. 왜냐면 자기 앞에 공산주의밖에 없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사람은 후일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다. 먹어보기 전에 이것 저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더 좋은 것은 만들 수 없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약방에 가면 독약도 있고 보약도 있다.

(P157에 계속)

<세계경이순례>

폼페이 최후의 날

-서기 79년 8월 24일-

리챠드·하리바톤

서기 79년 8월 24일 로마의 남쪽 200키로 지점에 있는 폼페이는 무더운 여름 아침을 맞이하였다.

돌을 깔은 포도(鋪道)에는 시골에서 온 야채 차와 생선을 실은 마차로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25,000의 주민들도 잠에서 깨어나 저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일들을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점포를 열고 거리의 선술집에서는 한잔 술로 해장을 하는 축들도 있었다.

여덟시쯤 되자 마차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로부터 한 시간쯤 지나서 공회당도 부산하기 시작하였다. 간밤에 붙여진 고시문을 드려다 보면서 사람들은 입후보자들에 대한 화제에 꽃을 피웠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시장선거가 있는 것이다.

이날 아침의 폼페이는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흐르고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 일하는 사람들,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들 모두가 우리 현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 당시 폼페이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으며 어떠한 의복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폼페 이시는 이날 별안간 크게 분화한 베스비오산의 화산회로 말미암아 그대로 재에 매몰된 채 1,800년간을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는데 거기에는 폼페이시의 마지막 운명의 날 오후 1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로마시대의 시민생활을 그림처럼 완전하게 나타내는 유일의 것이기 때문에 실로 경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시기로부터 12제자의 한 사람인 성베드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12년간 폼페이는 이 지방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의 하나였는데 많은 로마 귀족들이 나포리만 근처의 명승지인 이 도시를 사랑해서 여기에 별장을 많이 지었다.

만 쪽으로부터 시가지를 뒤덮을 듯이 베스비오라고 불리우는 해발 1,200미터의 아름다운 산이 솟아있다. 산정에

이르기까지 포도원이 줄지었고 정상은 비교적 넓고 평평한 초원이 있어 거기에는 옛날부터 폼페이의 어린이들이 양떼를 몰고 다녔다. 그러므로 그 당시 베스비오산을 위험한 산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서기63년에 이르러 이 조용한 산정은 지진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지진으로 해서 폼페이시의 공공건물이 무너졌으며 나포리의 극장이 파괴되어 당시 네로황제가 베푼 음악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드디어 서기 79년 8월 24일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1시 베스비오산이 느닷없이 분화하여 폼페이시를 삽시간에 재로 덮어 버렸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런지 이와 같은 재난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그 당시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있었으며 더구나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보존되어 온 것이다.

그 당시 나포리만 기슭에는 로마의 가장 훌륭한 학자로 「박물지」37권의 저자로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또한 함대의 제독이기도 하였던 대(大)푸리니우스(서기23년-79년)가 그의 조카인 열여섯살 나는 소(少)푸리니우스(서기62년-110년)와 더불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소(少)푸리니우스는 아저씨를 덮어 학자심망의 재기 넘치는 소년이었다. 대(大)푸리니우스는 베스비오산의 분화 때문에 죽었으나 소(少)푸리니우스는 다행이도 난을 피하여 자기가 목격한 그대로를 그때 로마에 살고 있던 아저씨 친구인 유명한 역사가 다시타스에게 편지로 자세히 알렸다. 그 편지의 대요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대단히 흥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선생님은 아저씨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기에 글월로 알려드립니다. 그때 저이들은 잘 건너 기슭에 있는 미세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폼페이로부터 20키로 남짓하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아저씨 지휘 하에 있던 함대 정박지였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쯤 저의 어머니는 베스비오산 꼭대기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양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시고 이상스럽게 생각하여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가서는 하얀 빛 같이 별안간 시커멓게 변하였는데 흡사히 모래나 재를 퍼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보시려고 조그만 배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쳐 온 가장 위험한 장소를 향해서 배를 저어 갔습니다. 기슭이 가까워짐에 따라 뜨거운 재가 배 위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상 배를 저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자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던 끝에 「행운은 용자에게 있다! 배를 저어라」라고 선장에게 명령 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배는 폼페이 대안 4·8키로 지점에 있는 스트라비아라는 곳에 도착하여 아저씨는 여기서 상륙한 다음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베스비오산은 여러 군데서 불을 내뿜어 흘러내리는 용암은 캄캄한 밤에도 무서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아저씨는 아주 태연하게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 안마당은 용암과 재로

뒤덮여 피신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난을 할 것인지를 의논 하였읍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며 집이 흔들리고 밖에는 꿈과 재가 마구 쏟아져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처박혀 있느니 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좀 나으리라고 생각하여 모두 머리를 싸매고 집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트라비아시는 밤보다도 더한 어둠에 쌓여 있었읍니다. 아저씨는 친구들과 더불어 또다시 해안으로 나가보려고 애를 썼으나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읍니다. 얼마 후에 고약한 유황 냄새가 해안 쪽으로 퍼져왔읍니다. 몸이 뚱뚱해서 기침으로 고생하던 아저씨는 이 유독한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서 배 위에서 쓰러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스로 그곳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 아저씨의 시체는 재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저는 미세남에 있었는데 아저씨가 안 계신 동안 밤중에 大地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읍니다. 날이 밝을 무렵 어머니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저의 침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집이 무너질 것 같기에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피난민들은 거리를 메웠습니다.

길에는 토사가 쌓여서 마차가 움직일 수 없었으며 해변에는 생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무시무시하게 검은 연기가 일어나며 그 속에서 불빛이 번득 였읍니다. 어머니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너만이라도 빨리 도망치라고 애원하였으나 저는 어머니의 팔을 힘껏 붙잡은 채 그대로 앞으로 전진 하였읍니다. 얼마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 왔습니다. 아녀자들은 울부짓고 남자들은 이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었읍니다. 어버이는 자석을 붙들고 자식은 어버이를 찾으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우성을 치면서 찾고 있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슬픈 운명을 저주하면서 울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재는 끊임없이 내리 퍼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재를 털지 않고서는 그대로 그 속에 파묻혀 버렸을지도 몰을 일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짙은 연기가 조금씩 걷히면서 태양이 다시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흡사히 눈에 뒤덮인 것처럼 재에 덮혀있었읍니다.

소(少)푸리니우스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미세남에 있는 황폐한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아저씨의 죽음을 알았다. 그것은 아저씨와 끝까지 동행하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아저씨의 부하가 알려준 것이었다.

내가 앞에 소개한 소(少)푸리니우스의 편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증언의 하나일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폼페이로 돌려 보기로 하자! 베스비오산에서 28·8키로나 떨어진 미세남에서 조차 그렇게 酷甚하였으 니 밑에 있던 폼페이슈는 어떠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25,000의 주민들이 지진에 흔들리고 폭음과 연막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다. 시내는 삽시간에 수라장이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재 조금이라도 이곳을 벗어나려고 무턱대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몸을 피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약 2,000명 정도가 서로 가족들을 찾거나 황금이나 보석 같은 가재를 건지려고 하다가 그대로 재 속에 매몰되어 1,800년 후에 겨우 발굴된 사람도 있는 것이다.

밤낮으로 이틀을 두고 돌과 재가 지진으로 흔들린 이 도시에 쏟아져 내렸다. 모든 집들은 목조였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그 위로 재가 미터나 쌓였다. 거기에다 그 후에 다시 이러난 베스비오의 분화로 또 다른 재가 4.5미터나 쌓여 종적이 감추어진 채 그 위로 초목이 번성하여 폼페이라는 이름은 전세기의 유물이나 신화처럼 되어 버렸다.

그 후 1748년까지 약 1,700년이라는 오랜 동안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이르자 몇몇 탐험대들이 여기저기를 파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60년부터 재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야흐로 폼페이는 완전히 베일이 베껴지고 로마시대의 도시가 다시금 그 무덤에서 소생하였다.

=P153에서 계속=

어느 것을 살 것인가의 선택은 사는 사람의 자유이다. 보약을 산다는 것이 독약을 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악덕한 상인이 독약을 보약으로 속여서 팔았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클 것인가? 가사 독약을 보약인 줄 알고 팔았다 손 치더라도 먹은 사람의 불행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비판하려는 바이지만,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먹어보면 안다는 입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데는 모략적인 의도가 많음을 경계해야 하겠다. 이것은 어쨌든 자본주의는 파괴하고 볼 판이다는 위험천만하고도 단순한 생각을 이르키게 하려는 음모의 과학에서 나온 「슬로간」이다.

누구도 말했거니와 공산주의는 『일종의 음모의 과학이며, 파괴의 기술이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사실 그러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백림(베를린)사태의 배경(하)

루시아스·D·그레이
장세원 역

정치적 통합에의 희망을 표명한 서구제국은 全部 연합하면 미국보다 많은 인구와 소련보다도 많은 자원과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미국과 방위를 위한 동맹을 맺으면 장기에 걸쳐 평화를 확보하고 자유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흥제국을 고무하여 그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하도록 세계의 세력관계를 변경시킬 것이다. 현재,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제국은 경제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계속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있으며 국민은 자유속에서 희망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제국은 분명히 새로운 번영을 안지 일몰하며 공동방위와 세계 저개발 제국의 원조에 응분의 공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국은 이때까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책임을 지고 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자유옹호를 위하여 그들의 당연한 책임수행을 십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백림(베를린)의 성벽이 구축된 이래 미국은 다른 자유제국보다도 군사력의 강화에 노력해 왔다. 미국으로서는 NATO에 속해 있는 다른 제국도 그 군사력 증가의 약속을 횡행하도록 주장하고 미국과 일체가 되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의 자유를 지원하도록 요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후 백림(베를린)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까? 이것을 알기에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단지 백림(베를린)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만큼 독일인이나 상품이 백림(베를린)출입을 저해 당한다면 동서양독간의 통상무역은 즉시 전면적으로 정지될 것이다. 또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더욱 계속된다면 반드시 형태를 달리한 대량경제보복이 감행될 것이다. 1961년 8월 13일 이후, 서구동맹에 대해 감행된 여러 가지 조치가 그 어느 것이든 어떠한 형태로서 서방측으로 하여금 동해 정권을 인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이상, 소련이 금후도 같은 목적을 추구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련의 이와 같은 음흉한 공작을 간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소련의 그러한 공작 중에는 그 에 대해 일일이 대항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장난으로 백림(베를린)에 있어서 서 방칙의 지위에 손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소련 군장병에 대하여 일단 경의를 표하면서도 동독경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동독경찰을 정한다는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울부리히트」의 경찰에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의 서백림(베를린)에의 통행권을 하는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소련이 서백림(베를린)에 있어서 공포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장난을 계속한다면 그 전술 속에는 무력행사도 들어있을 것이나, 소련이 무력을 행사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백림(베를린)에서 보지하고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동독괴뢰 정권에 의하여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어떤 장소에서와 같이 백림(베를린)에 있어서도 우리는 위협이 증대해지고 구체화되면 우리들도 차츰차츰 군대의 강화로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것이 전쟁의 위험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일이다. 우리들은 공산주의사자들이 세계정복을 위하여 범하는 위험만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범할 용의와 결심이 없는 이상 도저히 그들을 이겨 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백림(베를린)에 있어서 이 이상은 더 양보해 줄 것이 없어졌다. 하나를 양보하는 대신으로 그만한 대가, 또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경우에는 혹은 현명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백림(베를린)에 주류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이며, 또 현재 동독이라 불리우는 광범한 토지 소련군의 점령에 위임한다는 협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 위에 만일 미국이 자결주의를 철제 철미, 지지한다는 약속에 충실하려면 서백림(베를린) 시민을 자유선거를 거부한 공산주의자들 손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우리들은 단순히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한 서백림(베를린) 시민을 아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백림(베를린) 위기야말로 구라파의 위기이며, 서구에 대한 위기는 곧 미국에 대한 자유와 독립에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미국이 백림(베를린)에서 실패 한다던가 당황한다면, 서구가 가진 미국에서의 신뢰감은 완전히 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서구 진영의 사람들은 백림(베를린)의 포기가 구라파 민주주의의 영원한 몰락에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P143에서 계속-

이러한 견해를 새로 개척하면서 논리적 문장론을 하나의 중립적인 방법론으로 모아 그 방법을 형이상학의 재건에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대표자의 한 사람이 벨그만이다. 논리실증주의는 어디까지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새로운 철학의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는 태도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후일의 과제가 된다. 열매를 보기 전부터 비판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뚜렷한 성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논리적 실증성의 절대성이 약간 수정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형이상학에서 형이상학에의 비판과 새로운 해석에의 길을 택함으로 경험과학의 일방성이 철학적 전통에의 길로 향하는 태도와 방향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충 혼

박훈산

모든 강물은 바다로만 모름지기 흘러내리듯이 착한 마음의 뜻은 민족만을 위하여 흘렀나니.

여기 젊음의 피를 아낌없이 뿌리고, 하나의 씨앗을 심으려고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히 피우기 위하여 대열을 지어 선두에 나선 그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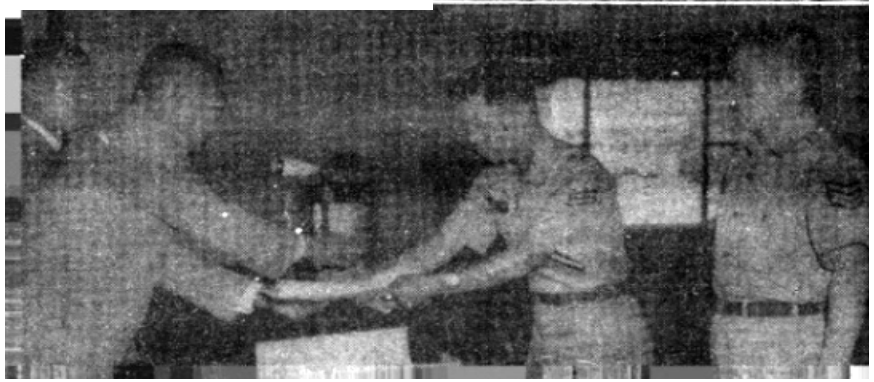
월 15일, 「이미르」 미공군성 군관보는 우리 공군의 현황과 시설을 시찰하였다.
사진=항공본창을 시찰하는 「이」군수차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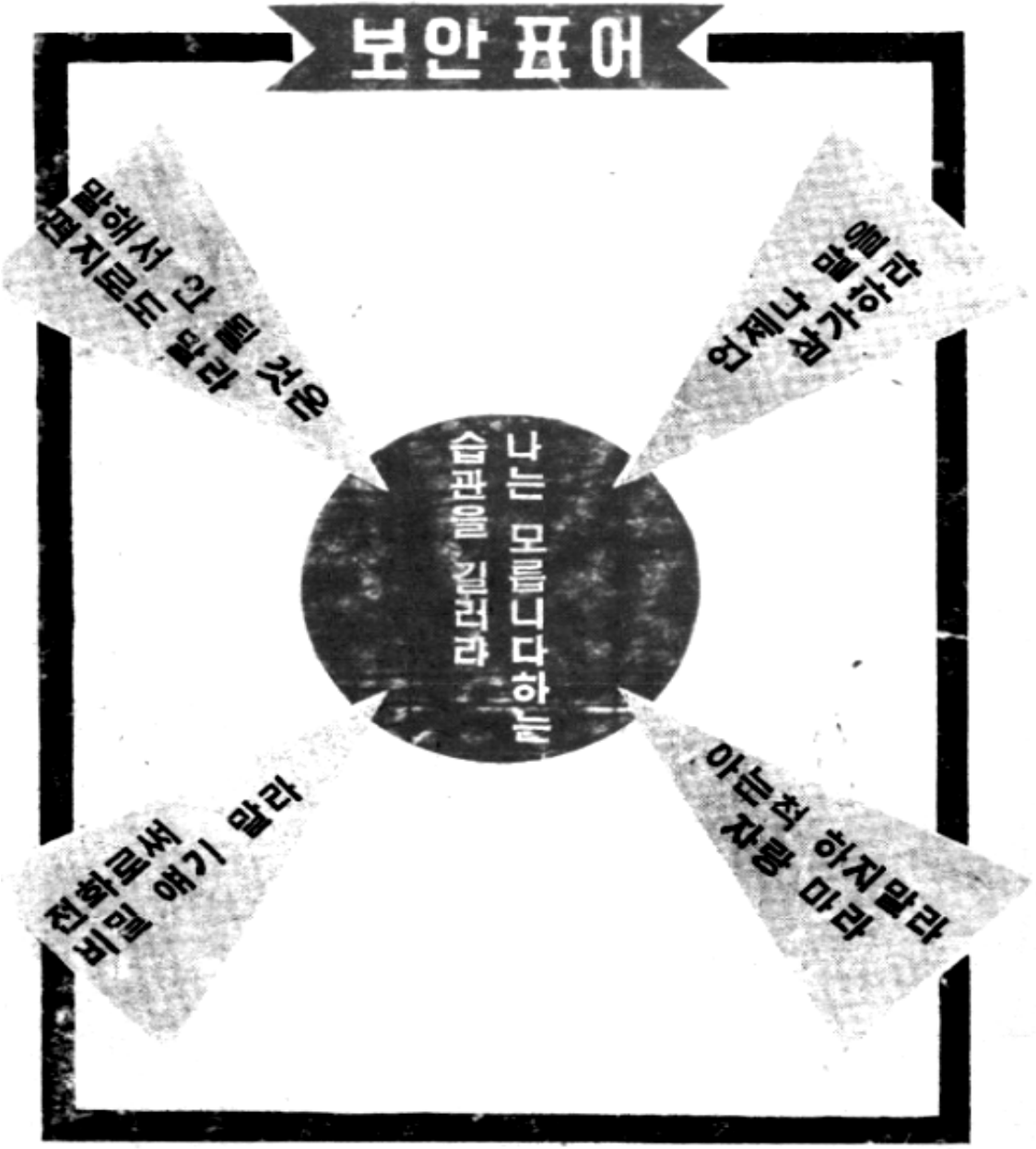
→삼육보육원에 재봉틀 기증

5월 15일 장총장은 영등포대방동에 있는 삼육보육원에 고급 재봉틀 한 대를 전달하였는데 이것은 본부 참모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사진=재봉틀을 기증하는 장총장

반공웅변대회개최↓

감찰감실 주최로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군내 반공웅변대회가 5월 14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1등에 당선한 정원조 일병이 상장을 받고 있다.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